현대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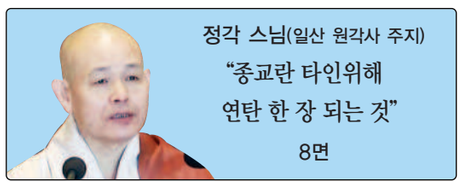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2월 17일) · 주간

제1030호 2015년 2월 5일 목요일



정각 스님(일산 원각사 주지)
"종교란 타인위해
연탄 한 장 되는 것"
8면



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이뤄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괴로움은 그 사람을 따라 다닌다.



조계종은 1월 28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출범식과 1차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조계종 현안 타개 '죽비' 들다

총무원, 1월 28일 '100인 대중공사' 출범 및 1차 회의

사부대중 120여 명 참석
자승 스님 "이벤트 아냐"
합의 과제, 행정 반영 약속

분임토의로 8대 의제 정해
인재 양성 · 포교가 첫 주제
대중공사 2월 24일 논의

100인 대중공사 8대 종단 의제

- 종단의 인재 양성 포교 프로그램 개발
- 사찰 재정 투명화
- 종단 신뢰 구축
- 사부대중 참여를 통한 종단 활성화
- 승가 공동체 회복
- 사회적 의제 실천
- 지역사회 사찰 역할 강화
- 교구 중심의 지방 분권 강화

불교 인재 양성, 사찰 재정 투명화, 승가 신뢰 구축 등등. 한국불교 장자 종단인 조계종 앞에 놓은 현안들은 산적해 있지만, 안팎으로 갈등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계하고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사부대중이 머리를 맞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28일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출범식 및 1차 대중공사가 열렸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100인 위원으로 초청된 각계 사부대중 120여 명이 참석했다. 100인 위원에 이름을 올린 대중은 총 167명이다. 이 같이 사부대중이 대규모로 모여 종단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주요 인사로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주요 소임자를 비롯해 선원, 율원, 강원 소임자, 주요 사찰 주지 스님과 불교학계, 시민사회단체, 포교신행단체 인사들이 참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모시는 말을 통해 100인 대중공사 추진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 특히 대중공사를 정치적 이벤트로 평가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자승 스님은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정치적 편견으로 속단해 진중한 마음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판단의 이면에는 종단 운영에 대한 짙은 불신과 선입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승 스님은 대중공사를 통해 합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종무기관과 중앙종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100인 대중공사 공동 추진위원장 지홍 스님은 여는 말을 통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현대판 조계종 결집'을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단의 공동체적 전통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중공사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조계종단의 과거와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식 이후 오후 1시부터 첫 번째 회의가 진행됐다. '100인 위원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대중공사 주제와 진행방식 안내, '통계로 본 한국사회와 종단의 현실' 브리핑, 분임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분임 토의 방식은 색다르게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참가 대중은 이미지 연상하기와 '감사 · 창의 · 용기 · 책임 · 탁월 · 헌신 · 배려 · 열정 · 화합 · 진실' 등 제시 단어를 보고 스스로 키워드를 정했다. 10개로 나눠진 분임 토의에서는 키워드를 통해 우선되는 종단 현안 의제 5개를 정했다.

100인 대중공사는 분임 토의를 통해 각 모둠마다 5가지 의제를 쏟아냈고, 총 14가지 의제를 투표에 부쳤다. 투표를 진행한 뒤에는 실제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8대 의제가 정해졌다.

100인 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의제는 인재 양성이었다. 대중들은 '종단의 인재 양성 포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54표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로 정했다. 이어 △사찰 재정 투명화(47표) △종단 신뢰 구축(37표) △사부대중 참여를 통한 종단 활성화(33표) △승가 공동체 회복(32표) △사회적 의제 실천(15표) △지역사회 사찰 역할 강화(14표) △교구 중심의 지방 분권 강화(12표) 등을 중요하게 다룰 것을 결의했다.

결정된 의제는 매월 대중공사를 통해 세부적 실천 방안 등을 정하게 된다. 높은 선택을 받은 의제인 '종단의 인재 양성 포교 프로그램 개발'은 오는 2월 24일 2차 대중공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은 올 한해 3월 25일, 4월 29일, 5월 27일, 6월 24일, 7월 29일, 8월 26일, 9월 30일, 10월 28일, 11월 25일 등 총 9차례에 걸쳐 대중공사를 연다는 계획이다.

공주=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해설 3면〉

불자들 종교 열성도 낮고 고령화 추세

한국갤럽, 종교실태조사… 1984~2014년 분석

불교인은 타종교에 비해 종교열성도가 낮으며, 구성원이 고령층에 편중돼 향후 종교인구에 있어 열세에 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이 나왔다.

한국갤럽은 최근 전국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의식에 대해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1) 종교실태〉를 펴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불자들은 생활에서 불교의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개인 생활에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개신교인(90%)이었으며 천주교인(81%), 불교인(59%), 비종교인(30%) 순으로 나타났다. 불교인은 1984년 88%에서 2014년 59%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주 1회 이상 종교 의례 참여율도 개신교인(80%)이 가장 높고, 천주교인 59%, 불교인 6% 순이었다. 불교는 연간 의례 참여 수준으로 시주 또한 1년에 1~2번이 45%로 가장 많았다.

기독교인은 매주하는 십일조를 위주로 이행률(개신교인 68%, 천주교인 36%)이 역대 최고다.

문제는 비종교인의 종교 호감도에서조차 불교의 호감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종교인의 호감가는 종교 순위에서 불교는 25%로 1위를 차지했지만 이 또한 2004년(37%)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수치다. 개신교와 가톨릭은 수치에 변동이 없었다.

이와 함께 종교의 대물림 현상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은 불교가 가장 높았으며(부친 67%, 모친 82%), 그 다음은 개신교(부친 47%, 모친 56%), 가톨릭(부친 38%, 모친 46%)로 나타났다.

불교의 경우는 특히 구성원 다수가 고령층으로 향후 종교인구에서 열세에 처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갤럽은 자료에서 "현재 불교인의 종교일치율이 높지만 향후 가족 구성원을 통한 종교인구의 확장성은 전 연령층에 고르게 분포한 개신교 측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은 "30년 전인 1984년과 비교하면 종교생활을 시작하는 연령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2004년에 비해 '10대 이하'는 47%에서 38%로 줄고 '40대 이상'이 11%에서 22%로 느는 등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교인 비율 감소 원인은 청년층에 있으며 고령화로 향후 종교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각 종교가 세대별 사회생활 변화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인의 종교 인구 분포 (%)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종교	비종교인 (종교없음)
1984년	19	17	6	3	56
1989년	21	19	7	2	51
1997년	18	20	7	1	53
2004년	24	21	7	1	47
2014년	22	21	7	0	50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본사 주지 '문화재보수 수의계약' 고수

주지협, 29일 회의서… 정부 공개입찰 방침 반대

선학원 추진위 구성 동의

정부가 문화재 유지보수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개입찰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계종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월 29일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 제37차 회의에서 공개 입찰제가 아닌 현행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총무원 문화부는 2012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문화재청이 문화재 유지보수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을 가급적 줄이려 한다며 이에 대한 종단 통일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하고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절충안인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한 계약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공개입찰을 하면 사찰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또 선정이 되지 않은 업체는 여러 문제를 제기해 불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지적했으며,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3년 전 공개입찰 방식으로 마곡사 대웅보전을 보수했는데, 올해 전면 해체보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공개입찰 방식이 문제가 있음을 토로했다.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현행 방식이 효율성이 높다. 사찰 건축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총무원의 요청에 따라 선학원 특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구성안도 논의했다.

추진위원으로 신흥사, 법주사, 마곡사, 수덕사, 은해사,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금산사, 송광사, 봉선사 등 11명, 상임위원으로 법주사, 수덕사, 범어사 등 3명의 본사주지스님이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태고종 선암사측이 조계종 등기명의를 말소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고받았으며 불교신문 월 구독료 인상안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3월 24일 오후 3시 금정총림 부산 범어사에서 제38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회장 3교구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과 부회장 5교구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을 비롯해 16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1030호 INDEX

시방세계 5
교사불자연합회 명상연수 현장



만남 그리고 향기 16·17
유필화 · 이기향 교수



보련 기획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 초파일 용품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 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태고종 분규사태가 비상대책위의 23일 총무원사 점거로 촉발됐다. 태고종 집행부의 26일 경찰청 항의시위(사진 왼쪽)와 비대위측의 28일 기자회견 모습

결국 터진 태고종 사태 '점입가경'

집행부 "불법난입"vs 비대위 "도산스님 퇴거"

태고종 총무원장 퇴진을 두고 집행부와 비대위 양측이 급기야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충돌은 2월 예정된 집행부와 비대위 간의 소송 판결을 앞두고 비대위 측이 총무원 청사를 점거한 데서 비롯됐다. 비대위 측 스님 10여명은 1월 23일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태고종 총무원사를 점거했다.

집행부와 비대위 등 양측은 점거 사태 다음날인 24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를 격렬히 비난했다.

태고종 집행부는 창신동 원각사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태고종 총무원사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비대위 측이 망치 등 흉기를 들고 불법 폭력점거를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도 총무원 청사 인근 갤러리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종단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생각이 없고 반대세력에 대한 보복을 천명함에 따라 총무원에서 퇴거시킨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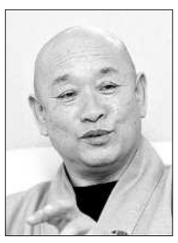
경찰이 양측 충돌을 막기 위해 태고종 총무원사를 차단한 가운데 26일 집행부와 비대위 양측은 경찰이 상대방을 비호하고 있다며 경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태고종 비상대책위(위원장 종연)는 28일 태고종 총무원 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지역경찰관에게 고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 측은 경찰 측에 뇌물을 제공한 내용과 이번 사태에서 청사 경비를 위해 총무원 명의로 1억여 원을 차용한 내용 등을 담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 노덕현 기자

10.27법난위원장 지현 스님 선출

27일 회의서… 의료비 지급 등 논의



국무총리실 산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5차 회의에서 새 위원장에 지현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 사진)을 선출했다. 10.27법난위원회 출범 이후 다섯번째 위원장이다.

지현 스님은 "기념관 건립 등 중요한 사업들을 원만히 진행하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27법난위원회는 이날 피해자 해당 여부에 대해 심의를 벌여 6명을 추가로 인정했으며, 2명에 대해서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명예회복 신청 166건과 의료지원 신청 68건 등 모두 166건을 접수해 136건과 43건을 각각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문 스님(조계종 사회부장), 삼보스님(법흥사 주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지현 스님은 법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1년 수계했다. 12~16대 중앙종회의원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청량사 주지와 총무원 총무부장,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 총도감 등을 맡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사찰 양극화 시대, '공영제' 도입 필요하다

조계종 불교사회硏 사찰 양극화 해소 방안 연구서 발간

#충남 중소도시에 있는 A사는 전형적인 지역 사찰이다. 신도 수는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숫자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대중 살림을 꾸려나가기 어려워 소임 스님을 두지 못하고 있고, 같은 이유로 공양주도 없다.

#강원도 탄광 지역의 B사는 석탄 산업이 사양화 되면서 신도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과거 초하루법회에는 200~300명의 신도가 동참했지만, 이제는 20명 남짓 사찰을 찾는다. 그렇다보니 B사에서 소임을 살고자 하는 문중 스님이 없는 상황이다.

농어촌 중심으로 사찰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도시 지역으로 인구들이 이동하면서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찰들의 경제가 함께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사찰간의 부익부 빈익부 심화로 인한 양극화와 재정규모가 있는 사찰을 둘러싼 사유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이같은 사찰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서를 최근 발간했다. 사찰 양극화 현상에 대한 단일 주제의 전문 연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농어촌 말사 재정 악화 심각
독살이, 사유화 악순환 가져와
불교적 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교구 차원 공영제 시행 필요

연구서는 지역의 교구본사와 말사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실태조사와 해당 주지스님들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님들의 진지한 고민과 함께 종단 차원에서 해결해 가야 할 대안의 단초를 정리했다.

연구서에 따르면 말사들은 △신도 감소와 노령화 △기도와 재수입 급감 △변하지 않는 고정비용 △독살이의 만연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이들 문제는 서로 연결돼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도가 감소하니 자연히 사찰 재정이 악화되고 재정 규모가 취약해지는 사찰은 독살이를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연구서는 "부족한 재정은 적자 운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대중살림을 불가능하게 한다"면서 "독살이의 증가는 재정의 불투명한 운영, 삼보정재와 사찰의 사유화로 인한 승가공동체 파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서는 교구를 중심으로 한 '사찰 공영제'를 제안했다. 교구 중심 사찰 공영제는 교구 수말사를 교구의 특별분담금 사찰로 지정해 공영화 하고 재원을 모아 기본적 생계도 어려운 말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앙종회에서 입법을 통한 공영제 추진은 일선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교구 중심 사찰공영제가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게 연구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연구서는 "말사들이 처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융살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종단의 역할"이라며 "사찰 공영제가 구현돼야 사유화나 독살의 폐단이 사라질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과 활동이 우선되는 승가공동체의 복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살이 금지를 비롯해 △승려노후복지의 완비 △사찰 전기요금 해결 △사찰 수익사업 모델 마련 △분담금 형평성 마련 등을 종단 차원의 대책으로 내놨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일선 사찰이 직면한 재정 위기는 양극화 뿐만 아니라 사유화, 독살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단시간에 해결책을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찰 재정 확충방안과 건전성 강화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가운데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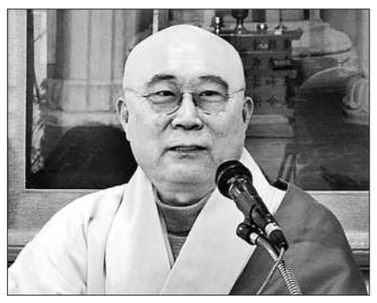
한편, 불교사회연구소는 '사찰예결산제도 정착과 재정투명성 실현을 위한 연구' 사업과 '교구 활성화 방안 연구' 등 21세기를 맞는 사찰과 교구의 원활한 운영과 이를 위해 종단이 추진해야할 법적,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종책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민 행복 위한 긍정에너지 심어줄 것"

조계종 포교원 신년계획
'교구 중심 포교기반 구축'

조계종 포교원이 '교구 중심의 포교기반 구축'을 기치로 포교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은 1월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 · 교구의 균형발전 실현사업을 위해 지역 정책 수립과 청소년 · 대학생 포교활성화 및 전법 프로그램 보급 강화 등 신년 사업계획을 밝혔다.



지원 스님은 "각종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스트레스는 국민 개개인 삶의 질과 행복감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럴 때 불교가 갖고 있는 생명존중과 행복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을 완화하고 사회적 긍정에너지를 창출하는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은 34대 총무원 주요 종책 기조인 '중앙 · 교구의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교구 중심의 지역포교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포교사단 · 불교대학 등 포교 · 신도관련 사업 중 10여개 사업을 교구에 이관하거나 협력 업무를 조정한다. 또한 신도시 1개, 전법지역 1~2개 지역 을 선정해 지표조사와 더불어 찾아가는 종책연찬회 등 공동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청소년 및 대학생 포교활성화를 위해 기반을 구축한다. 포교원과 교구본사, 대학생전법단, 대불련 동문회 등 대학생 포교 관련기관과 협력회의를 운영하고, 교구별로 대학불교학생회 후원사찰을 2~3개 확대해 나간다.

지원 스님은 "대학생 불교학생회는 전국에 145개 대학에 존재하고 있지만 저조한 활동과 감소추세에 있다"며 "올해는 청소년 및 대학생 불자 육성을 위한 사업방안을 관련기관과 함께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은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전법 프로그램 연구와 보급을 강화해나간다. 법회와 설법 콘텐츠를 매월 조계종 스님들에게 제공하며,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등 대상을 고려해 설법대회도 개최한다. 이밖에 어르신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지원, 명상지도자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지원 스님은 "사찰이 농촌에 위치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의 노인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 포교 콘텐츠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가족 포교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포교원은 포교단체 역량 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제, 여성, 상담, 어린이 · 청소년 분야 등의 전법단 스님과 후원단을 확대해 나간다. 이주민 100만 명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포교원은 국제전법단 및 국제포교사회와 다문화가족 포교에 대한 대책수립도 마련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신도조직 확대와 활동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14개 신도단체 지원관리 업무 이관을 통해 중앙신도회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사찰 · 교구표준회칙을 제정 및 보급해 나간다. 또 품계제도를 시행한지 4년째에 접어든 포교원은 신도교육을 내실화하고 품계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사찰 및 불교대학이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 스님은 "올 한해는 포교원 별원 20년의 포교성과와 취약점을 깊게 성찰해 향후 미래불교를 준비하는 한해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보광 스님 논문 2편
표절 · 중복 게재 결정
보광 스님, 윤리위에 반박

동국대 총장 후보 보광 스님의 논문 2편이 표절로 판명됐다. 이에 대해 보광 스님은 "연구윤리위가 편향적으로 공표해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박정극, 이하 연구윤리위)는 1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30편의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그동안 표절에 대해 지적을 받은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는 이재수 박사의 '유비쿼터스 시대의 불교문화콘텐츠 연구'를 표절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불전 전산화의 미래 방향은 '인터넷 포교~' 논문의 내용을 중복게재한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광 스님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연구윤리위의 판단에 공정성이 결여돼있다"고 반박했다.

보광 스님은 1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예비조사 시점에 본조사를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재심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재단에 징계를 요청한 점, 비밀엄수 규정에도 이를 언론에 공개한 점 등으로 연구윤리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 한국불교미륵종 임시총회 소집공고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하여 법인 정관 제19조 2항에 의거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전 종도스님들은 종무 다망하시더라도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불기 2559(2015)년 2월 13일(금요일) 11시
- 장 소 : 미륵종 총본산 관음정사
- 참석대상 : 전 종도스님

2. 안건

- 중앙종의회구성을 위한 종회의원 선출의 건
- 차기 총무원장 선출 방법의 건
- 총무원장 선거 일정의 건
-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의 건
- 종단 제반 현안의 건

2015년 1월 29일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대행 영빈

투명 재정·인재 양성… 개혁 과제 '한마음'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 어떤 사안 논의했나

"출가 수행자의 본분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종단 · 사회적으로 따를 수 있는 스승이 없습니다.", "스님들은 정치에는 가담하지 말아 주세요."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사부대중의 생각은 비슷했다.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진행된 1월 28일 한국문화연수원은 120여 대중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위원들은 사찰 재정 투명화와 인재불사, 승가 신뢰 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뽑았다.

10개 모둠으로 진행된 분임토의에서는 다양한 문제제기들이 이뤄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불교 개혁부터 승가 문제점까지 현안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현재 스님들은 좌복 위에서 죽을 각오로 수행하거나 길 위에서 죽을 각오로 포교를 해야겠다는 서원이 없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며 죽겠다는 의지가 없다. 소위 '중(僧) 정신'이 부재한 것"이라며 "이것은 선배들이 전해주지 못한 것이다. 이런 풍토를 변화해 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사라는 씨앗은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 2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고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며 "100인 대중공사는 결사를 다지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용 건국대 교수는 승가교육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성 교수는 "승가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승가대학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내실있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친절함을 동반한 포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목종 스님은 "도심 포교당을 운영하다보면 전단지 4만장을 배포해도 전화는 50통도 오지 않는다"면서 "전통사찰은 관광철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찾는다. 이들에게 기와불사만 권할 것이 아니라 친절한 안내와 상담을 통해 다시 사찰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 불교 개혁론 일갈
"전등불 켜듯이 개혁 안된다"
재정 · 청년 포교 · 승가 신뢰 등
사부대중, 현안 타개 '한목소리'

자성과 쇄신 결사가 적극적인 추진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애정 어린 문제제기도 있었다. 손석춘 건국대 교수는 "현재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회의 발언들을 살펴봐도 현실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종단이 자성과 쇄신 결사를 오래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집행부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이 1월 28일 개최한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출범식 모습. 이날 참가자들은 분임토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종단이 해결해야 하는 의제 8가지를 정했다.

100인 대중공사가 성공하려면

또한 위원들은 성실한 논의를 통해 정해진 의제들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반드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성공해야 한다. 이것이 실패하면 국민과 불자, 종도들은 등을 돌릴 것"이라며 "우리 자신도 자정 능력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넘어설 수 있도록 대중공사를 통해 공의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00인 대중공사가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치적 이벤트'라는 지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실한 논의와 도출된 방안을 현실에 적용해 실제적 성과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합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입견이나 편견, 이해관계 득실을 배제하고 우선 실천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각급 종무기관에 적극 반영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100인 위원들의 원할한 참여와 반대 진영 측 인사를 공의의 장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실제 중앙종회의원 당연직 참가자로 이름을 올린 종책 모임 삼화도량 소속 의원들은 대중공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4모둠 토론에서 "100인 위원에 참여하는 대중의 범위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구성원 조정이 필요하다. 추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을미 새봄 立春大吉 福慧具足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한민족의 정서를 알리고자 선화가 수안 스님은 매년 입춘 때마다 상징성 있는 그림을 제작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화계사를 시작으로 통도사 등 스님과 인연 있는 사찰과 단체에 그림을 보시하고 있고 4년 전부터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회원들에게 건강을 기원하는 '새봄의 선물'로도 배포되고 있다.

정혜숙 기자



그림 수안 스님, 배포 생명나눔실천본부

'나눔과 전법' 제2 불광운동 전개

불광사, 바라밀 공동체 구성 바탕 10대 중점과제 제시

개방형 도서관 · 어린이집 개설
해외포교 위한 영어 〈불광〉 발간
국제구호 및 봉사연등 조직 강화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 · 사진)가 '바라밀 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한 제2의 불광운동을 전개한다. 불광사는 1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불광운동을 천명했다.

제2불광운동은 사홍서원과 사성제 정신에 바탕을 둔 4대 기조에 보현보살의 십바라밀에 근거한 10대 중점과제로 이뤄져 있다. 또 법장 스님의 48대원에 바탕한 48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불광사는 '사상', '법회와 사찰', '전법과 호법', '사회와 봉사', '승가와 수행공동체', '복지와 신행공동체', '지역활동', '교육과 연구', '통일과 세계'라는 10가지 활동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사회 역량 및 전법활동의 강화다. '법회와 사찰' 과제로 봉사 법등 활성화, 바라밀 기도결사, 법사단 운영, 국내외 불광 지원개설, 산하기관 불광인상 시상, 목적사업 위한 영리법인 설립 등이 제시됐다.

'사회와 봉사' 과제로는 불광재능나눔센터 및 불광나눔재단 설립, 다문화 가정 및 가정행복 지킴이 사업 전개 등이 담겼으며 '신행공동체' 과제로는 승가복지 시설 및 제도 마련과 불자 종합복지타운 설립, 노인 돌봄이 제도 구축과 운영, 임종천도 프로그램 구축, 불광옐로우북 발간 및 나눔바자회 개설 등 실천방안이 우선순위로 채택됐다.

또 지역민을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추가로 개설해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밝혔다. 불광사 방문의 날 제정하고 지역사회에 사찰시설을 대관하기로 했다.

불광사는 이를 통해 나눔과 신행이 함께하는 문화를 구축해 불교의 생활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불광사가 진행해 온 전법활동도 크게 변화한다. 먼저 전법데이터 구축을 포함해 광덕 스님 육성법어 디지털 콘텐츠화, 불광운동 연구 및 구술사 정리 등이 진행되며 '교육과 연구' 실천방안으로 불광교육원을 인문교육 중심으로 육성해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수행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문화와 미디어' 실천방안으로 영문판 〈불광〉 창간하고 불광미디어도 새롭게 재편하기로 했다.

끝으로 '통일과 세계'에서는 새터민 지원사업과 국제구호사업, 해외불교기관과 학술교류 등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새 불광법당 중창불사 동안 비상체제였던 업무가 다시 안정을 찾았으며 불광 창립 40주년 행사도 무사히 마친 지금이 새로운 불광운동을 펼칠 때라고 생각했다"며 "바라밀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불광사 대중들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소개했다. 지홍 스님은 이어 "제2의 불광운동으로 한국불교 역사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광덕 스님의 원력을 이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월호 도보행진 불교계도 함께

노동위 재마 · 도철 스님 동참

세월호 유가족이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9박 20일 동안 도보행진에 나선다. 1월 26일 안산합동분향소를 출발해 2월 14일 진도 팽목항에 당도한다.

도보행진에는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도 5박 6일간 동참한다. 1월 29일은 노동위원회 노동위원 재마 스님이 함께하며, 1월 30일부터 2월 3일은 노동위원회 노동위원 도철 스님, 양한웅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노동위원 등이 동참한다. 2월 14일 열리는 추모 문화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1월 29일 오전 8시 천안 성환역에서 출발한 세월호 도보행진단 120여명의 모습

복지 종합센터 건립 등 역량 강화 나선다

조계종복지재단 신년간담회
설립 20년 중장기 전략 내놔
오는 6월 20주년 기념 행사
'사찰 복지 공동체' 세미나도
사무국 · 현장 순환 근무제 확립



설립 20주년을 맞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올해를 재도약의 정초로 삼고 불교복지 특화사업 집중 육성, 연구개발 기능 확대 등에 집중하며 중장기 발전 전략 구축에 들어간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월 27일 재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년 사업 계획을 밝혔다.

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사진〉은 "올해 종무기조를 선종 어록에 수록된 '득편의시 낙편의(得便宜是落便宜: 편의를 얻으면 편의에 떨어진다)'로 세운만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교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재단은 20주년에 발맞춰 불교복지 위상제고와 외연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불교계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격인 불교복지종합센터와 불교계 인재양성시스템 마련을 위한 복지대학원대학교는 대략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주년 기념행사는 올 6월 경 열릴 예정이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찰복지공동체'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도 계획돼 있다.

불교복지 특화사업 육성으로 긴급재난구호, 나눔문화 확산, 국제개발협력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단은 국내외 각종 재난 발생시마다 신속히 대응해오고 있는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을 통한 재난재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교계 나눔문화 확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단체 9개가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도 3월 중으로 발족한다.

이어 불교복지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체계 마련 등 재단 선도 복지정책 의제 생산기능을 강화하고 불교복지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확산한다.

내부적으로는 복지 인재불사를 위해 재단 사무국 직원들과 산하 복지시설과의 순환근무 체계를 확립해 복지현장 체험을 재생산 해낼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할 예정이다.

보경 스님은 "사무국 따로 복지시설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현장을 몸소 체험하는 신하방운동(下放運動) 형식의 사무국 운용체계 혁신을 통해 인재불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일 주 문



구정맞이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1월 23일 홍은동 거주 소년소녀가족과 다문화가족, 독거노인에게 구정맞이 쌀 20kg 60포대를 전달했다.



법문집 〈무불취〉 출판기념법회

견불선원 선원장 수완나 스님은 1월 31일 견불선원 대법당에서 법문집 〈무불취〉 출판기념 고불법회를 개최했다. (070)7717-2276

금강대 5대 총장에 한광수 이사장 선임



금강대 제5대 총장에 한광수(69) 미래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이 선임됐다. 금강대는 1월 22일 충북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제5대 총장에 한광수 이사장을 선임했다. 임기는 2월 8일부터 4년간이다. 한 총장은 산업연구원 · 외무부 ·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등에서 중국경제 및 한중경제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 교수 부임 후 2004~2012년 동 대학 학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중공의 경제특구 개발과 우리의 대응〉(산업연구원,1981), 〈중화경제권 부상과 우리 기업의 대응〉(대한상의,1997) 등이 있다. **노덕현 기자**

법륜종 초대종정 금암대종사 원적

한국불교 법륜종 초대 종정 금암 스님이 1월 23일 입적했다. 세수 102세, 법랍 85세. 금암 스님은 1914년 12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출생했다. 15세에 동학사에서 한문을 익혔고, 16세인 1930년 계룡산 동학사에서 도광원익(道光元益) 선사를 스승으로, 석우(石牛)스님을 계사로 출가 득도했다. 1936년 동학사 불교전문강원에서 백초월(白初月) · 윤운문(尹雲門) 스님을 스승으로 사교과 수료, 전주 위봉사 · 금산 보석사 연합 불교전문강원에서 대교과를 졸업했다. 1946년 공주 동학사 주지로 피선(被選) 재직하였으며, 1970년 대전 도솔산 보광사(普光寺)를 창건했다.

송찬우 중앙승가대 교수 별세



경전 번역과 선어록 강의의 대가인 동현 송찬우 前중앙승가대 교수가 1월 26일 새벽 자택에서 앉은 채로(坐脫) 염불하며 입적했다. 향년 64세.

송 교수는 1951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연수원을 수료했다. 고려대 한문학과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으며, 동국역경원 역경위원과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저 · 역서로는 〈조론(肇論)〉, 〈금강경파공론(金剛經破空論)〉, 〈장자선해(莊子禪解)〉, 〈노자(老子) 그 불교적 이해〉,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등이 있다. **신성민 기자**

"교수들 불자 밝히는 문화 형성 할 터"

심익섭 교수불자연합회 신임회장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직은 봉사의 자리입니다. 교수불자연합회가 불자교수들의 연합체로 활발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63세, 법명 륜성)가 교수불자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추대됐다. 전국 불자 교수들의 모임인 교수불자연합회는 1월 26일 서울 인사동 다연에서 불교계 기자들과 신년교례회를 갖고 신임 회장단 구성 등 새해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교불련은 2월 27일 창립 27주년 기념법회를 갖고 신임 임원진을 구성할 계획이며 신임 심익섭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심익섭 회장은 지방자치행정 전문가로 한국의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정에서 기여한 공로가 높다. 불교계에서도 심 회장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을 맡는 등 조계종 수도권 불교 활성화 및 교구 분권화와 사찰관리체계를 비롯해 행정제도에 이론적 뒷받침을 해왔다.

심익섭 회장은 "최근에는 종단사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어 이런 직책을 맡기가 송구스럽다"며 "교수불자회 회장직은 신행을 이끌며 보시하는 자리이기에 회원 교수들의 활발한 활동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행정 전문가로 지방자치 전공

종단 행정 체제 구축에 공헌

2월 24일 학술대회 개최 예정

심 회장은 "정부위원회에 들어가면 누가 불자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외로 불자인 교수들이 많은 것을 알게된다"며 "불자들이 불자임을 밝히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회장은 이어 "교수들은 특히 불자임을 밝혀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많다. 불자교수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또 교불련이 정부와 대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심 회장은 정년을 2년 남기고 있어 보다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심 회장은 회장직을 맡게 된 것이 전임 회장인 최용춘 상지대 법학과 교수의 추천 덕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6년동안 교불련 회장을 맡아온 최용춘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교불련은 교불련 업무만 봐도 바쁜 자리"라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힌 뒤 "원력이 크신 만큼 교불련 발전을 위해 매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교수불자연합회와 대학생불교연합회, 그리고 불교계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불자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교수불자연합회는 2월 24일 부산 진여원에서 '진여와 불성'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무기력 타파하는 새 불청운동"

제32대 부산 대불청 정승안 신임회장



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이하 부산대불청) 제32대 회장으로 정승안 동명대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1월 31일 부산 서면 터존 뷔페에서 개최된 회장 이취임식에서 정 회장은 청년불자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불교청년회 활동이 약화된 원인을 취업난 심화로 인한 청년층 포섭 실패, 선지식과의 소통 부재에서 찾은 정 회장은 청년불자 리더를 양성해 동시대 청년들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청년불자 리더십아카데미를 개설할 예정이다. 불교지식인 외에도 종교 영역을 넘어선 전문 강사진 구축으로 매달 한 번 특강을 개최, 청년불자들이 리더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지속적 네트워크 마련으로 지회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불청이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청년불자 운동의 역사를 되짚는 심포지엄도 마련된다. 정 회장은 "심포지엄은 청년불자 운동의 현실을 냉정하게 되짚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만간 열릴 50주년 기념법회 역시 불청운동(佛靑運動) 50년 성과를 집대성해 대안마련을 위한 야단법석의 자리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정승안 회장은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사회학과 유교, 불교를 통합하며 동양사회사상의 현대적 적용과 관련한 대안 사상과 연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스님 취임

1월 26일 경주 더케이 호텔서 취임식 후 주요 교역직 임명식



대한불교 총화종(총무원장 혜각)은 1월 26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신년하례회 및 원장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제 17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혜각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안으로는 원융화합과 밖으로는 보살행 실천을 지향하고자한다"며 "미래에 전 불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제시하는 총무원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사부대중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도록 거듭 노력해 달라"며 "이를 위해 수행활동 위한 환경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1972년 5월 20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흥국사 해송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사미계, 비구계를 수지하고 공주 갑사, 울산 보현정사에서 정진하다 경주 불심원을 창건, 주지를 역임 중이다. 또한 총화종 종회의원과 호계원장, 경북종무원장 소임을 맡아 활동했다. 이어 2014년 11월 27일 제 76차 중앙 종회에서 제 17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이날 취임식 후에는 총화종 중앙종회 주요 교역직 임원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부종정 만재 · 남은 스님 △종회의장에 안우 스님 △총무원장 혜각 스님 △교육원장 법만 스님 △호계원장 만오 스님 △포교원장 혜광 스님 등이 각각 임명됐다.

하성미 기자

경주 불국사 성도재일 기념법회



경주 불국사(주지 종오)는 1월 26일 불국사 문화회관 3층 강단에서 성도재일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불국사 신도회, 스님, 경주시 기관장 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성도재일 행사 후 불국사신도회 제7대 회장 이영숙 외 33인의 신도임원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이란 KCRP 종교간 대화 세미나



KCRP(대표의장 자승)는 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교간 대화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한국-이란 간 종교문화 교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과 이란의 종교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과 근본주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평화를 만들기 위한 종교간 협력'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KCRP 종교간 대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현 스님은 "최근 지구촌 가족들의 가슴을 저미는 일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종교 근본주의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며 "오늘 이 모임은 종교인들이 평화를 이루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목적하에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한 이란 대사인 하산 타헤리안, 알리 무하마드 박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안동사암聯 성도재일 법요식



안동불교사원연합회(회장 자현)가 1월 24일 안동시청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도재일 법요식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사암 사찰 주지스님과 지역기관 단체장 각 신행단체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으며 식순에 따라 독경, 명종, 육법공양 축사, 발원문 낭독 음성공양 등이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3월 5일까지 수시전형

5.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청소년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명상지도자연수' 에 참가한 130여 교사들은 명상을 통해 교육의 새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는 취지로 1월 23~25일 부산 동명대 세계선선터에서 명상교육을 가졌다. 사진은 참가교사들이 행선을 하는 모습



선차 명상 수업. '내 마음의 차' 를 주제로 진행된 수업에서는 차 명상이 정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배운다.



조계종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혜안 스님은 허은정 원로교사에게 그간의 공로를 격려하고 표창상을 수여했다.



금정선원 조성래 원장의 위빠사나 강의 모습.

"명상으로 사랑의 교실 만들고 싶어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명상지도자 연수… 부산 동명대서

1월 25일 부산 동명대 세계선센터에서 2박 3일간 명상교육을 마친 교사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무거운 짐을 벗고 날개를 단듯한 그들의 몸과 마음은 진정 가벼워 보였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 교사들은 모두가 행복의 비결을 찾았다고 입을 모았다.

'청소년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명상지도자연수' 에 참가한 130여 교사들은 명상을 통해 현교육의 문제점들을 풀어보겠다고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1월 23~25일 2박 3일 동안 다양한 명상법과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힐링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월 23일 입재식에서 동명대 세계선센터 선원장 수진 스님은 '교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고 법문했다. 스님은 "먼저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곧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며 교사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박 3일 동안 이루어진 연수에서는 △설동근 총장 특강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수법 변화의 필요성' △내 마음은 차(茶) △몸동작과 호흡으로 몸과 마음 정화 △서화를 통한 명상법 △웃음으로 마음 치유하기△야외 맨발 걷기명상 △숲속 걷기명상 △불교와 간화선 그 연속과 단절 △위빠사나 명상 △범진 스님의 소리명상 △수안 스님의 서화를 통한 명상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박재현 교수가 진행한 '불교와 간화선 그 연속과 단절' 강의는 교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스님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간화선 수행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강의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과 간화선의 관계, 수행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안내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간화선 방법 등이 교사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박재현 교수는 "학원과 학교에서 학습 훈련을 반복하는 것은 학생의 자아상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 간화선 공안 실참은 학생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자아상을 깰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물론 학교에서 간화선을 실참할 때 주의 깊게 학생들을 살피고 조언을 할 수 있었야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당부했다.

2009년부터 먹기 명상, 걷기 명상, 춤 명상 등 다양한 명상들을 접하며 이를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는 박현주(49) 교사(광주 대성여고)는 이번 연수를 통해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간화선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한다.

"수많은 명상을 접했지만 간화선은 어렵게만 생각했어요. 이번 연수를 통해 간화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좋았어요. 앞으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간화선을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배한욱 수석부회장의 지도로 진행된 사경 시간도 눈길을 끌었다. 배 부회장은 "부처님 말씀이니 성심 성의껏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 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교사들은 광명진언, 반야심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등을 사경지에 맞춰 꼼꼼히 사경해나갔다. 어느새 사경지가 다 채워지자 뿌듯해 하고 감격의 합장인사를 하는 교사들도 눈에 띄었다.

"간화선, 부정적 자아상 깨는 매개체"

1월 23~25일, 130여 명과 명상교육
행선, 차명상, 위빠사나 등 강좌 다양
교불련, 부탄과 교사 교환 MOU도

이재찬(50) 교사(광주 조선대 부속고)는 사경을 하는 동안 '내려놓음' 을 알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사경을 해보니 급한 마음 혹은 강박증 있는 성격 등 평소의 업식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너무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도 욕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또한 위빠사나 강의에서는 바른 기준, 정사유(正思惟)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호흡명상과 걷기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여기' 에 깨어있기도 연습했다.

조명옥(54)교사(서울 용산중)는 "위빠사나 강의를 듣고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지도 할 때나 수업 진도를 나갈 때 수업에 관심 없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거칠게 행동하며 수업을 진행 하거나 훈육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나 자신의 분노를 알아차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알아차림 수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게 했습니다."

연수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이완국 강사의 '웃음으로 마음치유' 는 참가자들의 피곤함을 떨쳐버리는 시간이 되었다. 두 시간여 동안 참가자들은 끊임없이 웃으며 강의에 집중했다.

제주에서 온 이경선(49) 교사는 "웃음이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권위를 벗어버리고 미소 지으면 아이들도 마음의 빗장을 풀겠죠. 이렇게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무는데서 좋은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웃음치유를 통해 미소의 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는 학교에서 명상을 적용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간 명상을 통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며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수를 주관한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김경희 회장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장안제일고등학교에 8년 동안 명상 수업을 적용하며 지켜보았어요.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의 변화에 많이 놀랐습니다. 명상을 통해 알아차리면 바른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은 바른 행동과 바른 습관을 만들더군요. 많은 선생님들이 명상 수업 이후 학생들에게 이를 적용하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이라며 후배 교사들을 독려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앞으로 불자 교사뿐 아니라 일반 교사들을 위한 명상 적용 프로그램 연수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그 첫 걸음으로 지난 1월 12일에는 부탄 교육부(장관 상가이 잠)와 주한 부탄문화원(원장 출팀놀부)과 함께 부탄 교육부 청사에서 교사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전국교사 불자연합회 이경훈 회장은 "전국 불자교사들을 주축으로 먼저 부탄의 행복 비결을 배우고 일반인들을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적용 할 것" 이라며 "특히 일반 교사들을 위해 교육부에 부탄의 국민행복 교육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 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부산=하성미 기자

마하연 겨울 출발 상품
• 추가경비 없음
• 가이드+기사 경비, 각국비자 비용 포함
• 타사 비교필수 (호텔, 식사 등)

마하연투어 since1994
문의처 : 02) 365-7747
청정행 두손모음

특별함
1 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가격 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봉사단체, 패키지여행

– 대만 "공승제" 6일 • 출발일 : 9월 3일
[부산출발] 구화산 / 보타산 6일
출발일 : 5월 29일, 6월 17일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초특급상품] 출발일 : 5월 30일, 6월 6일
[실 속 상 품] 출발일 : 5월 27일, 6월 13일 159만원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라오스 6일
출발일 : 6월 2일, 6월 23일
[민족의 영산] 북경 / 백두산 5일
출발일 : 6월 1일, 6월 29일, 7월 13일







www.mahayeon.com

인천 또는 부산 출발 순례 상품
• 특급호텔 • 추가경비 없음 • 타사비교필수
세계문화유산 루앙프라방 포함 꽃보다 청춘 라오스 6일
라오항공 직항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대한항공 직항 스리랑카 6일
[3대성지 순례]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양곤–바간–헤호 5일
[앙코르왓트]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노이–양곤] 베트남–미얀마 6일

[지장도량 / 관음도량] 상해/항주/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 3월 11, 26일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5월26일.6월2일.6월9일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출발일: 5월29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5월29일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인도–네팔 8대성지 11일
하와이 6일 (2일관광+2일 자유시간) 152만원 ~ 부터
스페인/포르투칼 하이라이트 8일 197만원 ~ 부터
터키/그리스 9일 토요일 출발 287만원 ~ 부터

포교원, 어르신 위한 앱 개발 용역 공모

2월 6일까지 공모접수, 2월 13일 발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용역을 모집한다.

'어르신을 위한 마음거울 108(가칭)' 은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어르신들의 성향과 기호에 맞는 자아성찰 108개 문구 및 배경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참고가능하며 '어린이 마음거울 108' '청소년 마음거울 108' 애플리케이션을 참고하면 된다. 참고 서적으로는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행복한 사계절, 실버시대 어르신을 위한 명상과 상담프로그램〉 등이 있다.

앱 개발 접수기간은 2월 6일까지이며 발표는 2월 11~13일 개별 통지한다. 참가자격은 팀, 개인, 업체 불문하며 동점일 경우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02)2011-1911

이나은 기자

동국대 국제선센터 2월 간화선집중수행 실시

2월 7~14일 수불 스님이 직접 지도



25년간 간화선을 지도해온 수불 스님이 '간화선 집중수행' 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은 2월 7~14일 '2월 간화선집중수행' 을 진행한다.

7일 오후 2시 입재를 시작으로 6박 7일간 진행되며, 수행지도는 25년간 수행자에게 간화선을 체험시킨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간화선 체험으로 평안과 지혜를 얻어 삶을 활기찬 생활로 바꾸고 참나를 찾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반인은 25만원, 대학생은 15만원이다. (02)2260-3891

이나은 기자

한국문화연수원, 외국인유학생 템플스테이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연수원장 구과)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2월 8일까지 매주 금~일요일 외국인유학생과 한국인친구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매주 진행된 외국인 유학생템플스테이는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템플스테이 소개, 친교의 시간 및 전통놀이, 숲명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일요일까지 마곡사, 법주사, 수덕사 등에서 1박 2일간 사찰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참가비는 무료로,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외국인유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을 동반한 한국인 친구여야 한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들

한국문화연수원은 "2003년 1만 2천여 명이던 외국인 유학생은 2014년 현재 8만여명으로 600%이상 증가했으나, 한국의 전통문화와 그 근간이 되는 불교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됐다"며 외국유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41)841-5050 이나은 기자

불서읽고 마음도 다지고 친목도 다져요

불서읽기 신행모임 소개



불교 독서모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모임인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 이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책을 강독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독서모임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책을 함께 읽으면 혼자 읽을 수 없는 책도 읽게 되고 서로의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으며 자신의 편견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러한 독서모임의 장점을 살려 불서를 읽는 모임이 불자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불서를 읽어보고는 싶은데 어려운 불교용어가 나오면 페이지가 넘겨지지 않고, 또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를 때 불교 독서모임에 참여해보면 어떨까.

불교 독서모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모임은 '붓다와 떠나는 책여행(cafe.naver.com/mahasariputta)' 이다.

이 모임은 2004년 9월 북칼럼니스트인 이미령 동국역경위원과 민족사 윤창화 대표가 주축이 돼 발족했다.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하고 있으며 2천여 회원이 등록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누릴 뿐 아니라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워가고 있다.

10~20명 내외의 불자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책을 강독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회원들은 화공스님의 〈유마경과 이상향〉(민족사 刊)을 읽고 있었다.

회원들은 책상에 둘러 앉아 순서에 맞춰 담담히 10분씩 책을 읽어 내려갔다. 이후 모임 운영자인 이미령 씨의 해석이 덧붙여졌다. 서로 모르는 단어는 설명해주고 이해가 되면 그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식이다. 자유로운 감상문이나 서평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나눈다.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 이 2004년부터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
매주 수요일 회원들과 강독
불력회 · 한불심도 지속적 모임
"생각 공유할 수 있어 좋아"

지금까지 읽은 책은 80여권에 이른다. 단순히 불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비교종교학, 인문학 등 다양한 책들도 선정해 함께 읽고 토론한다. 그리고 책을 완독하면 저자를 초청해 특강을 열기도 한다.

설립 초창기부터 독서모임에 참여한 도광 거사는 "경전이 어려워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미령 선생님이 해설해주고 서로 생각을 토론하다 보면 공부도 되고 좋다"고 말했다.

서정숙 씨는 "혼자서 책을 읽다 보면 끝까지 다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에 참여하면 책을 완독할 수 있어 보람 있고 좋다"고 했다.

모임을 지도하는 이미령 씨는 "순수한 불서읽기 모임이어서 회비도 회의실 대여료와 간식비 정도만 받고 있다"며 "자유스럽게 책을 읽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력회 역시 매월 첫째 ·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종로 3가 아미타사에서 독서 모임을 갖는다. 1999년도부터 시작해 달라이라마, 틱낫한, 법정 스님, 법륜 스님 등의 책을 읽으며 신심을 키워 나가고 있다. 현재는 〈안락집〉 〈고향으로 돌아가자〉 〈부처님, 나의 부처님〉 등을 선정해 함께 소리 내어 독송하고 있다.

니련선하원은 조계종 교수 아사리 정운 스님이 이끄는 독서 모임이다. 2003년부터 시작해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불서는 물론 소설, 인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고 있다. 니련선하원 독서모임은 돌아가면서 발표문을 작성해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 고양시에서 정토회 회원들이 주축이 된 '암바따' 라는 불서모임도 진행되고 있다. '암바따' 라는 모임의 명칭은 경전 속에서 분별심이 많은 바라문의 이름 '암바따라' 에서 인용했는데 회원들 스스로가 수행하며 분별심을 없애고 정진력을 높이자는 뜻에서 가져왔다. 10여명의 회원들이 매달 불서를 읽는 이 모임은 〈금강경〉 〈대승기신론소〉 〈화엄경〉 등의 불서를 읽고 토론해 왔다.

또한 20세기 사상가이자 명상가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서적을 읽는 모임도 있다. 네이버 카페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서울 모 임 (c a f e . n a v e r . c o m / jdkrishnamurti)' 이다. 10여 명의 회원들은 매월 1회 서울 신촌서 정기적 모임을 가지며 크리슈나무르티 관련 서적을 읽고 함께 명상도 하고 있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책 읽는 공부모임을 진행해오고 있다. 학생, 주부, 직장인, 교수, 스님, 의료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매주 첫째 주 목요일 저녁 상도선원에 모여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에 참여한다. 공부모임에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책은 〈진화심리학-마음의 기원〉 〈소셜애니멀〉 〈사로잡힌 뇌, 강박에 빠진 사람들〉 〈MBCT-8주 나를 비우는 시간〉 〈나를 위한 기도, 셀프컴패션〉 등 심리학과 상담, 마음챙김을 주제로 한 책들이다.

고원열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간사는 "참가자들은 공부모임을 통해 책을 읽고 궁금했던 내용들을 함께 참여하는 교수나 의사 등 전문가들에게 묻고 답을 들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풍경소리, 명상나눔 협동조합 창립

"성북구 지역 명상 보급 나설 계획"

서울 성북구 지역사회에 명상 보급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이사 선묵혜자)는 1월 30일 풍경소리 사무실에서 '명상나눔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협동조합은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와 '풍경소리 학교' 에서 명상 강의를 진행한 강사들을 중심으로 창립됐다.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총장, 월드유스비젼 김윤태 강북지회장, 김준영 전 불교인재개발원 사무국장, 김정인 교정운동 가사, 고대승 재가수행자 등 9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협동조합은 성북구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명상교육,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상교육, 지역아동 · 청소년 센터 및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프로그램, 기업 및 단체 연수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에 대한 명상보급은 물론 일반인에 대한 명상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풍경소리 학교' 를 통해 교육이 진행됐고, 좋은 평가를 얻은 '몸맘건강교실' 을 기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몸맘건강교실' 은 균형 잡힌 몸과 안정된 마음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명상교육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증진과 더불어 교정, 요가 등을 교육하여 올바른 신체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하철 풍경소리는 지난 해 12월 3일 풍경소리 학교에서 '청소년 명상보급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고 1월 30일 명상나눔 협동조합을 창립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성은 최근 정신건강, 인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풍경소리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인성교육 진흥법이 2015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정신건강 관련 정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더불어 기업의 인재 채용 및 육성의 방향이 능력 중심에서 인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정신건강,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풍경소리는 2014년 성북구 지역사회에서 '성북구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를 실시, 명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2014년 진행된 서울시 '마을학교' 프로그램 중 '몸맘건강교실' 은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풍경소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2015년 '성북구 교육컨텐츠 사업' 에 선정됐고, 수원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등 다양한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성북구는 물론이고 전국 모든 지역과 단체, 기업에 이르기까지 명상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2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2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2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분관개관…서울노인센터 올해도 '쑥쑥'

'노인문화 거점으로 육성' 신년 사업계획 1월 28일 발표

어르신 복지문화의 바로미터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가 1월 2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 탑골공원 일대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센터를 노인문화거점으로 만들어낸다는 신년계획을 밝혔다.

올해 서울시노인복지센터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위해 분관을 개관하고 센터에서 탑골공원까지 어르신 문화특화 거리 조성에도 일조할 예정이다. 종묘공원과 탑골공원 주변을 어르신 거리로 새단장하겠다는 서울시책과 더불어 복지관 분관 개관을 통해 시설확장을 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센터회원 5만7천명에 일 평균 이용객 2540명. 높은 이용률을 수용하기에는 면적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만큼 분관으로 이용 인원을 분산할 예정이다. 분관은 현재 종로구 견지동에 위치한 센터와 같은 건물에 300평 규모로 4월 초 개관한다. 현재 센터 면적의 약 1/4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와 더불어 종묘광장공원과 탑골공원 주변으로 노인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 공연, 방송, 미술전시, 공방 등을 활성화해 어르신들의 참여 문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센터 내 30개 동아리와 80여개 프로그램을 조화시켜 다양한 여가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역시 기존 자원봉사 등을 포함한 영역으로 확충된다.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은 직무교육을 거쳐 통역 도우미 등으로 인사동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동아리 역시 재능나눔형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따라 예산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어르신들의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2009년 개강한 탑골문화예술학교 1기 졸업생 59명이 올해 배출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판소리, 가야금, 연극, 합창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재능을 길러온 어르신들은 공연단으로 재조직돼 지역사회내 어린이집과 요양원, 지역복지관 등에서 공연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계속된다. 노년에 겪을 수 있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은 주제를 다양화시킨다. 기존에 있던 명상집단상담프로그램 '마음챙기기'와 분노조절을 위한 '화해하기' 외에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해 가족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행복시소', 헤어짐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애도 집단상담프로그램 '겨자씨', 임종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통해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 '사는 기쁨' 등이 개설된다.

서울시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곳인만큼 이용률이 높다는 장점을 살려 저소득층이나 독거, 장애 어르신 등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해 나가는 또래 지킴이 사업도 계속된다.

올해 센터 예산 규모는 총 80억원.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취업훈련센터, 서울노인영화제 등을 운영할 정도로 조직이 방대한 만큼 타복지관의 6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센터 측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센터의 다양한 사업 노하우"를 담은 책을 출판해 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희유 스님은 "선배시민, 종로, 세대공감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선배 원로로서 역할 · 책임을 고민할 수 있도록 선배시민학교를 개강, 인문학 강좌, 사회문제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후배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노인복지센터 일자리가 다양화된다. 어르신들의 경륜과 재능을 살려 재능나눔형 일자리가 생겨난다. 사진은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에서 도슨트로 활동하는 어르신이 관람객에게 작품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

'탑골 노인문화거리' 서울시책 맞춰
사업 재편·분관으로 이용부담 감소
어르신 일자리 재능나눔형까지 확대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청소년이 참여하는 장애인식 캠페인

홍천군복지관, 홍천읍 일대 돌며 인식개선 홍보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운)에서는 1월 28일 강원도 홍천읍 일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초아자원봉사단이 참여해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길거리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자원봉사단 20명은 홍천읍(연봉리, 갈마곡리, 신장대리, 희망리, 진리, 태학리) 일대를 돌며 주변상가를 대상으로 사랑의 저금통 100여개를 배포하고 시민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장애인권,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지를 나눠줬다. 사랑의 저금통은 향후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는 캠페인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자원봉사단은 1월 28일 홍천읍 일대에서 장애인식 캠페인을 벌였다.

배현진 기자

황송노인복지관, 첫 카페 '삼가연정' 개점

1월 28일부터 성남 중원도서관… 어르신 바리스타로 구성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황송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일운)은 1월 28일 인근에 위치한 중원도서관에 첫 카페를 개점했다. 중원도서관은 하루 1천명의 이용객을 자랑한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의 첫 카페인 삼가연정(三嘉蓮亭)(성남점)은 '책, 차(茶), 사람, 세 가지 아름다움이 어울리는 장소'를 의미한다.

복지관측은 "지역주민이 함께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나누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랑방의 역할 뿐만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첫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페 삼가연정의 바리스타로 일하는 어르신은 모두 6명. 개점을 앞두고 자격증 취득 및 취업현장 실습 등을 거쳐 정식 바리스타로 손님을 맞게 됐다. 60세 이후 재취업의 꿈을 이룬 어르신들은 은퇴를 앞둔 지역 어르신들의 인생설계 이정표가 될 예정이다.

삼가연정 수익금은 어르신 재취업 교육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액 사용된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은 1월 28일 중원도서관에 첫 카페 '삼가연정'을 개점했다.

배현진 기자



젊은 열정 라오스에 희망 선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참사람봉사단(단장 김의창)이 라오스에서 2차에 걸쳐 해외봉사활동을 마쳤다. 63명의 봉사단원은 각각 2개조로 나뉘어 1월 10~15, 24~29일까지 라오스 켕카이 금화초등학교와 나초등학교에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울타리와 배수로 설치, 교육환경 개선 작업 등의 노력 봉사활동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예술, 체육 등 교육봉사를 진행했다. 마을 주민과의 문화교류, 운동회, 한국어 교육 등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활동도 함께 진행해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동국참사람봉사단 측은 "라오스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아개발, 봉사정신 및 능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마인드와 인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부처님께 매일 기도… "스님 좀 살려주세요"

생명나눔, 2월 치료비 지원 환자 선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에 위치한 가상사에는 늘 따뜻한 미소로 신도들을 맞이해주는 부부스님이 있다. 진봉 스님과 선혜 스님이다. 진봉 스님이 삼론종 총무원장을 맡을 당시 선혜 스님<오른쪽 사진>은 갑작스럽게 찾아 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종양 제거 수술과 함께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두 스님은 혹시라도 신도들에 부담이 될까봐 아픈 것을 숨겼다. 진봉 스님은 삼론종 총무원장을 그만둔 후 선혜 스님의 병간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오랜 치료 끝에 완치되었다고 생각될 무렵 또 다시 절망이 찾아 왔다. 종양이 뇌뿐만 아니라 위까지 전이된 것이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두통과 경련으로 선혜 스님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두 스님은 불심으로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5년간 지속된 선혜 스님의 투병으로 사찰 운영조차 힘들어져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선혜 스님은 현재 뇌종양과 위암, 자궁암으로 투병중이지만 병원비 부채로 향후 생계유지조차 장담할 수 없을 정도다. 후원계좌 (농협: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배현진 기자

역삼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치기구 모집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에서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청소년 자치기구'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및 청소년프로그램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기자단, 문화예술동아리, 봉사나눔 동아리 등으로 나눠 모집한다. 봉사 동아리는 장애청소년 통합활동, 문화재 애호와 보존을 위한 지킴이 활동 등이 있다.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된다.

활동기한은 2월부터 내년 1월까지며 대상은 14~24세 청소년이다. 접수기간은 2월 9일까지 이메일로 서류를 받는다. (02)550-3623

배현진 기자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5년 1월 15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5년 3월 3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대각 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생전예수재 특강
◇원서교부 : 2015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5년 3월 6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

불교의식 제 10기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승가회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교육과정〉

기본의식 (3개월 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래,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명시식.
중급과정 (범음 · 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위 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 법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 작법, 법고 막바라 (살풀이 가능함)
사 물	북, 태칭, 목탁, 요령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개강일시 : 2015년 2월 8일(일요일) 오후 2시
◆ 수 업 : 매주(금 · 토) 오후 2시 ~ 5시까지
◆ 신청접수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번지 (구. 도동44) 팔공IC 5거리
TEL 053)986-1080 H·P 010-9361-5566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불교대학 · 무파사 학장 일관 합장

“종교란 타인위해 연탄 한 장 되는 것”

조계사 일요법회

정각 스님(일산 원각사 주지)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인으로서 사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은 식상한 만큼 등한시 되기 마련이다. 우리가 자칫 놓치고 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일산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은 ‘사람’과 ‘사랑’에서 찾았다. 1월 11일 조계사에서 열린 법회에서 스님은 종교, 인간이란 단어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며 종교의 의미를 되짚었다. **정리=배현진 기자**



정각스님은 … 1986년 송광사로 출가해 1987년 보성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한국불교 경전신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도 수료했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겸임교수, 경상북도 문화재위원,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중앙승가대 강사, 조계종 교수아사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승가대학 겸임교수로 교육과 연구활동을 하면서 특히 불교 의례와 불교 문화재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스님의 대표 논저로는 〈납탑경전의 시대적 변천고〉, 〈지장신앙의 전개와 신앙의례〉 등으로, 총 16권의 저서와 20여편 이상의 논문이 있다.

‘스님’이란 명칭의 기원은?

오늘은 종교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우선 관련 이야기를 하기 앞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죠. 몇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사건이에요. 신부, 목사와 달리 절에서는 왜 스님이라고 부르냐며 ‘님’자에서 용어상 차별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칭을 달리 불러야 한다면서 누군가는 심지어 ‘스’라고 부르자고 하더군요.

스님이라는 명칭은 어디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용어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1908년 범어사에서 출간한 〈권왕문〉입니다. 화주자 명칭으로 스님 한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하 승님’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중 승자인 ‘僧’에서 승님이 시간이 흐르면서 스님으로 바뀐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이와 더불어 스님을 일컫는 ‘중’이라는 한글은 1500년경 언해본에서 확인되죠. 중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라시대에는 왕을 이르던 몇 가지 명칭이 있었습니다.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등의 용어가 그렇습니다. 이중 차차웅은 시간이 흐르면서 차웅으로 변화되고 발음이 축소되면서 차충, 충, 중 등으로 변형됩니다. 고대국가의 왕을 칭했던 차차웅이라는 용어가 생략되면서 중이 된 것이죠. 〈화랑세기〉에 보면 차차웅은 무(巫), 무당을 뜻합니다. 무(巫)를 살펴보면 하늘과 땅을 잇고 그 옆에 사람 인(人)자가 위치해있죠. 하늘과 땅을 연결짓던 사람이 무당, 즉 신정일치국가에 있어 제사장이면서 정권을 가진 왕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가르침 중 으뜸되는 것=종교

흔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추구해야갈 가치가 4가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진리, 둘째 선함, 셋째 아름다움, 넷째로 성스러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선미를 바탕으로 등장하는 것이 성스러움의 가치입니다. 이 4가지 가치는 학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형이상학, 인식론과 연결되고 선함은 윤리학, 아름다움은 미학,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학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는 곧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宗敎),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으뜸(宗)되는 것을 뜻하는 이 말은 언제 어디에서 처음 사용되었을까요.

그 기원은 중국 수나라 때 천태종 창시자였던 지의 선사가 저술한 〈법화현의〉라는 책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종(宗)은 수많은 경전의 가르침을 뜻하는 말이며 교(敎)는 그 가르침을 언설, 글로써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등 불교의 수많은 경전을 바탕으로 한 종교가 있을 수 있죠. 종파에 해당되는 것이 곧 종교였던 셈입니다.

종교라는 의미가 변색된 것은 일본 메이지 시대의 영향이 큽니다. 당시 1백여명의 일본 스님들이 유럽으로 유학을 갔다온 후 종교철학서적을 일본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때 일본 근대불교의 중흥자라고 일컬어지는 스즈키 젠코가 영단어 ‘religion’을 종교라고 번역했습니다. ‘religion’의 re는 라틴어로 ‘다시’ ‘재생’이라는 뜻이 있으며, ‘ligion’이라는 말은 ‘연결하다’ ‘결합하다’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즉 ‘다시 연결한다’는 뜻이죠. 무엇을 다시 연결할까요.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훼가 태초에 빛을 만들고 흙에서 사람을 만들어 아담과 이브를 탄생시켰죠.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따 먹자 하늘에서 야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담아 너는 어디있느냐”

아담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앗쑴’이라고 답했습니다. 히브리어 앗쑴은 영어로 ‘여기 그리고 지금(here and now)’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위치한 현 상황을, 사과를 따먹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은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죠.

여하튼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즉 관계성의 회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종교(religion)구요.

종교는 인간, 사랑과 떼놓을 수 없어

종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위해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라는 시간성과 여기라는 공간성 속에서 나는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인간의 인생에 있어 근본문제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 의문을 던지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의 의미가 될 것이며 종교의 의미 역시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좌표 가운데 언제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움직임을 하나의 흔적으로 남기면서 오늘, 내일을 살아가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인간이라는 단어 중 사람 인(人)은 땅에 손과 발을 딛고 기대어 있는 형상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두 명의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두 명이 서로 의지해 서 있는 것이죠.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죠.

Q : 종교의 의미는?

A : “서로 기대 살 수 밖에 없는 ‘인간’ 관계성 위에서 타인 염려 · 연민하며 삶의 지평 넓혀가는 것이 종교”

즉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라고도 하죠. 사람과 비슷한 단어 중에 사랑이 있죠. 사랑이라는 말은 1461년 간행된 능엄경 언해에서 최초로 확인됩니다. 석보상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등장해요. 생각 사(思)자를 쓰고 사랑의 고어인 사량으로 번역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남을 보살펴준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아마 종교의 의미 역시 사람, 사랑과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종교의 근본 의미를 한가지 더 말씀드리죠. 종교란 단어는 서구적 의미에서 미사라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금세기 유명한 종교학자인 조지프 캠벨은 〈신화의 힘〉에서 종교의 본질은 미사라는 용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사는 ‘내몰다, 내쫓다’라는 뜻의 ‘미떼레(Mittere)’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파견하다는 뜻의 영단어 mission으로 변형됩니다. 즉 종교는 여기 머물지 말고 또 다른 삶의 지평으로 나를 내모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가게끔 나를 촉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종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연민하는 마음 그게 종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합니다. 자애로운 자(慈)와 슬플 비(悲)자를 써서 남을 위해 슬퍼할 수 있고 연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연민은 과연 무엇입니까. 철학자 니체는 어렸을 적 여자 옷을 입고 여자아이처럼 자랐습니다. 여성적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해 부모가 택한 방식이었죠. 어느날 니체는 마부가 말을 세게 채찍질하는 걸 보고는 마차를 부여잡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연민의 눈물이었던 거죠.

바로 니체처럼 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마음이 종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힘겨워하는 소 한 마리를 보고 나는 과연 연민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하고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란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세음보살을 수천번 외운다한들 남을 보는 시선 속에 연민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사람을 두고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삼국유사〉에 보면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일화가 실려있습니다. 분황사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그려져 있었던 듯합니다. 경덕왕 희명이라는 사람의 아이가 눈이 멀자 분황사 좌전에 있는 관세음보살 벽화 앞에서 아이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천수천안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두 눈이 없는 내게 눈을 준다면 그 자비로움이얼마나 크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래를 읊자마자 아이 눈이 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눈 하나를 내줄 수 있는 관세음보살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거죠. 다음 두 편의 시를 감상해보죠.

연탄 한 장

안도현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 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어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이 시를 대하며 동체대비심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남의 슬픔 가운데 같이 슬퍼하고 타인의 고통가운데서 연탄 한 장이 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마음입니다. 종교인들은 연탄 한 장을 머릿속에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이끌어가야하지 않을까요.

謹賀新年 새해 빛 2015

佛紀 2559年 乙未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해동불교 임제조계종

총무원장 혜륜 동진

종회의장 벽송
장로의장 진성
호법원장 벽안
교육원장 법산
감사(찰)원장 벽송
문화원장 자원
포교원장 종문
전국비구니회장 무운

대외협력원장 보현
총무부장 벽산
감사(찰)부장 일현
재무부장 약왕보살
사서실장 상범

서울교구원장 보현
울산교구원장 혜운
경북교구원장 현담
경남교구원장 명각
강원교구원장 원광
광주교구원장 정인
부산교구원장 지익
충북교구원장 무운
충남교구원장 봉정
대전교구원장 천장

종도일동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본산 극락사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72-1번지 / 전화 055)855-0191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재가불교 활성화, 근기 맞는 수행이 원동력"

윤종갑 부산대 교수, 부산지역 재가불교 활성화 원인 분석

부산지역 불자들의 수는 10년간 8%가 증가해 한국 종교인구 변화 중 가장 현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흔히 부산 경남의 불자들이 전국사찰의 경제적 토대가 된다고 얘기할 정도다. 이런 부산불교 활성화의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공개됐다.

윤종갑 부산대 교수는 불교학연구회가 1월 24일 개최한 2015겨울 워크숍 '재가자 수행열풍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부산지역 재가불교 활성화 원인을 △도심지에 범어사 · 통도사 · 삼광사 등 대형사찰이 존재 △친목모임의 신행단체 활성화 △불교대학 통한 교리공부 중시 등으로 분석했다.

윤 교수는 "부산지역에서는 근대화와 더불어 불교를 새롭게 인식하고 신앙하는 풍토가 형성됐는데 특히 재가자가 운영하는 선원이나 공부모임이 발달했다"며 "이 것이 다양한 근기에 맞는 수행법이 발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교수는 조계종부산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부산 재가자 수행 현황을 소개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90일 동안 부산지역 조계종 사찰 20여개 도량에서 재가자 안거수행을 진행하는데, 2천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다. 안거수행에서는 각 사찰 주지 스님이 수행 정도를 점검하고 자자포살법회를 진행한다.

윤 교수는 "조계종부산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안거수행의 가장 큰 성과는 자신에게 맞는 맞춤식 수행프로그램이란 점"이라며 "도반과 함께 수행함으로써 수행에 대한 의지와 중요성을 다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깨달음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불자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친목모임, 생활속 수행 등이 재가불교를 활발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며 "부산지역에서 현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안거수행이 이 지역에만 그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수행풍토의 문제점을 짚는 자리도 마련됐다.

박희승 한국문화연수원 교수는 수행열풍이 높아지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검증되지 않는 단체가 늘어나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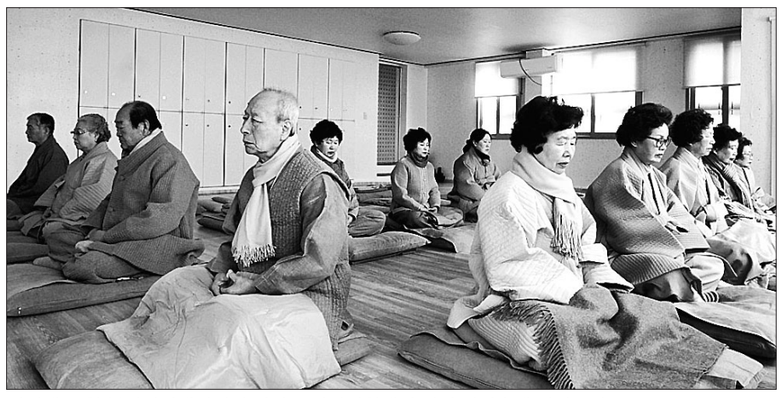
박 교수는 "어떤 단체는 1주일 과정에 15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종의 상품화로 인해 선이나 명상을 세속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회 일반에서 명상과 같은 수행열풍이 불게 된 이유에는 불교 자체의 저변확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간화선 선풍확산에 이어 1990년대까지 불교대학서 교학을 배운 불자들이 실천수행에 눈을 뜨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명상과 선수행이 의학적으로도 치유효과가 있음이 밝혀지며 더욱 관심을 끌게 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재가자 수행은 반드시 선지식에 의해 검증받아야 한다"며 "출가수행자가 아니라도 바른 견해를 갖춘 이에게 의지하는 것이 자신만의 수행법에 빠져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도 수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 스님은 "깨침보다 결국 사람들의 삶이 중요하다. 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수행이 필요하다"며 "현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생활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재가자 수행프로그램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덕현 기자


지난해 12월 부산지역재가안거 기간중 미타선원에서 열린 안거수행 현장 모습


금강 스님


윤종갑


박희승

"불국사와 석굴암, 의상계 화엄학파 도량"

최연식 교수, 김상현 교수 1주기 추모세미나서 주장

8세기 중엽 김대성에 의해 건립된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이 의상계 화엄사상을 반영한 근본사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국사 건립배경과 사상 기반에는 그동안 법화, 밀교, 유가 사상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의상계 화엄사상은 故김상현 교수가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오른쪽 사진>는 1월 30일 동국대 초허당세미나실에서 열린 '동아시아 화엄의 한국적 전개' 세미나에서 '표훈의 일승세계론과 불국사 · 석굴암' 발표를 통해 불국사 건립배경에 화엄사상이 있음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날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부석사에서 개인적 수행에 집중하던 의상계 화엄학파는 8세기 경주에서 활발히 활약하며 불교계의 중심적 흐름으로 등장했는데, 그 중심에는 의상의 제자인 표훈 스님이 있었다"며 "김대성은 표훈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로 일승세계설에 입각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건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김대성은 토함산에 일승세계설에 입각한 새 형태의 사찰을 만들고 이를 화엄학자들의 거점사찰로 제시했다. 석굴암은 부처의 영역, 불국사는 보현의 영역으로 석굴암 본존은 부처 정각 직후의 모습을 형상화 했으며, 불국사는 연화장세계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한 이러한 일승세계관이 현재 전히지지 않은 것은 9세기 중엽 의상계 화엄학파의 쇠퇴과정에서 중국조사들의 이론을 수용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9세기 화암학파 쇠퇴 이후 10세기 균여가 의상계 화엄사상을 새롭게 정비햇지만, 전통사상의 계승보다는 법장, 징관 등 중국전통조사들의 이론을 수용해 기존이론을 보강하는데 그쳤다"며 "11세기말 의천 스님은 기존 의상계 이론이 정통 화엄조사 이론과는 이질적인 자의적인 것임을 지적하고 정통사상 수용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 과정에서 표훈의 신라적 화엄이론은 그 의미가 망각됐으며, 이런 흐름 속에서 석굴암과 불국사의 사상석 의미도 함께 잊혀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종수 순천대HK교수가 조선후기 화엄학 유행의 배경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먼저 조선후기 선교일치적 수행풍토를 들며 화엄교학이 선종의 풍토 속에 강원의 발달과 함께 그 명맥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681년 남도 지역에 전래된 가흥대장경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많은 사찰에서 판각돼 그 중 〈화엄소초〉와 〈회현기〉를 통해 강원교육에서 화엄학이 유행하게 됐으며, 이후 불교계에서는 화엄학 강사를 찾아다니며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음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이로 인해 화엄강사들은 강의를 위해 사기를 저술했는데 이 화엄사기는 19세기 강원에서 계속 필사전승되며 전국적으로 유통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라 최대 가람 영축사, 조사 종합 보고서



울산박물관(관장 신광섭)이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율리 영축사지(시 기념물 제24호)'의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에 1 · 2차 발굴조사 성과와 내용을 토대로 〈울산 영축사 – 출토유물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월 9일 밝혔다.

영축사(靈鷲寺)는 '삼국유사'에 신라 신문왕대(683년) 창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찰로, 통일신라시대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울산 영축사–출토유물 자료집〉은 1 · 2차 발굴조사 성과와 548점의 출토유물 중 중요 유물을 선정,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 '영축사, 다시 숨을 쉬다'는 영축사의 창건 설화와 연혁, 영축사의 위치와 고고 · 역사적 환경,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2부 '영축사, 가람을 조성하다'는 영축사의 가람을 구성하는 금당지, 동 · 서탑지, 중문지, 회랑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더불어 영축사의 대지(垈地) 조성 방법과 귀부, 석등의 조사 성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3부 '유물을 통해 영축사를 바라보다'는 1 · 2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총 548점의 유물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다.

4부 〈영축사,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영축사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발굴조사 계획을 담고 있다. 노덕현 기자

시민행성, 남도시민 인문강좌 마련

'시민행성'(공동대표 조성택) 화쟁문화아카데미는 2월 5~6일 남도 일원에서 '생각할 때 시민이다'를 주제로 남도시민 인문주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교사와 작가, 인문학자, 종교인 등 여러 시민들이 함께 지역사회 인문실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달달한 인문학'과 청소년을 위한 '지혜학교' 등 2개 강좌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2월 5일 해남문화원에서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생각할 때 시민이다 인문정신 종교정신 시민정신' △박수밀 고전문학자의 '남도의 인문정신들 실학 시대의 아름다운 만남에 대해' 등이 진행된다. 또한 6일 해남문화원에서는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의 '시는 어떻게 생각하는 시민을 만드는가' △이원 시인의 '시와 그림이 알려주는 생각들'이란 주제 강연이 진행된다. 같은 날에는 두륜중학교와 해남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지혜학교도 열린다. 여기서는 △백승권 실용글쓰기연구소장의 '반짝이는 젊음, 성장을 위한 신나는 자기소개서 쓰기' △함돈균 문학평론가의 '생각나라의 반짝이는 물건들'과 '생각하는 공부는 사물들과 어떻게 만나나' △이원 시인의 '생각 한 뼘 성장 두 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한편, 시민행성은 화쟁문화아카데미의 인문정신 실천과 인문실천자로서 '생각하는 시민'을 키우기 위한 인문실천공동체로 지난해 2월 해남 대흥사와 8월 평창 월정사에서 50여명이 참가한 인문캠프를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불광硏, 제4회 전법학술상 공모

전법 교화에 대한 학술적 담론을 개발하고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제정한 '전법학술상'이 네 번째 논문을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전법교화에 대한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 분석, 역사적 사례와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현대적 방법론 제시, 모범사례 발굴과 해외사례 비교연구, 전법교화에 헌신한 인물에 대한 연구와 전법론 분석 등이다.

연구계획서는 홈페이지(www.burein.org)에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오는 4월 30일 오후5시까지 전자메일(baramil74@hanmail.net)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완성 논문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다. 발표논문은 1년 이내 학술지에 기고한 전법학과 관련된 논문이어야 한다. 수상자는 시상식에서 발표해야 하며 연구원 학술지 〈전법학연구〉에 게재된다.

수상작은 10월30일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발표회 및 시상식은 12월 6일 오후2시에 진행된다. 발표논문은 보현상 1편을 선정해 300만원의 상금을, 신규논문은 바라밀상 1편 500만원, 전법상 2편은 각각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전공을 불문하고 박사과정 수료이상의 국내외 학자를 비롯해 승가대 학인, 군법사, 포교사, 종무원 등 불교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02)941-3537 노덕현 기자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5년 동산불교대학 46기 신입생모집[2년과정]

■ 모집학과 불교학과 [2월 7일 (토) 오후 5시 개강]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1년차	과 목	1. 인도불교 2. 중국 · 한국불교 3. 법화경 4. 화엄경 5. 대승불교와 정토 6. 밀교와 천수경
	교수진	법산스님(학장),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정엄스님, 주명철교수,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2년차	과 목	7. 불교개론(아함경 1), 8. 불교문화와 포교, 9. 선불교 10. 근본불교(아함경 2) 11. 반야심경 12. 유식불교
	교수진	최종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박희준교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 선 · 명상학과(위빠사나) [3월 5일(목)]
• 불교다도학과 [3월 10일(화)]
• 불교미술학과 [3월 5일(목)]

■ 모집인원(불교학과) 120명(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40명)
■ 제 출 서 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2015년 1월 1일 부터
■ 문 의 02) 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www.dongsanbud.net

출강 및 통신 2015학년도 제 24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불교교육(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공정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법사교육에 24년의 전통과 학적을 근본으로 하여 법사자격의 신뢰와 품위에 법통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공정한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지도자로서의 신행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 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5년 2월 27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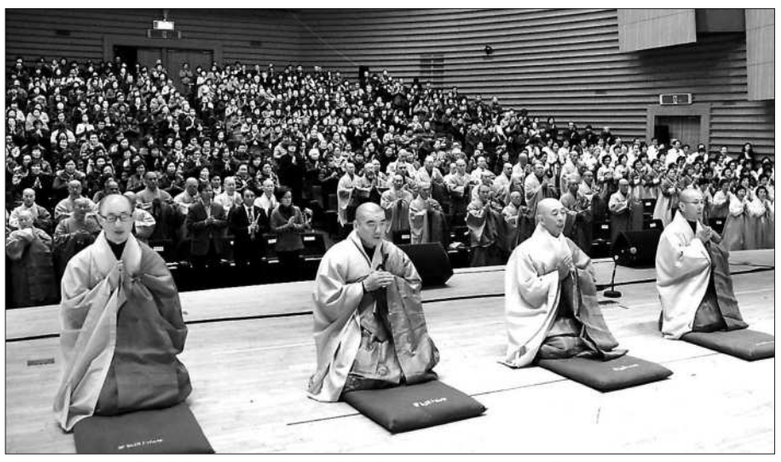
“나눔으로 부처님 깨달음 의미 되새겨요”

호남지역 성도재일 법회 성료, 광주선 자선경매행사도 열려

불기 2559년 성도재일을 맞아 호남지역의 불자들이 참선과 절 수행, 경전 독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철야정진에 동참했다. 특히 나눔으로 성도재일을 회향하는 곳들이 눈길을 끌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1월 24일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깨달음의 나눔’을 주제로 성도재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연화사 유치원 원생들의 무용을 시작으로 법요식과 승보회 장학금 전달, 칠정례, 법문으로 진행됐으며 식전에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에서 마련한 전통차 시음도 열렸다.

행사 회향 후에는 광주지역 스님들의 나눔경매 행사가 펼쳐져 큰 인기를 끌었다. 광주지역 스님들은 영상을 통해 자신만의 애장품을 내놓고, 애장품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경매에 나온 물품은 발우, 반야심경 옥병, 일타 스님의 글씨가 새겨진 도자기, 수석, 다구, 관세음보살 족자 등 9점으로 신도들이 중심이 돼 구매했다. 최고낙찰자의 구매대금은 광주전남지역 불교공동모금회인 빛고을나눔나무를 통해 ‘미래의 희망 청소년에게 전하는 붓다의 선물’ 기금으로 사용된다. ‘붓다의 선물’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와 학용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1월 24일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성도재일 기념법회 장면. 법회 이후 영상으로 스님들의 애장품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 수익금은 지역 불우이웃에게 전달된다.

광주지역 광주시청서 대규모 행사
한마음선원 전통차 시음회도 개최
사찰서는 철야정진으로 의미 되새겨

행사에는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연광 스님, 현지 스님(원효사 주지), 보응 스님 등 스님들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박혜자 국회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광주지역 불교신행단체 대표와 불자 1000여명이 동참했다.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원래 도는 우주에 가득차 있지만 중생들의 번뇌로 이를 보지 못한다”며 “기복과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비의 실천을 자기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연광 스님도 인사말에서 “나와 남, 이웃과 지역사회는 한 몸”이라며, “나눔은 곧 불교의 실천이며, 모든 불자들이 지켜나가야 할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연광 스님은 “이번 성도재일을 통해 나눔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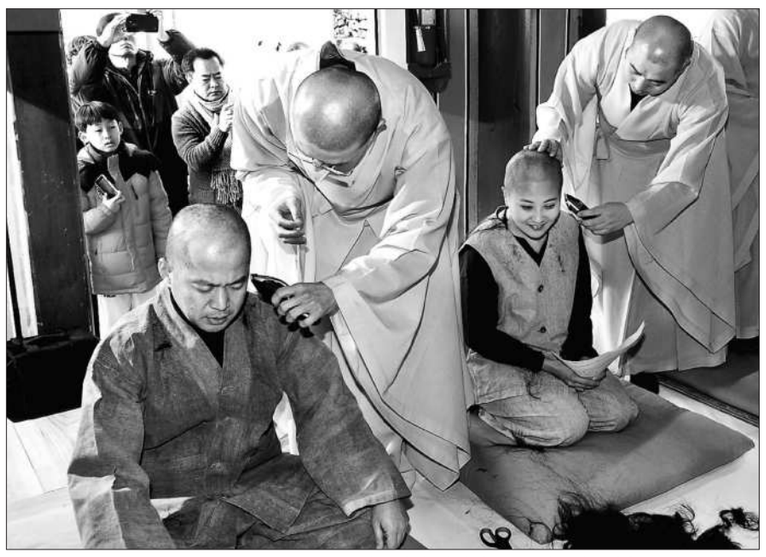
이와 함께 다른 사찰에서도 성도재일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남원 실상사(주지 응묵)는 자비도량 참법, 108참회, 참선, 백대서원 절명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철야정진하고 동참한 불자들을 위해 회향식을 겸해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응묵 스님은 수계사로 나서 “부처님 깨달음의 참 의미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라며 “각자 생활 중에도 자신과 함께 주변의 이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1월 26일 저녁 예불 후 법화경 독송법회를 봉행했다. 철야정진에는 송광사 전 대중과 5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원감 석초)도 성도재일을 맞아 철야정진했다. 특히 전북불교회관 철야정진에 참여한 30여명의 불자들은 참선, 자비도량 참법 등 프로그램에 따라 성도재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하심으로 부처님 법 표현해요 광주에서 펼쳐질 불교 연극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의 출연 배우들이 삭발의식을 진행했다. 2월 28일부터 3일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공연 출연진 5명(남 4명, 여 1명)은 지난 1월 25일 광주 증심사에서 연극관계자와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님역할을 연기하기 위한 삭발의식을 단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회관 월호 스님 초청법회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원감 석초)는 1월 25일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월호 스님은 이날 〈대방광불화엄경〉을 중심으로 10가지 행불10선에 대해 설명하며 불자들에게 행복의 길을 제시했다.

월호 스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해 아는 만큼 잘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며 바람직한 불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날 초청법회에는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법문을 경청했다. 전북불교회관은 매월 한번 전국 선지식을 초청해 법회를 열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덕사 ‘붓다로살자’ 실천도량으로

1월 25일, 도법 스님 방문해 친필휘호 선사… 선포식 200명 참여



광주 선덕사가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으로 태어났다.

선덕사(주지 원묵)는 1월 25일 경내 대웅전에서 조계종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 회장),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포교사, 신도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에서 도법 스님은 법문을 통해 “깊게 성찰하고, 진단하고, 대안을 만들는 것이 결사운동의 기본이다. ‘붓다로 살자’는 불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수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은 주지 원묵 스님의 경과보고에 이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친필 휘호 전달, 축사, 법문, 선덕사 청규 제창, ‘붓다로 살자’ 발원문 합송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선덕사는 청규를 제정하고, ‘붓다로 살기 위해 늘 깨어있기, 사부대중공동체, 마을공동체 가꾸기, 생명평화 세상을 이루기, 법회 · 기도 · 공부에 성실히 참여, 나눔을 실천 등 10가지 실천을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젠 사찰 불교대학서 바리스타도 배출

1월 24일, 불교대학 · 대학원 총 86명, 바리스타 31명 배출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1월 24일 신흥사불교대학 원각사에서 불교대학 · 대학원 졸업법회를 열고 불교대학 12기 49명과 대학원 3기 37명을 배출했다. 또 불교대학 부설 커피바리스타 자격과정을 거친 바리스타 31명도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해 졸업했다.

특히 신흥사불교대학은 이상모, 정재수 졸업생에게 조계종포교원장상을 수여하는 등 총20명의 졸업생에게 상을 수여하며 수행과 전법 등 불교발전에 앞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신흥사불교대학장 우송 스님은 신흥사불교대학 총동문회장으로 7기 출신인 신동익 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우송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이라며 “간절한 발원으로 정진해 여여한 불법을 체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대학 안에서 만난 도반과의 인연과 만남을 잊지 말고 함께 해탈의 길로 향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수덕사 · 충남교육청 내포문화MOU

충남도교육청은 1월 19일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과 수덕사와 함께 내포문화 생태환경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내 학생과 교직원은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내포문화권 역사와 문화, 생태를 아우르는 내포문화숲길을 체험할 수 있다.

‘내포문화숲길’은 숲길 걷기체험, 식물도감 만들기, 숲속 교실 과학탐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내포문화숲길은 수덕사와 홍성군과 서산시, 예산군, 당진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내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따라 ‘원효깨달음의 길’ ‘내포 천주교 순례길’ ‘백제부흥운동길’ ‘내포 역사인물길’ 등 4가지 테마로 전340㎞에 걸쳐 조성한 탐방로다.



노덕현 기자

법주사, ‘父에 간이식’ 장병 위해 모금

보은 법주사(주지 현조)는 보은부대 김모 상병 부친이 1월 16일 서울대 병 병원에서 아들로부터 간을 이식받았으나 수술비 4000만 원 중 1500만원을 구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금운동을 전개해 비용을 전달했다.

모금운동에는 육군 37사단(사단장 소장 이정근) 전장병과 보은군여성예비군, 예비군지휘관들도 힘을 보태 의미를 더했다.

김 상병은 “간 이식은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하며 지금은 아버지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바랄뿐”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대학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유헌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正法 실천하는 불자 법조인 양성 산실

동아대 로스쿨 불교동아리 '법등회' 답사 현장

부산 동아대 로스쿨 불교 동아리 '법등회'(회장 전효철)는 지역 최초의 로스쿨 불교 동아리로 2011년 출범했다. 매달 정기법회와 템플스테이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그 회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2015년 법등회는 전국 로스쿨 불교 동아리 신설지원과 연합활동의 원력을 세웠다. 이에 1월 24일 부산대 로스쿨 불교동아리 '향성'(회장 권태균)과 함께 경주 불국사를 찾아 법회를 갖고 지역 불교문화 답사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로스쿨 불교 동아리 학생은 물론 법등회 창립의 초석을 다졌던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 법등회 초대회장 백명재 변호사, 각 대학 지도교수, 로스불교대학 관계자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법등회는 올해 부산대 로스쿨 불교 동아리 '향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향성'은 2014년 회원 20여명과 함께 출범, 새로운 시작을 다지고 있는 상태다.

동아대 전효철 회장은 "올해는 지역의 부산대를 첫 학교로 선정해 지원해나갈 생각이다. 앞으로 전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로스쿨 학생들이 불법을 통해 마음을 힐링하고 불자 법조인이 나아갈 바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먼저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덕민 스님은 법문을 통해 "법(法)이란 한자어는 물 수(水)에 갈 거(去)자가 붙어 있다. 물은 모여 흘러가면서 더러움을 씻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자신이 밝은 덕을 깨달아야 내 마음의 더러움도 벗기고 남의 더러움도 닦아 줄 수 있다. 부처님 법을 통해 자신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남의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를 갖추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2011년 창립, 100여 회원 활동
불국사 방문 덕민 스님 법회도
로스쿨 불교 연합동아리 구축 '발원'

이어 덕민 스님은 차담 시간을 갖고 다포와 염주를 나눠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다포에는 덕민 스님이 직접 쓴 "정좌처다반향초(靜坐處茶半香初) 묘용시수류화개(妙用時水流花開)"가 새겨져 있었다. 덕민 스님은 "불교에 입문해 더욱 지혜로운 사람들로 성장해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범지(29) 학생은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불교는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고 위안을 주는 힘이 있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현(33)학생은 "불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힘들 때 수행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며 "하루에 108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동아대 로스쿨 불교 동아리 '법등회'(회장 전효철)는 1월 24일 경주 불국사승가대 학장 덕민 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아대 로스쿨 불교 동아리 창립에는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의 인재불사원력이 큰 몫을 했다. 공병수 회장은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에서 매달 법사를 초대하고 법회를 열 때 마다 법등회 회원들을 불러 법석을 마련해준 것. 이뿐만이 아니다. 공 회장은 1978년부터 동아대 고시생 중 어려운 환경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뿐만아니라 생활비 및 숙박료 등 고시 학생들을 남 몰래 도와줬던 것. 지금의 로스쿨 불자 학생들은 공병수 회장을 '정신적 멘토'로 부르고 있다.

앞으로 동아대 법등회는 신입생을 위한 포교활동과 봉사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전효철 법등회 회장은 "3월 들어올 신입생에게 불교를 통해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또한 대학 근처에 있는 사찰과 연계해 법회도 자체적으로 열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 독거노인 등 소외 받는 이웃을 위해 정기 봉사활동 찾아 나설 예정"이라며 의지를 전했다.

경주=하성미 기자

"성도재일 맞아 생명 소중함 일깨워요"

부산불교연합회, '철새 사랑 곡류 모으기' 동참

성도재일을 맞아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신개념 방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1월27일 부산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센터장 김형국)를 방문해 겨울 철새들의 먹이로 사용할 볍씨 2000kg을 보시했다.

이번 모연에는 범어사, 공덕원,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부산불교합창단연대단장협의회 봉사단, 수영구불교연합회,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부산여성불자회, 진각종, 홍법사가 힘을 모았다. 전달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박용하 부산불교연합회 총무국장, 김형국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에서 진행하는 '철새사랑 곡류 모으기'에 동참한 이번 행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또한 생명운동에 앞장서 새롭고 현실적인 방생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진 시간이 되었다.

심산 스님은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야만 인간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며 "그동안 환경운동에 불교가 관심을 많이 가져왔다. 부산 시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려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연합회는 1월27일 부산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를 방문해 겨울 철새들의 먹이로 사용할 볍씨 2000kg을 보시했다.

은해사 사천왕 점안법회… 1월 27일 봉행

한봉석 목조각장 2년간 조성
조실 혜인 스님 증명법사로 봉안

조계종 제10교구본사 팔공산 은해사가 1월 27일 사천왕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은해사 조실 혜인 스님를 증명법사로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여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부처님의 가피로, 대중원력과 시절인연으로 사천왕 점안 대법회를 갖게 되었다. 부처님 기도처인 미타 도량 팔공산 은해사에서 호법신장 사천왕상을 모시게 되어 기쁘다. 은해사 사천왕 조성 불사에 동참한 원력으로 대중스님, 사부대중은 성불의 인연을 맺기를 바란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사천왕 조각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제49호 한봉석(심인) 씨의 2년에 걸친 노력으로 완성됐다. 홍송 원목으로 제작된 사천왕은 높이 4m에 폭 230cm로, 나무 조각에 천으로 배접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은해사가 1월 27일 사천왕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은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불교의 아름다움에 반했어요"

대만 불광대 학생 템플스테이
1월 26일~2월 4일 홍법사서

대만불광대 교수와 학생들이 한국 불교 체험 및 템플스테이를 위해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를 찾았다. 1월 26일~2월 4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대만불광대 교수를 비롯한 학생 17여명이 참석했다.

일정은 홍법사에서 전통문화 체험 및 발우 공양 체험을 비롯해,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 방문, 서울 경주 등 주요 전통문화유적지 탐방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삼보사찰 중 하나인 불보사찰 통도사를 둘러본 참가자들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불교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엽복안(葉馥安, 49세) 씨는 "통도사 전각의 벽화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특히 아미타불 벽화는 너무 아름다워 눈물이 났다"며 "한국은 불교 문화를 잘 지켜온 것 같다"고 했다. 또한 "불교문화체험으로 발우 공양이 가장 인상 깊었다. 각 사찰마다 다 특색이 다른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대만불광대 교수와 학생들이 한국 불교 체험 및 템플스테이를 위해 부산을 찾았다. 사진은 27일 통도사 참배 모습.

임유현 (林瑜絃 21세) 씨는 "통도사의 장엄함에 놀랐다. 부처님의 모습은 대만과 달리 귀엽고 한국인을 많이 닮은 것 같아 보는 내내 즐거웠다"며 통도사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홍법사와 대만 불광산사 성운대사가 창건한 대만불광대 학생들의 한국 방문은 올해로 5회를 맞는다. 일정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대만 불광산사와 홍법사가 함께 지원한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 부산연합회 '도전, 범종을…'

1월 25일 부산 벡스코서… 대상은 부산 수도사 아비라 팀

성도재일을 기념한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의 '도전, 범종을 울려라'가 1월 25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27개 사찰 76개 팀이 출전한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3000여 명이 함께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수진 스님은 "초파일이 부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날이라면 성도재일은 법신으로 오신 날"이라며 성도재일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수진 스님은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편안하게 접하고 모든 불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퀴즈대회를 열게 됐다"며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올해의 대상은 부산 수도사(주지 일철) 아비라 팀(김봉희 · 윤종희 · 김주명)에게 돌아갔다. 대상 팀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또한 올해 처음 제정된 부산광역시장상 역시 아비라 팀의 김주명 군이 수상했다.

이밖에도 준우승은 해인정사와 운수사가, 응원상은 해인정사, 대광명사, 미타선원에게 돌아갔다. 또한 이날 행사 진행에는 불자 개그맨 이수근 씨가 재능 보시로 참여해 훈훈함을 더했다.

하성미 기자



매년 성도재일을 기념해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가 개최하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가 1월 25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 홀에서 열렸다. 사진은 대상을 받은 부산 수도사 아비라 팀.

신비한 운명의 길잡이

동·서양부적 총 집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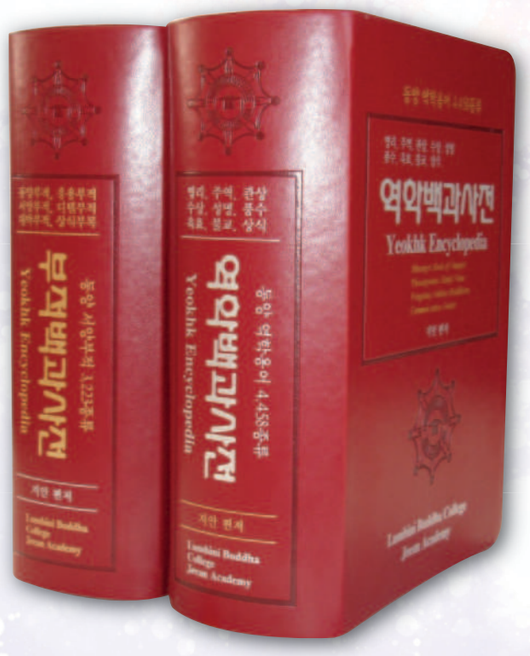
부적백과사전
제1편-육십갑자신묘부적 • 안전제해예방부 • 삼재소멸부 • 복약효력부
제2편-만사형통부 • 만사형통남사주부 • 개운팔진양둔팔문부 • 천신통령부
제3편-물고기자리부 • 영문형 희란야 • 서양주술행복양부 • 서양주술화합결합부
제4편-사랑부적 • 재물금전부 • 학업진학부적 • 고사개업부적 • 자식임신부적 링타리스만부적
제5편-대박추첨1일부적 • 희란야성취12지부 • 사업번영부적 부록 : 사주 해인도

미국역학사 자격증 과 신분증









동·서양부적 3.223종 ◔ 동양 역학용어 4.458단어

역학인의 필독서

동양의 역리학 음양오행은
우주 자연 섭리에 따른 진리의 학문이요
우리 삶의 이정표이며 생활의 지표이다.

역학백과사전
가취대흉일(嫁娶大凶日) • 가취월(嫁娶月) • 갑경충(甲庚沖) • 나경((羅經) • 오행(五行) 박환(剝換) • 마장격(魔障格) • 단명상(短命相) • 사자자리Lee • 양류목(楊柳木) 육효(六爻) • 흉궁(胸宮)

특혜 봉행요집, 역학백과, 부적백과 3권을 구입하시면 미국사회단체법인 미국동양철학 교사자격협회(Aug. 15. 2013)에서 동양역학상담사, 동양철학교사 자격증, 승려증, 법사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자격증신청 : 책 구입처(주문업체)에 여권용 컬러사진 1장, 신상명세서(성명(한글,영문),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를 적어 제출해 주시면 발급과정을 거쳐 보내드립니다.

※가까운 불교상점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도서출판 하이 공급원 가야기획 TEL: 02-379-2400. 031-948-0340 FAX: 031-948-3291

부처님 초전법륜 이어진 신라불교 발상지

적멸보궁이 있는 사찰

② 구미 선산 도리사



1977년 4월 세존사리탑 해체복원과정서 석가모니 사리1과가 발견됐다. 이 사리를 모시기 위해 지어진 적멸보궁이 도리사 제일 높은 곳에서 위용을 자랑한다.


옛 금당암 법당으로 추정되는 극락전


도리사 창건주인 아도화상 동상

복사꽃, 오얏꽃 만발해 붙여진 도리사
아도화상 창건… 신라불교 초전법륜지
태고선원, 극락전서 세월의 무게 느껴
1977년 사리탑 해체 복원시 사리1과 발견

부처님의 초전법륜이 인연을 따라 신라로 전해졌다. 아도화상에 의해서다. 아도화상이 신라에 전법하며 기승지를 찾던 중 눈 속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만발한 것을 보고 그곳에 절을 지은 후 도리사라 불렀다고 한다. 이 사찰은 신라 최초의 절로 전해진다. 눈여겨볼 보물로는 세존 사리탑과 화엄석탑이 있다. 대웅전 앞뜰에 세워진 화엄석탑은 크고 작은 석재를 이리저리 끼워 맞춘 모전석탑 계열로 고려시대에 조성된 특이한 석탑이다.

도리사를 이해하기 위해선 창건주인 아도화상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도화상은 위나라 사람인 아버지 아굴마(我塗摩)와 고구려 사람인 어머니 고도령(高道寧) 사이에 태어났다. 다섯 살에 출가 하고 열여섯에 아버지 나라에 유학해 3년을 공부한 후 고구려로 돌아온다. 하지만 당시 도교가 성했던 고구려에 불만을 품은 어머니 권유로 신라에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이때가 눌지왕 2년(AD 417)으로 이차돈의 순교에 의해 법흥왕14년(AD527) 불법이 공인되기 110년 전이었다.

아도화상은 서라벌서 왕실의 관심을 받으며 불법을 설(說)하던 중 씨족 중심의 귀족들과 토착신앙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 불교가 배척 대상이 되자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지대인 추풍령아래 일선군에 몸을 숨기고 3년 간 은신한다.

공주의 병을 고쳐준 대가로 서라벌에 다시 돌아와 왕이 지어준 흥륜사서 불교를 전파하던 중, 미추왕의 사망으로 지금의 도리사 인근에 있던 모례(毛禮)의 집으로 숨어들어 낮에는 머슴살이를 하고 밤에는 불법을 전파 한다. 그 5년 동안 품삯 한 푼 받지 않고 소 천 마리와 양 천 마리를 길러내며 모례 장자의 큰 신망을 얻었던 아도화상은 어느 날 홀연히 그 집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아도를 만난 모례장자의 시주로 한겨울에 복사꽃과 오얏꽃이 만발한 냉산 기슭에 절을 세우니 바로 그곳이 도리사이다.

신라 불교 초전법륜지이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쇠락의 길을 걷는다. 숙종 3년(AD 1677년)에 큰 불이 나서 절이 모두 불타고 아도화상이 좌선했던 산내 암자인 금당암만 남아있었는데 그 자리에 세운 절이 현재의 도리사라 전한다.

해발 600m, 중간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절까지 걷는 길은 숨어 턱턱 막힌다. 다시 돌계단 올라 마주친 것은 설선당(說禪堂)이다. 그 곳을 끼고 오른 편으로 돌아드는 마당에는 요사채를 겸한 양반 댁 사랑채 같은 태조선원(太祖禪院)이 있다. 그 옆에 아름다운 당우 하나가 바로 극락전이다. 높다란 기단 위에 세워진 극락전은 앞, 옆이 각각 세 칸 짜리 정방형에 팔작지붕을 얹은 건물로서 무거운 지붕을 떠받치는 공포는 다포로 얹어 화려한 단청을 그려 넣었다. 이곳이 옛 금당암의 법당으로 19세기 초에 세운 것으로 추정한다.

그 앞에 얼핏보면 돌 무더기로 보이는 석탑이 덩그러니 서 있다. 자태가 범상치 않다. 도리사 석탑(보물 제470호)이다. 세월을 이기고 계절이 만든 그늘 속에 여여히 서 있다. 높이 3.3m의 고려시대의 석탑이다. 기존 석탑의 정형과는 전혀 다른 이형탑(異型塔)으로 양식을 따질 수가 없다. 땅위에 길게 다듬은 돌을 각 면마다 10여 개씩 세워 놓고 그 위에 기단을 만들었다. 기단은 각 면에 네모난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의 직사각형의 판석 6~7매를 병풍처럼 둘러 세웠는데 유일한 장식이자 특징의 하나가 남면 중앙부에는 문짝을 조각해 놓은 것이다. 탑신 부분은 3중으로 각층마다 작은 석재를 중첩하여 얽거나 짜 만들었는데 상대적으로 강하게 축약된 모습이고 상륜부도 간략화 되어있다. 이 탑에서 극락전을 사이에 둔 뒤편에 세존사리탑이 있다. 1977년 4월 이 사리탑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서 금동육각사리함(국보 제 208호)과 석가모니의 사리 1과가 발견됐다. 이 사리함은 현재 직지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사리는 도리사의 제일 높은 곳에 새로 지은 적멸보궁 뒤에 사리탑을 장대하게 만들어 넣어 놓았다.

전통 고찰 도리사는 조선시대 수많은 유학자들이 머물면서 공부를 했으며, 야은 길재 선생이 10살 때 이 사찰에서 글을 배운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선산 도리사=김주일 기자


아도화상이 참선했다는 좌선대

주지 스님 추천 이것만은 클릭

아도화상 참선한 좌선대…사적비도 있어

탑을 지나면 절 밖으로 나가는 작은 돌문이 있고 그 곳을 통과해 아래로 내려서면 아도화상이 참선했다는 좌선대(座禪臺)가 있다. 네 개의 자연석 위에 대충 다듬은 넓은 돌 하나를 얹어 한 평 남짓한 돌이다.

잠시 앉아 아도화상은 그 옛날 무엇을 발원했을까 상념에 잠긴다. 아도화상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피신해 찾아든 모례장자 집에 이르러 붉은 관을 쓰고 가사 입고, 조용히 참선하자 신령스런 빛이 하늘을 덮었다고 한다. 불교가 국교로 인정받기 힘들던 그때 이곳에 절집을 지은 후 불교의 싹이 봄날 복숭아꽃 피듯 만개하기를 바랬을까 상념에 잠긴다. 문화유산 해설사의 말에 의하면 주지 묘장 스님도 1주일에 2~3번 이 자리에서 참선을 한다고 귀띔하자 주변에 설명을 듣던 관람객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에 앉아 잠깐씩 참선을 한다.

좌선대 뒤에는 아도화상 사적비(阿道和尙 事蹟碑) 와 도리사에 시주한 사람과 논, 밭의 면적을 기록해 놓은 불량답시주질비(桃李寺佛糧畓施主秩碑)가 있다. 조선 효종 때에 세워진 사적비에는 아도의 일생과 불교를 전파한 내용, 도리사를 지은 과정도 새겨져 있다.

"사찰에 머무는 시간 늘었죠"… 스토리텔링 안내판, 카페 개설 등

도리사 주지 묘장 스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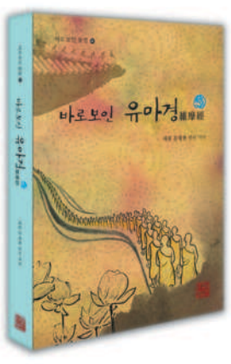
"도리사는 천년 고찰이지만 절 운영만큼은 현대에 맞게 개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안내판부터 고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을 위해 스토리텔링이 있는 안내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도리사 주지 묘장 스님은 도리사를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문화적 쉼터로 만들기 위해 분주했다. 주지로 부임 후 사찰 관람객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고작 힘들게 절에 올라와서 머무는 시간이 1시간 남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묘장 스님은 그래서 사찰 안에 예비 사회적 기업인 카페 '다락'과 전통 찻집인 반야 쉼터를 만들었다. "카페를 만들어 놨더니 절에 편하게 머무는 시간이 늘더군요. 그리고 체험 부스를 경내에 만들어 천연염색, 컵등 만들기 등 가족 문화체험 시설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외에도 처음 오는 관람객들을 위해 직접 제가 교육 시킨 포교사들이 주말에 4명 정도 자원봉사로 사찰 해설도 해주고 있습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9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 중 27권 출간! 파릉, 향림, 동산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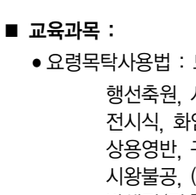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대 구 불 교 의 식
범 음 . 범 패



제3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염불경력 52년 팔공산 염불소리 최종 보유자!

음반제작, 사모곡, 참회곡, 예불천수경, 회심곡, 백발가, 장엄염불 (시판중)

■ 교육과목 :
- 요령목탁사용법 : 도량석,종성, 조석예불, 행선축원,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전시식, 화엄시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구병시식, 시련, 대령관욕, 시왕불공, (상가)시다림염불, 봉송편, 방생편(각축원편)
- 작 법 : 복청게, 천수바라.화 의재바라. 오공양작법(별도)



■ 교육과정 : 전과목 10개월 (수시모집)
■ 개강일시 : 2015년 (양) 1월 28일 (음) 12월 9일 (수요일) 개강
■ 교육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2시간) 교재는 무료입니다.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문의사항 : 교육원으로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 문의전화 : ☎ (053) 781-4200.
H·P 010-7647-0108, 010-2542-2227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장 동 현 합장

국 내 산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1 고소득 작물 슈퍼도라지
- 슈퍼도라지 '씨' 비닐부착 판매 : 250평기준 50만원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300원
- 종이컵 1개 분량 '씨' 3만원

2 하수오 씨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500원
- 종이컵 1개 분량 '씨' 1만원



• 하수오 된장 : 1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 1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고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째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째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설날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자연향을원료로하여제작한천연향초
쑥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화엄의 꽃 절집 천정

〈26〉 주왕산 대전사 보광전

보현행의 실천으로 핀 화엄의 꽃

보광전은 화엄경 설한 보광법당
내부벽화 화엄경 요체 두루압축
꽃으로 장엄한 광대한 화엄세계
백학,청학,황학,홍학의 선학집합



보광전 천정 어칸 및 좌우협칸의 문양 전체를 이어 붙였다. 넝쿨문과 선학, 육엽연화문을 대칭, 자기복제, 순환을 통해 연기법계에 충만한 영원한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우물반자에 베푼 범자연화문과 선학문양 세부. 선학은 백학, 청학. 황학, 홍학 등으로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구현했고, 범자연화문은 불보살의 연화장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좌우벽면과 닫집내부 등에 그린 별지화. 보현, 관음, 문수보살을 비롯해서 기린과 용, 수박, 가지 등 벽화의 소재가 다채롭고 풍부하다.

〈화엄경〉의 진리를 담은 법당

청송 대전사는 주왕산(721m)의 상징인 기암(旗岩)과 장군봉을 배경으로 자리잡았다. 진입동선에서 바라보면 기암과 장군봉이 좌청룡 우백호의 기세로 신령한 기운을 뻗친다. 주왕산의 암봉을 염두에 두고 거대한 스케일로 경영한 뜻이 읽혀진다. 땅 속에서 우뚝 솟아난듯한 암봉 그 자체가 사천왕이고, 금강역사의 형국이다. 절이 들어서기에 훌륭한 입지다. 들어선 절 이름도 대전사(大典寺)다. 큰 법전의 절인데, 여기서 큰 법전은 〈화엄경〉이다. 대전사의 법당은 보광전(普光殿)이다. '보광(普光)' 은 드넓은 빛이다. 〈보광전 등촉게창설기〉 현판 내용중에 '보광' 을 보다 구체화한 표현이 있는 바, '보조진광(普照眞光)' 이라 서술하고 있다. 광대무변으로 비추이는 진리의 빛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드넓은 빛 '보광' 은 진리 그 자체의 법신이신 비로자나불을 상징한다. 그런데 〈화엄경〉에서 보광전은 '보광명전(普光明殿)' , 혹은 '보광법당' 으로 표현하고 있다.

80권본 〈화엄경〉은 7처(處) 9회(會) 39품(品)으로 구성되어 있다. '7처 9회' 란 화엄경 진리의 설법이 모두 일곱 곳에서 아홉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1회 설법은 석가모니부처께서 정각을 이루신 직후 삼매에 들어 마가다국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행하신 설법이다. 2회, 7회, 8회의 설법은 마가다국 보리수 나무에서 멀지않은 보광법당에서 행해졌다. 즉 대전사 보광전은 화엄경의 진리가 깃든 법당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법당 좌우벽면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벽화를 그려 둔 뜻이 그제서야 풀린다. 〈화엄경〉에서 보살행을 설하는 설법주체, 곧 설주(說主)는 보살이다. 화엄경의 전체 39품 중 〈아승지품〉과 〈여래수호광명공덕품〉 두 품만 부처께서 직접 설하실 뿐이다. 나머지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의 위신력과 광명으로 갖가지 삼매에 들어가고, 그 삼매 안에서 지혜를 얻어 설하는 방식이다. '보광전' 이라는 불전명과 법당 안의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의 벽화를 통해 우리는 벌써 보광전이 갖추고 있는 화엄세계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 단청과 벽화, 건축의장 등 장엄세계는 본질적으로 화엄경의 화장세계(華藏世界)임을 알 수 있다.

좌우벽면에 문수,보현,관음보살 벽화

보광전은 17세기 건축이다. 1976년 보광전 중수과정에서 '대전사 법당 상량문' 이 발견되었다. 상량문 기록에 의하면 강희 11년(1672년)의 건축으로, 340여년의 내력을 지닌 셈이다. 법당내부 곳곳에 고전의 빛이 배여 있다. 천정에 연등 하나 달려있지 않아 법당장엄의 아름다운 진면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내부공간은 건축의 뼈대와 가구, 회화, 조형, 단청이 어우러진 미(美)의 세계이며, 예경의 공간이며, 적멸이 흐르는 선(禪)의 세계이다. 고색의 색감이 묻어나는 단청의 빛에 시간의 퇴적층이 켜켜이 쌓였다. 내부공간은 황톳빛 서정으로 따스한 온기가 흐르고, 차분하며 고요한 적밀(寂密)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천정과 벽면은 온통 불보살의 화엄세계다.

본질적으로 화엄경의 교설(敎說)은 깨달음의 지혜와 끊임없는 자비의 실천 속에서 중생을 구제해나가는 자비이타행(慈悲利他行)의 교설이다. 그래서 화엄경의 중심에 문수보살이 있고, 관세음보살이 있으며, 보다 더 중심에 보현행원의 보현보살이 있는 것이다. 보광전 내부 좌우벽면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수월관음벽화가 베풀어져 있다. 향우측에는 좌청룡의 청색으로 사자 탄 문수보살을, 향좌측에는 우백호의 흰색으로 코끼리 탄 보현보살과 선재동자가 법을 구하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놓았다. 좌우벽면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대대적(對待的)인 배치양식을 취하는데,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음(陰)과 양(陽)처럼 통일적인 전체의 합일이다. 서양철학에서, 특히 칸트철학은 선험적인 도덕률을 바탕으로 실천이성을 강조하였다면, 불교철학은 반야의 지혜를 갖춘 자비이타행의 보현행원의 실천이다. 서양철학이 존재론적이라면, 불교는 관계론적인 연기관이다. 세 보살은 각각 부처님의 지혜와 실천, 대자대비를 표징하는 대승불교사상의 꽃이며, 화엄경에서 일깨우는 여래출현을 위한 보살행의 중심적인 보살임에 분명하다. 특히 보현보살은 80화엄경의 7처 9회 39품 법회에서 처음과 끝을 포함해서 네 차례나 설법의 주체가 되는 화엄경의 실질적인 설주이시다, 보현보살의 보현행원과 설법은 오직 침묵한 채로 광명만을 놓으신 비로자나불을 대신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비로자나불의 위신력과 가피에 의한 대행(大行)이 아닐 수 없다.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은 비로자나 법신불의 원력에 의한 전법륜의 보살이신 까닭이다. 물론 수월관음벽화는 〈화엄경〉의 마지막 39품인 '입법계품' 의 집약적이며 극적인 순간을 그린 장면이니, 보광전 벽화 속에 탁월한 문학적 서사성을 지닌 〈화엄경〉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두루 압축하고 있는 셈이다.



천정 빗반자에 베푼 대단히 심미적인 넝쿨문양과 좌우벽면의 보살벽화.

용, 기린, 사자 벽화, 신성한 기운 표현

진리를 설하는 공간은 자못 엄숙하고 거룩하며 신성하기 마련이다. 동양회화의 근본정신은 '회사후소(繪事後素)'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바탕을 희게 만든 토대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는 신념이다. 바탕인 질(質) 속에서 무늬인 문(文)이 입혀진다. '문질빈빈(文質彬彬)' 의 회화정신이다. 형체를 그리되 정신과 생명력, 기운을 드러내는 것이 동양회화의 핵심요체다. 보광전 내부 대들보며, 창방 계풍, 포벽, 보아지, 동자주 등에 베푼 용, 기린, 사자, 코끼리, 천마, 넝쿨식물문 등은 바로 내부공간 기저에 흐르는 신성한 기운과 거룩한 정신의 표상들이다. 기운들은 역동적인 형태를 취하며 기운생동한다. 사자도와 기린, 대들보의 노란 고리문양 등은 통도사 영산전이나 대웅전 벽화기법과 매우 닮아 주의를 끈다. 특히 수월관음도 위 창방 계풍에 그린 수박과 가지모양의 공양벽화는 민화풍 소재장엄을 취하고 있어 이채로움을 더한다.

보광전 천정은 전통 목조건축의 가구체계를 절묘하게 경영해서 중중무진의 화엄세계를 기막히게 구현했다. 화엄세계는 광대무변이며 중첩적인 중중의 세계다. 천정구조 및 형식을 보면, 천정의 가장 낮은 곳인 앞뒤 바깥쪽 가장자리는 널판을 이은 물매 작은 빗반자이고, 세 칸의 중앙부는 한 층급 높이에 규칙적인 정형을 갖춘 커다란 우물천정을 펼쳤다. 전통사찰 천정의 일반적인 중중무진의 구조다. 그 구조성 위에 경전에서 표현하는 불보살의 화엄세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연꽃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부처님의 시방(十方) 연꽃마다에 부처님이 계시면서, 또 그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의 시방마다 부처님이 거듭 앉아 계시는 삼천대천세계다. 그것이 곧 꽃으로 장엄한 광대무변의 화엄세계다. 절집천정의 우물반자 행(行)과 열(列)속에 범자연화문의 반복과 확산을 통해 영원한 대생명력의 세계인 화엄의 연기법계를 조형언어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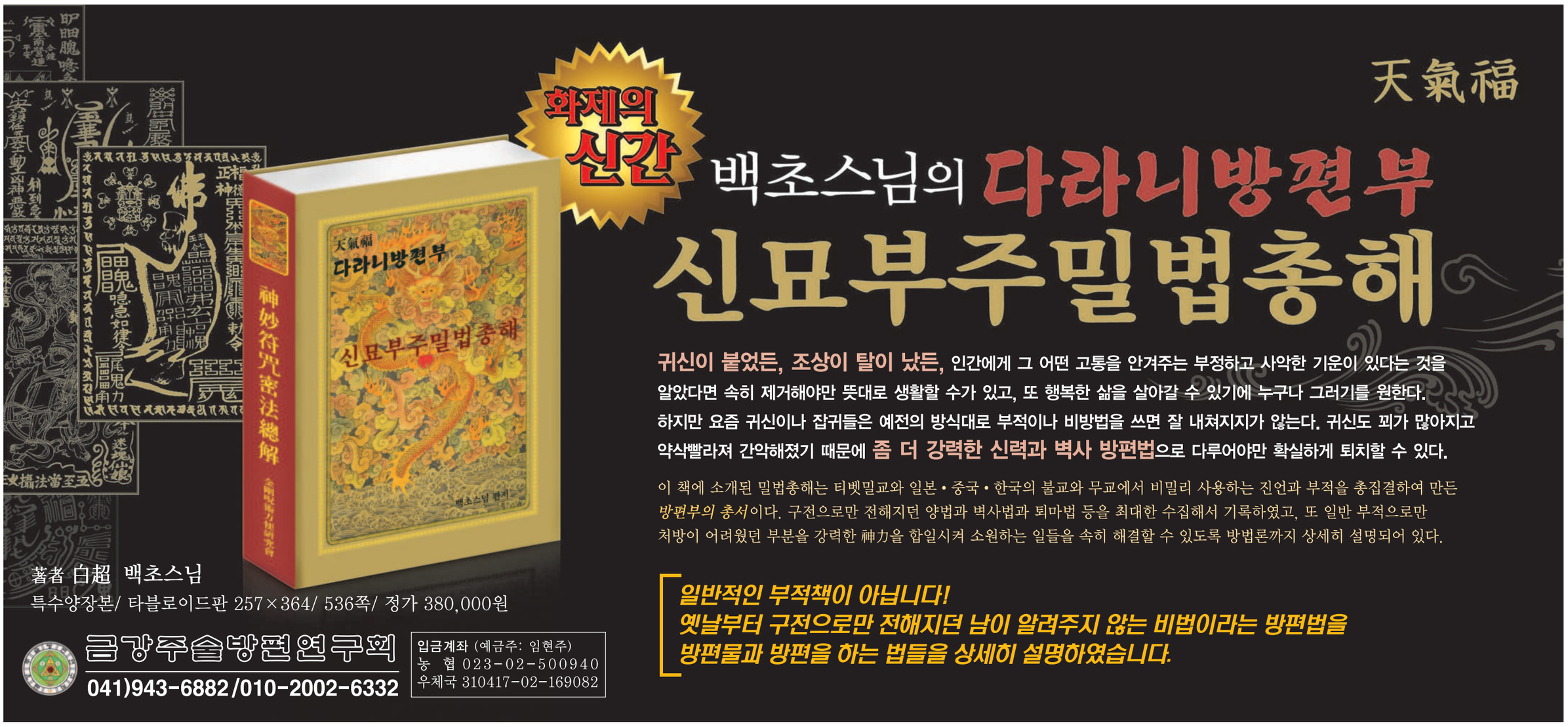
천정은 사방연속 범자연화문의 장(場)

천정 빗반자엔 S자로 뻗어나가는 대단히 심미적인 넝쿨문양을 베풀어 놓았다. 순환과 반복, 자기복제 방식으로 전개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빗반자 넝쿨문양의 수류부채는 단청의 상록하단의 원리처럼 잎은 초록, 꽃엔 육색을 입혀 대비의 효과에 의한 선명성을 부각했다. 잎에서 붉은 새싹의 촉이 나와 가이없는 생명의 불멸을 드러냈다. 검은 바탕은 본질적으로 현묘한 태허(太虛)의 천공이니, 빗반자의 넝쿨문양은 결국 우주법계에 충만한 대생명력의 기운에 다름 아닐 것이다.

우물천정은 선학의 상징을 통한 깨달음의 세계와 범자연화문의 불보살의 세계다. 선학의 영역은 세상의 모든 선학을 구현한 집합체다. 백학, 청학, 황학, 홍학을 망라했다. 선학은 검은 미명의 어둠에서 별빛처럼 돋아나 돈오의 깨달음으로 자유의 경지를 취한다. 몇몇 선학은 여의보주를 취하듯 깨달음의 열매를 물고 있다. 열매는 궁구한 반야의 증득일 터인데, 검은 천공의 바탕엔 돈오의 꽃들이 폭죽처럼 미어터지고 있다. 환희지의 순간들이다. 중앙 세 칸의 우물천정은 범자연화문의 사방연속 필드(field:場)다. 검은 천공의 바탕에서 스멀거리는 듯한 기의 흐름들이 뾰족뾰족 뻗치고 마침내 법성의 연화로 미어터진다. 연화의 본성은 법신의 진리이자, 대자대비다. 연화문의 한가운데는 '卍' 자, 혹은 범자 '옴' 의 고도의 집약적 상징을 입혔다. 卍자는 석가여래를 상징하고, 범자 '옴' 은 밀교에서 대일여래, 곧 비로자나불을 상징한다. 협칸 연화문의 여섯 꽃잎엔 '옴마니파드메훔' 의 육자진언을 모셨다. 범자 낱낱이 반야의 진리와 자비를 갖춘 불보살의 문자불이다. 천정에 중중무진 연기법계의 화엄세계를 구현한 것이다. 스스로의 원력에 의해 화엄의 꽃은 광명으로 빛나고, 순환하며, 운동한다. 무릇 조화로움의 작용은 무위로 행해지는 것이며, 생명력의 기운을 만드는 일은 홀로 움직이는 법이다. 그 모두 여래출현을 위한 보현행의 실천이 꽃으로 피어나는 감동적인 장면들이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승가, 깨달음을 위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금강대 총장 편역)

6. 승가에 귀의하며 받들다

소위 삼보(붓다와 교법과 승가) 가운데서, 승가만큼 오해 안에 있는 것은 없다. 그 오해는 제거(除去)돼야 할 것이고 옅은 관심은 깊은 관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음을, 가끔 아함부(阿含部)의 경전 가운데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전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관심 깊게 논의(論議)된 적이 없다. 그 이유도 또한 승가에 대한 관심이 엷었던 탓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슈라바아스티(사위성) 교외의 기원정사(祇園精舍)에서 있었던 일이다. 부처님은 비구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설법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아침 해 뜨는 모양을 알리라. 해가 뜰 대는 먼저 동쪽 하늘이 밝아진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는 것은 해가 뜨는 전조(前兆)이며 선구(先驅)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들이 성스러운 팔지(八支)의 길을 일으킬 때는 그 전조가 있으며 선구가 있다. 그것은 착한 벗이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착한 벗을 가진 비구에게 있어서는, 그가 성스러운 팔지의 길을 수습(修習)하며 성취한다는 것은 가히 기약(期約)할 수 있으리라."

이 길에 있어서는 신의 은총(恩寵)에 대한 기대같은 것은 설명되어 있지 않다. 기도의 힘에 매어달리는 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의지할 것은 다만 자기뿐이라고 쓰여 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길을 가는 자는 무호(蕪護), 무의(無依), 무원(無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언제인가 아난다(阿難)가 마가다의 대신(大臣)에게 말하였듯이 그들은 반드시 의지할 바도 도우는 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붓다는 좋은 스승은 선현(先賢) 좋은 수범자(垂範者)로서 그들의 앞에 있으며 스스로 이 길의 이상을 실현하여 "그대들도 오라"고 부르고 있다. 거기에 사람들이 안심하며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의지처(依支處)가 있다.

"붓다에 귀의하며 받든다"라고 불교인이 언제나 그 믿음을 표백(表白)하는 것은 그 까닭이다. 또 이 스승에 의해서 설명된 교법은 존재의 법칙을 근본으로 하여 능히 인간을 음미(吟味)하며 정연(整然)하게 정돈된 인간의 자기 형성(形成)을 위한 길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교법도 사람들이 안심하여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된다. 그렇지 때문에 불교인은 언제나 "법에 귀의하며 받든다"라고 그 믿음을 표명한다.

이 스승의 교법을 들으며 이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길을 똑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함께 손을 잡고 서로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共同體)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도 또한 안심하면서 몸을 둘 수 있는 하나의 의지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인은 "승가에 귀의하며 받든다"라고 그 믿음을 표명한다.

이 세 번째의 의지처를 지적하면서 붓다는 지금 그대들이 이 공동단체의 좋은 동지(同志)인 동안은 이 길을 방황하는 일이 없이 마침내 능히 그 목적을 성취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법하는 것이다.

승가의 기본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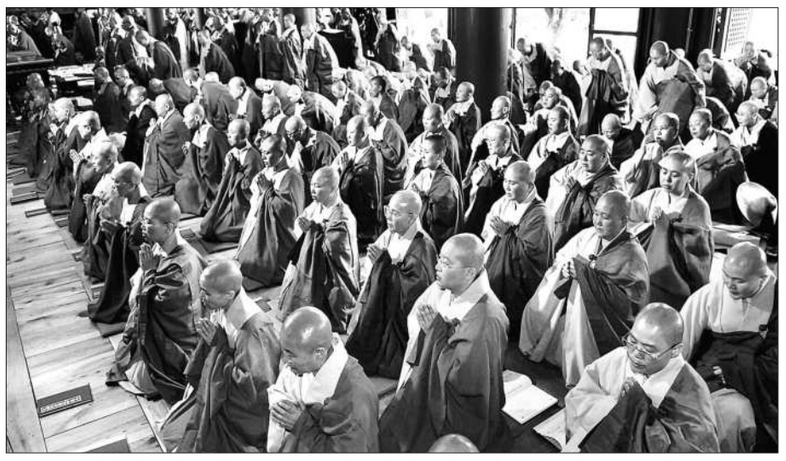
승(僧)이란 승가를 생략한 말이다. 승가란 산스크릿트어 상가(samgha)의 음(音)을 옮긴 말이다. 그 원래의 뜻은 '밀접한 결합(結合)' 을 뜻하는 말이며, 그 당시에는 중의(衆議)에 따라서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정체(政體)가 이 말로써 불리우고 있었다. 붓다는 그 말을 취하여 그들의 교단(敎團)을 승가(僧家) 또는 비구승가(比丘僧伽)라고 이름 지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 구성원의 각자가 모두 평온함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오래된 한역(漢譯)의 용어는, 이 승가를 의역(意譯)하여 화합중(和合衆)이라고 말한다. 이 번역도 또한 이 공동단체의 성격의 일면을 잘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등한 결합에 있어서는 계급도 없으며 통솔의 조직도 없으며 다만 서로 서로 착한 벗으로서 길을 같이 하는 동행자(同行者)로서 각자 격려하고 화합하면서 수행에 전심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승가에서 부처님의 지위

그 속에 있어서는 부처님 또한 다만 한 사람의 구성원이다. 물론 이 길은 이 사람에 의해서 증오(證悟)되었으며, 이 사람에 의해서 교시(敎示)된 것이다. 이 사람이 와서 이 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결국은 이 법을 알며 이 길에 전심하는 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길의 근본인 존재의 법칙은 구원영겁(久遠永劫)하게 있는 것이며 어떤 사람이 새로 만들어서 영위(營爲)한다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다만 그 법을 깨닫고 교시하면서 스스로 이 길을 가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그대들도 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석존도 또한 이 길을 가는 사람 중의 하나이며, 그 한사람의 교시를 받으며, 그 한 사람의 인도(引導)에 따라서 각자(各自)도 또한 이 길을 가는 것뿐이다.



서울 조계사 열린 조계종 직할교구 포살법회. 부처님도 제새시 참석했던 자자와 포살은 승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자자(自恣)의 모임의 정경(情景)을 기록한 경전은 매우 구체적으로 당시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석존이 슈라바아스티의 녹모강당(鹿母講堂)에 있었던 때의 일이다. 하안거(夏安居)도 무사히 끝나고 자자(自恣)를 행하려고 비구들은 모두 들판에 있으면서 둥글게 진(陣)을 치면서 망 위에 앉아 있었다. 붓다도 또한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

자자(自恣)라는 것은, 하안거(夏安居)가 끝나는 7월 14일 혹은 15일의 밤에 이루어지는 의식(儀式)을 말한다. 다른 비구로 하여금 생각나는 바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는 것이 그 취지이기 때문에 자자라고 한다.

먼저 한 비구가 회중(會衆)을 향해서 말한다.

"승가여, 네 말을 들으시오. 오늘은 자자입니다. 만일 승가로서 때가 적당하면 승가는 자자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시작된다. 먼저 장로(長老)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합장한 손을 높이 들면서 법을 이어받은 도반(道伴)을 향해서 소원한다. 이날까지 3개월간 우기(雨期)를 피하면서 비구들은 모두 함께 생활하였다. 그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죄과(罪過)를 범한 것이 아닐까.

원컨대 나를 위해서 그것을 지적해 주기를 바란다며, 같은 좌석에 앉은 여러 비구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사람이 소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밤의 자자에서 으뜸가는 장로(長老)는 부처님이었다. 그는 맨 먼저 높이 합장의 손을 올리면서 비구들을 향해서 말하였다.

"비구들이여, 지금 나는 자진해서 그대들에게 묻노라, 내 행위나 또는 말에 있어서 비난 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을 보지 않았던가."

모두 침묵하고 있었다. 침묵은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누구도 이 스승의 언행에 비난할 만한 것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때 샤알리푸트라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붓다를 경배하면서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세존의 언행에 아무 비난할 만한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세존은 이때까지 없었던 길을 있게 하였으며, 이때까지 알지 못하였던 길을 알게 하였으며, 이때까지 설명하지 않았던 길을 설명하였으며, 길의 지자(知者), 길의 교자(巧者), 길의 도사(導師)이십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자의 식(式)에서는 격외(格外)의 일이지만, 이날 그는 감명(感銘)받은 바가 있어 이러한 찬사를 스승 앞에 드린 것이다.

다음은 샤알리푸트라의 차례였다. 그도 또한 형식에 따라서 비구들에게 합장하며 자자의 말을 표시하였다. 거기에도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때 석존이 일어서서 그에게 찬사를 보냈다.

"샤알리푸트라여, 우리들은 그대의 언행에 조금도 비판할 만한 것이 없다. 샤알리푸트라여, 그대는 현자(賢者)이다. 큰 지자(知者)이다. 예컨대 전륜성왕 聖王)의 큰 아들이 부왕(父王)의 차륜(車輪)을 굴리듯이, 그렇게 그대는 내가 굴리는 법륜(法輪)을 올바르게 인도하며 굴리리라."

이렇게 하여, 좌석에 앉은 비구들이 차례로 자자를 행하였으나 그날은 누구도 비난의 말을 들은 자는 없었다. 그리고 무언지 감격이 넘치는 듯한 분위기가 만좌(滿座)에 가득하였다.

우리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할 것은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부처님도 역시 비구의 한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스승도 또한 승가의 한사람으로서 맨 먼저 "만일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원컨대 나를 위해서 지적해 달라"라고 좌중의 비구들 앞에서 합장하며 자자를 행한 사실이다. 여기에 불교 승가의 본래구조와 그 정신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승려 부역은 온당한 행위인가

문 부처님의 제자들이 양(羊)의 바탕에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쓴 자가 열에 보통 여덟 아홉은 된다. 나라에도 이익이 없고 도를 해침이 새싹을 해치는 강아지풀 같을 뿐이다. 그러므로 간택하고 제거하여 백성의 부역에 편입시키고자 하는데 피차(彼此)에 다 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답 앉거라, 청컨대 그대를 위해 풀이하겠다. 기우제(祈雨祭)를 받드는 자가 물고기와 자라를 차마 요리하지 않음은 물고기와 자라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선영(先塋)의 분묘(墳墓)를 섬기는 자가 풀과 나무를 차마 베어버리지 않음은 풀과 나무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신(神)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정성으로 기도 드리는 사이와 슬피 사모하는 즈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이르지 않은 바가 없다. 이미 부처님이 깨달은 까닭을 알고 받들었다면 비록 그 제자들이 물고기, 자라, 풀, 나무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또한 어찌 그를 욕되게 백성의 예(例)로 편입하여 부역을 시키겠는가.

또한 땅은 밟는 물건이며, 나무는 불을 피우는 물건이지만 그것을 조소(雕塑)함에 미쳐서는 부처님의 형상이 되어 기도하면 감응(感應)이 있고, 공경하면 복이 생(生)한다. 이미 인품에 참예한 잘르 믿음이 흙과 나무로 더불어 비교할게 아님을 어찌 알겠는가. 비록 그 자리만 지키는 자라 할지라도 어찌 공경하지 않고 도리어 땔나무감이나 밟는 흙으로 여겨 그 복을 덜고 그 허물을 부르는가.

더구나 부처님은 군령(群靈)의 대본(大本)이니, 근본이 흔들린다면 지말이 따라서 동여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승니(僧尼)를 몰아 부역시킴을 경상(經像)을 태우고 탑과 절을 파괴한 죄와 같이 여겨 국가의 재앙으로 삼으셨으니, 나라를 소유하고 천하를 소유한 자는 사과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승려가 세간에 처함은 다만 스스로 그 도를 닦아서 홀로 그 몸을 착하게 할 뿐 아니라, 오로지 그 법으로써 임금과 신하의 바탕이 되고 국가를 도와 널리 인간ㆍ천상의 복전(福田)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성현이 인간에 나타내 보이되 가난하고 병들고 추루하여 애석한 형체로 한 자가 많음은 진실로 까닭이 있으니, 그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끌어 내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심게하며, 또 이법은 모습으로 취해서는 안됨을 깨우치시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풍간선사(豊干禪師)는 말하기를 "보아도 알지 못하며, 알아도 보지 못한다" 하였으며, 한산(寒山)은 말하기를 "부처님을 간택하고 좋은 향을 사루며, 승려를 간택해 귀의하고 공양한다면 그대에게는 평등한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성이 모두 강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니, 그 외모에서 구하는 자에게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이것이 부처님을 간택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진로(塵勞)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공경하지 않아서는 안되며, 그 복을 바라고자 한 자는 더욱 공경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도리어 채찍질하고 부역을 시킨다면 어찌 그것을 이치라 하겠는가.

슬프다 군생이 여기에 빠진지 오래된 이여, 그 유래가 진실로 시작이 없음에서 시작하여 싫어하거나 만족할 기약이 없다. 음식상을 사방 열자로 차리는 사치와 좌우에 시종하는 첩의 많음과 만종(萬鐘)의 영화와 천사(千駟)의 부에 이르러서도 그 마음에 오히려 다하지 못했다 여김은 세간의 자태이다. 승려는 이와 반대로 정혹(精惑)의 밖에 높이 뛰어넘어, 그 전일(全一)함은 진금(眞金)이 금광에서 나옴과 같으며 그 진로를 여읨은 옥감(玉鑑)이 구름을 여읨과 같아 삼매를 닦고 보리를 바랄 수 있다. 승려가 이와 같은데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백물을 축적함은 납자가 추위를 막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고, 걸식하며 몸을 지탱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며, 가사를 입는 것은 세간의 복전이 됨을 보임이고, 발우를 지니는 것은 세간의 응공(應供)이 됨을 보임이다.

그 수염과 머리털을 제거함은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밖으로는 그 형체를 헐고 용모수식함을 일삼지 않음이요, 안으로는 마음의 잡초를 깍아버려 거칠거나 더럽게 되지 않게 함이다.

수행은 나라를 위한 福田과 같아 스님들 부역 내보는 것은 '훼불'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세로 32㎝ ×높이(뒷면) 8㎝]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www.hyunbulshop.com

제9기 송강범음범패 전승회
수강생 모집

전통범음범패 의식에 관심있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 개강일시 : 2015년 양력 3월 6일 입교시작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하루에 총 8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 처음 입학시에는 한번 내는 입회비가 20만원 입니다.)
- ▶ 형식 : 수료 1년과정, 무료특강 (2년 코스).
- 기본수업이 오전 9시부터 ~ 오후2시까지 이고, 그 외에 타임은 교양과목입니다
- 교육장소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영평사도량 내(內) "중앙불교대학"3층 강의실)
- 수강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
- 교육내용 : ❶ 아침예불 / 종성 ❷ 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❸ 49재의식 (천도재의식) ❹ 천수바라 나비춤 (도량게 / 다게)

☆ 교육특강 ☆

- ▷ 오후 2시 ~ 3시 법고무 - 문곡스님
- ▷ 오후 3시 ~ 4시 명리 - 해각스님
- ▷ 오후 4시 ~ 5시 태평소(호적) - 시우스님

- 문의전화 : ☎ 회장 관희 010-8290-6623 강주 문곡 010-3727-0870 총무 진효 010-5306-0856

www.송강사.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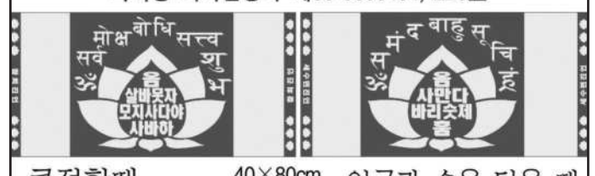
松江汎音梵唄 전승회 會長 관희 합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팔리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허 제30-0606220호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40×80cm 160g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경영학·디자인 예술에 불교 입힌 것

유필화·이기향 교수 부부



이기향 교수
서울대 미술학과 · 시카고예술학교
이화여대 대학원 디자인과 석사
인디아나대 연극대학 방문교수
現 한성대 예술대학원 대학원장 • 의류패션산업전공 교수

유필화 교수
서울대 경영학과 • 미국 노스웨스턴대 MBA
하버드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現 성균관대 SKK GSB(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는선우 이사장

사진=노덕현 기자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수행을 하는데 도반(道伴)이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앞 다투어 대답했다.

“절반입니다.” “삼분의 일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모두 듣고는 말했다.

“도반은 수행의 전부이니라.”

도반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던 부처님 말씀처럼, 도반은 우리가 만나는 인연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인연이다. 더군다나 부부가 도반이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금상첨화이며 부처님의 가피이자 행운이다.

서로 도우며 같은 길을 함께 가는 좋은 벗이란 뜻의 도반. 유필화 교수(61 ·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와 이기향 교수(60 · 한성대 예술대학원) 부부는 서로의 도반으로서 한길을 같이 가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애인이며, 때로는 선생님이자 친구이다.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뚜렷한 입지를 굳혔다. 유필화 교수는 경영학 교재의 정석으로 꼽히는 30여 권의 책을 펴낸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학자로, 불교적 시각에서 경제와 경영을 바라본 다수의 저서를 펴내 국내 뿐 아니라 서구 경영학계에서도 반향을 일으켰다. 이기향 교수는 탱화, 붓다와 보살, 단청과 같은 불교문화를 소재로 영상과 사진, 의상과 바디페인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시도를 선보여 불교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놨다는 평을 얻고 있다.

보통 개인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배우자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고 칭찬한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함께 올 수 있었다. 지금도 이 교수는 남편이 강의가 있는 날이면 도시락을 챙겨 학교에 갖다 준다. 유 교수도 아내가 전시와 학사일정으로 바쁠 때는 집안일을 거들어 서로의 편의를 봐준다. 이들 부부는 30여년을 늘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각자의 에너지로 승화시켰다.

힘든 유학생활 불교로 마음 달래

유 교수는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독실한 불자였던 모친의 영향으로 그는 어릴 적부터 불교와 친숙했다. 중학교 시절 도선사 청담 스님과 보문사 정진 스님을 친견하기도 했다. 1972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1979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돼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유 교수 나이는 결혼적령기였기에 그의 모친은 아들에게 꼭 맞는 배필을 찾아 함께 유학길에 오르게 하고 싶었다. 결혼 할 때 한번쯤 배우자 궁합을 보듯, 유 교수의 모친도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세 명의 며느리 후보(?)의 사주(四柱)와 유 교수의 사주를 들고 한 스님에게 찾아갔다.

“제가 이 사람 어머니께 간택 받았어요. 아마, 부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부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었을까요?”

첫 만남에서 이 교수는 남편에게서 ‘아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점점 만날수록 남편의 순수함과 학문에 대한 열정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 건전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좋은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란 유 교수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다. 1979년 6월에 혼인한 부부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이기향 교수의 집안은 불교였지만 스스로가 불자도 아니었고, 사실 불교를 받아들이기 이전만 해도 불교가 주는 이미지와 문화를 조금 촌스럽게 생각했다. 유 교수와 미국으로 떠날 때만해도 서양미술을 삶의 목표로 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7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한방 먹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인으로서 겪었던 정체성에 혼란이 왔죠. 한국에 대한 존재감은 없고 그들에게는 한국이 ‘Korean War(6.25 한국전쟁)’ 로만 알려져 있는 정도였거든요.”

이 교수가 불교에 눈을 뜨게 된 것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였다.

“남편과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시어머니께 끌려가다시피 가서 불교 강의를 들었어요. ‘기초교리강좌’ 였던 것 같은데 법륜 스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졸지 않고 들어본 강의 중 정말 최고였어요. 그간 고민하고 갈등하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거기 들어있더군요. 그걸 모르고 고통스러워 한 시간들이 너무 억울했어요. 유학가기 전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란 생각이 들었죠.”

미국 유학시절 함께 공부하며 독려
유필화 “불서 탐독으로 신심 키워”
이기향 “법륜 스님 강의로 불교 심취”

부부 일심동체 수행·신행도 함께
〈부처에게 배우는 경영의 지혜〉 발간
독일서 현대 불교사상과 예술 전파

이 교수는 어려서부터 주변의 어려운 일에 감정이입이 잘 되는 편이라 눈물도 많고 연민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오는 힘든 점도 적잖이 있었다.

그럴 때면 서재에 가서 남편이 즐겨 읽던 불서들을 펼쳤다. 신기한 것은 그때그때 마다 이 교수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해답들이 책 속에 있었다.

“부처님은 어떤 문제든 간에 그에 대해서 현명한 답을 주셨어요.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비롯해 환경 · 사회 문제 등 다방면에서 지혜의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더라구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술가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지금껏 달려온 이 교수는 예술을 하는 것이 좋고 멋지고 즐거웠지만 무엇을 주제로 정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막연히 서양미술에 대한 열망만 있었을 뿐이었다. 이때 불교와의 인연은 이 교수의 뿌리를 바라보게 해준 큰 사건이었다.

부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 이 교수는 1995년부터 개인전을 비롯해 국내외 의상 초대전, 패션쇼, 미술의상쇼, 무대미술, 연출 등 120여 차례에 걸쳐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그때마다 그가 소통하고자 한건 ‘불교문화를 이 시대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었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서원이다.

그가 처음 자신의 전공인 의상 디자인에 불교를 접목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1990년대 초, 석사논문을 준비할 때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을 표현하려던 중에, 모든 예술이 ‘행복’ 을 위한 방편이며 행복을 추구하는 데는 부처님 가르침만한 것이 없다는 데 결론이 닿았다.

처음에는 외로웠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 출품 때도 겪었지만, 촌스럽다고 느끼는 불교를 최첨단의 패션에 접목시키겠다는 생각은 주변의 싸한 반응으로 되돌아왔다.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불교 색채를 드러냈어요. 스님들조차 조금 거북스러워 하셨죠. 연꽃이나 불보살이 그려진 옷을 입으면 불교를 가깝게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교수는 서양예술을 흉내 내느라 우리 것의 귀함을 모르고 있었다는 자괴감도 들었다. 그럴 때 경전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랬고, 경전을 모티브로 작품활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이 교수가 옷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세련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부처와 보살의 이미지였다.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운 인체에 부처님 이야기와 〈화엄경〉 〈법화경〉 등의 스토리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1995년 열었던 국내 첫 개인전 ‘피안을 향하여’ 는 시어머니를 통해 처음 불교를 알았을 때의 감동을 고스란히 작품에 담았다. 성지순례차 올랐던 인도 영취산에서의 환희심을 표현한 ‘영취산의 환희(1999)’ ,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를 모델로 한 ‘화(華)의 구도여행(2003)’ , 〈금강경〉의 ‘공(空)’ 과 ‘색(色)’ 을 주제로 한 ‘我! 나 훔쳐보기(2008)’ , 불교여성개발원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패션쇼 ‘춤추는 단청(2011)’ 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패션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시도로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패션잡지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불교 진리는 모든 것과 통한다

미국유학 시절, 이 교수가 한국에 대한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을 동안 유 교수도 졸업논문에 대한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겪었다. 그럴 때마다 독서광인 그는 불교서적을 탐독했고, 당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원으로 유학중이던 박광서 교수(서강대 물리학과)와 교류하면서 숭산 스님과 화공 스님과 인연을 맺고 신행활동을 했다.

“다행히 박광서 교수가 인연이 있던 한국 사찰이 있어 그곳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상당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미 정착한 교민들과 유학생들과는 살아온 배경이나 문화가 달랐지만 불교라는 큰 그늘 아래서 함께 부딪힘 없이 신행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 교수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MBA를,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내로라하는 명문대학을 단 한 번의 늦춤도 없이



















出 : 3월9일 3월29일 구화산•황산•보타산 순례6일
지장보살(99m),천하비경 황산,남해관음상

★약정★ 出 : 3월10일 보현보살상주처 아미산 5일
성도,아미산,낙산대불 ₩99만

出 : 3월23일 화엄5조(두순-지엄-법장-청량국사-규봉종밀)
서안,태원,오대산(문수보살)6일

出 : 5월29일 수미산•구게왕국 16일
라싸,시가체,마나사로바호수,수미산,구게왕국

出 : 6월5일 동티벳불교 아칭스10일 출발가능:월/수/금
진정한 티벳수행,만여분의 스님들의 수행처

出 : 6월1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텐-테를지

‘평생 도반’의 힘이죠”



유필화 교수가 지난 2004년 독일에서 열린 그의 저서 〈부처에게 배우는 경영의 지혜〉 독일어판 출판기념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기향 교수가 2011년 불교여성개발원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열린 패션쇼 ‘춤추는 단청’에서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걸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 불교와 그의 아내 이 교수의 역할이 컸다.

“아내가 있었기에 유학생활도 할 수 있었어요. 아내는 도반이면서 같은 길을 가는 가장 가까운 벗이랄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우리는 서로 사소한 것에도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추운 겨울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것조차도 고마워 하는거죠. 또 서로 칭찬도 잘해주고…. 이런 사소한 습관이 사이를 돈독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와 마케팅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경영과 마케팅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 교수는 기업 등에서 매월 여러 차례 강연, 그리고 주요 언론사에 기고문을 통해 ‘불교경영’을 전파하고 있다.

“서양사상에 매달린다 해도 유럽과 미국의 그것에 비할 바가 못 되고, 동양사상에 접목하면 차별성을 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불교의 진리는 경제, 경영, 사회 전반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죠. 저는 대학시절부터 30년 동안 경영학을 공부해오다보니 어떤 분야를 보더라도 기업경영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돼 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임제록〉의 ‘수처작주(數處作主)’만 해도 그렇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종처럼 회사 일을 하는 이 보다는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기업경영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유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경영 이념을 정립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서구의 것을 좇아 왔기에 기업인과 종사자 할 것 없이 치열한 경쟁과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세기 경영이념을 인간중심의 전통동양정신과 불교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래, 불교가 나라의 정신이고 불교문화가 나라의 문화였으니, 우리 정신문화에 맞는 경영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온몸으로 실천한 인물로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명예회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분은 실제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출가를 했는데, 직원들의 행복을 기업경영의 최고목표로 둔 훌륭한 기업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불교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마인드가 약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직원을 쉽게 해고하죠. 우리나라 지식층의 80%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광복 후 엘리트층은 절대적으로 기독교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얻은 영감을 유 교수는 1997년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라는 책을 펴냈다. 유 교수의 책은 2004년 독일어판으로 발간돼 서구 경영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이때 부부는 명석한 혜안과 심미안을 조화롭게 선보였다. 유 교수의 독일 출판기념회에서 아내 이 교수는 불교적 메시지를 담은 무용 공연 ‘선향(禪香)’으로 서구인들의 갈채를 받았다.

교불련 · 우리는선우 등 신행활동도 한마음

유필화 · 이기향 교수는 나란히 교수불자연합회와 ‘우리는선우’ 등에서 활동하면서 몽골, 티베트 등을 돕는 일에도 동참하는 등 불교계에서는 유명한 부부 불자다. 그래서인지 신행활동도 열심이다. 유 교수는 10여 년전부터 참선수행을 하고 있으며, 매일 퇴근 후 집에 오면 작은 불상을 모신 법당에 삼배를 올린다. 이 교수 또한 매일 꾸준히 광명진언과 자비명상을 하며 마음을 비워낸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는선우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편을 도와 법회와 주요 행사가 있을 때면 대중을 위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간다. 한성대 불교동아리 지도교수를 10년째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유 교수와 함께 우리는 선우청년회를 만들어 청년포교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리는선우를 세계적인 신행단체로 만드는 것이 당면과제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선우가 활성화되려면 기존의 회원뿐 아니라 청년들의 활동도 활발해져야 한다고 판단해 청년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들 교수 부부는 각자의 전공분야에 불교를 접목하는 일에 천착하고 있다. 니까야를 비롯한 빨리 경전을 재밌게 읽고 있다는 유 교수는 불교와 경영학 및 인문학을 접목한 책을 집필해 현대사회에 전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교수는 영기화생론(靈氣化生論)을 통해 한국미술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는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강우방 원장 문하에서 단청에 대해 심도있게 배우며 자신의 작품에 단청을 어떻게 체화시킬지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하는 일도, 해왔던 공부도, 그리고 사는 방식도 다를 거라 생각했던 두 사람이 ‘불교를 통한 깨달음’이라는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는 자비와 사랑이 배어난다.

한 번은 이 교수가 남편에게 애교스럽게 “다음 생에 나하고 또 만날 거예요?”라고 물었다. 유 교수는 아내의 질문에 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그가 지은 웃음의 의미는 2006년 출간한 그의 시집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에 실린 ‘웃음’이란 시에 잘 나와 있었다.

“나는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웃기 때문에 행복하다고/또 웃음이 겨워서 눈물이 된다는/… 〈중략〉 나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할 수 없이 웃음이 나옵니다/그러나 웃음이 그치면 어김없이 눈물이 흥건히 괴어있습니다/… 〈중략〉 당신은 참으로 고마운 분입니다/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소중한 선물을 주시고 가셨으니까요/나는 당신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고이 간직하겠다고/다시 한번 다짐합니다/그것은 눈물 어린 웃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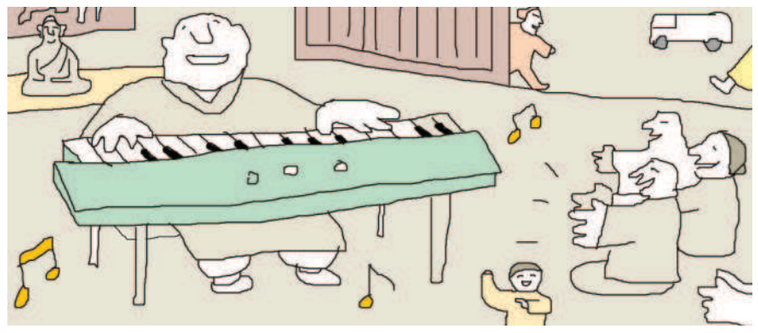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부부는 서로의 도반으로서 한길을 같이 가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애인이며, 때로는 선생님이자 친구이다.

전법일기

佛音 포교의 효과

대학생전법단 사무국장 소임을 맡아 동분서주하면서 더욱 다양한 포교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이미 종단의 포교원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포교활성화에 대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었기에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 때 떠오른 것이 노래였다. 특별히 잘 다루는 악기는 없었지만 음악듣기를 좋아하고 특히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가끔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서 갈무리해둔 글도 있기에 내가 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들려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그동안 갈무리 해두었던 글을 손질해서 노랫말을 만들어 보았다. 내가 들려주고 싶은 말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실력 있는 작곡가를 소개받아 노래로 만들어졌다.


그림 · 박구원

그 즈음 백양사에서 다시 내려와 소임을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결국 백양사로 다시 내려가 포교국장 소임을 맡게 되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불교교리 입문반 강좌를 개설하고 서울에서 계획했던 노래포교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포크가수와 함께 한 달에 두 번 백양사 우화루에서 노래와 이야기가 있는 열린 법회를 시작한 것이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차와 간단한 다과도 준비했다. 처음에는 야외법회에서 사용하던 이동식 엠프를 사용하다가 광주불교방송사에서 기술부장으로 재직하는 신도의 도움으로 한결 나아진 음향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문 앞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음향도 좋아지면서 밖에 서서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차츰 한 사람 두 사람 신발을 벗고 우화루에 들어와 자리를 함께 했다. 따로 따로 백양사를 방문한 가족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이유로 왔는지 물었다. 가까운 광주에서 나들이를 온 가족도 있었고, 멀리 서울에서 여행을 온 가족도 있었다. 강원도 강릉에서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참가 한 가족들에게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친구들과 함께 온 사람들도 있었고, 혼자 왔다가 가족과 함께 오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랑과 관한 노래를 부를 때는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이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별에 관한 노래를 불렀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간의 갈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럴 때는 또 그런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와 어울리는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과 함께 통기타반주에 맞춰 동요를 부를 때는 처음엔 쑥스러워하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율동까지 곁들여서 우화루를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법회를 마쳤을 때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무척 행복했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 시간을 함께 했던 나도 무척이나 행복했다.

크게 광고를 하지는 않았기에 때로는 단 한 가족만 참여한 날도 있었고, 아무도 없이 시작했다가 밖에서 노래를 듣고 들어오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가까운 광주에서 한 번 다녀간 가족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법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 절을 찾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포교의 목적이다. 하지만 절이 아니라도 어디서나 삶에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포교의 한 방법이 된다. 그렇게 법회를 이어가면서 음반을 내고 좀 더 큰 공연장에서 사람들과 만나겠다는 목표를 향해 한걸음 나아간다.


수안 스님 (前 백양사 포교국장)



명상, 학생들 수학(數學) 능력 높인다

캐나다 UBC大 4 · 5학년 대상 MindUP 코스 진행

명상이 아이들의 수학(數學) 능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The Green Man〉지는 1월 27일(현지시간) "캐나다 명문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이하 UBC) 연구진이 초등학교 4 · 5학년 학생 50명에게 명상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정규교육 과정만을 밟은 학생들보다 수학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낙천적인 사고의 힘을 기르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게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캐나다 코퀴틀람(Coquitlam) 지역의 초등학교 4 · 5학년 학생 50명을 선정, UBC 대학 연구진이 이들에게 12주간의 'MindUP' 코스를 수료시키고 추출한 데이터를 분석해 얻었다. 'MindUP' 코스는, 할리우드 스타 골디 혼(Goldie Hawn)이 불교의 명상수행을 기초로 삼아 만든 감성교육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The Green Man〉지는 "UBC 대학의 연구진이 MindUP 코스를 밟은 학생들의 교내 생활과 학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감정을 조절하고 집중력을 보이는 것은 물론 수학 점수도 올랐다는 데 주목했다"며 "이는 명상이 학생들의 감성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 대상자인 학생들은 종교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했다"고 전제한 UBC 대학 연구진의 책임연구원인 킴벌리 쇼네트(Kimberly Schonert)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명상이 종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아이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일깨운다"며 "하루 세 차례 명상과 호흡 등의 훈련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MindUP' 코스는, 할리우드 스타 골디 혼(Goldie Hawn, 사진 가운데)이 불교의 명상수행을 기초로 삼아 만든 감성교육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할리우드 스타 골디 혼이 개발
종교적 성향 고려하지 않고 실험
12주간 하루 세 번 명상 · 호흡 체험
"낙천적 생각 늘고 스트레스 낮춰"

이에 대해 "가르침과 배움은 변화를 요구한다"는 파커 팔머(Parker Palmer)의 말을 인용한 〈The Green Man〉지는 "변화란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데, 이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서 지식이 오고가는 것만이 다가 아닌 그 안에서 살아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MindUP 프로그램이 학생과 교사, 그리고 배움의 관계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행복해 하고, 그 친구들 역시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에 동기화되어 가는 과정을 바라보는 게 좋았다"고 말한 할리우드 스타 골디 혼은 "MindUP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판단에 앞서 매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집중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 무척 힘들었다"며 "매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학생들이 호기심과 지배욕이 아닌 자비와 사랑에서 기인한 지식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MindUP 코스를 밟으며 '우리는 어떤 지식을 만나야 할까'라고 자문했다"고 전한 쇼트네 박사는 "사랑은 깨어진 자아와 세계의 재연합과 재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식이고, 자비는 세계와 자신의 화해를 추구하는 지식"이라며 "여기서 앎의 행위는 타자의 실재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포용하는 행위, 타자로 하여금 자신의 실재 속으로 들어와 그것을 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사실 정규교육과정 대부분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사는 권위적으로 이야기하고, 듣는 학생은 수동적으로 임한다. 수업은 지식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것은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가 일종의 협약을 맺은 것과 같다. 교사는 강의를 통해 권위를 얻고, 학생을 통제한다. 학생은 편하게 앉아서 그저 그대로 머무른다. 서로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유하면 오히려 겁을 낸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호기심'과 '지배욕에서 비롯된 지식관'이 학생들의 학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한 〈The Green Man〉지는 "호기심은 도덕과 무관한 열정으로서, 알고자 하는 욕구를 방해하는 어떠한 지시도 거부하려 들고, 지배욕은 도덕과 무관한 지식일 뿐"이라며 "따라서 관계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자신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과 진리가 나를 향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동시에 인식하고 열려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학생들의 학업 성취는 유기적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대만 비구니 스님, '교황 체험' 나서

필리핀에서 종교간 대화 물꼬 트고자

교황 프란치스코 1세의 필리핀 방문을 맞아 대만의 한 비구니 스님이 종교간 화합을 모토로 '교황 체험'에 나섰다고 〈CNA Daily News〉 지가 1월 18일 보도했다.

"교황께서 필리핀 국민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은 우리(불교계)의 축복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 미아오 징(Miao Jing) 스님은 "교황께서 필리핀을 방문을 계기로 필리핀에서 종교간 대화의 물꼬가 터지길 바란다"며 "'교황 체험'에 나선 것은 프란치스코 1세의 행보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황 프란치스코 1세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필리핀을 방문, 가난한 이들과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 소명을 강조했다.


종교간 화합을 위해 교황 체험에 나선 대만의 미아오 징 스님.

오종욱 편집위원

달라이 라마에 정보 제공하다 처벌

중국 경화시보 보도 "티베트 간부 적발… 정식 수사 진행 중"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당 · 정 간부 일부가 달라이 라마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티베트 독립 세력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다 엄중 처벌을 받았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1월 28일 보도했다.

왕강(王剛) 시짱자치구 기율위원 겸 비서장은 "지난해 지하 티베트 독립 지하조직 참여, 달라이 라마 집단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정치 기율을 엄중히 위반한 소수 당원 · 간부에 대해 정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순시조는 지난해 시짱자치구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소수 당원 · 간부의 정치적 입장이 확고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안정을 수호하는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티베트족 집단거주지가 있는 칭하이(青海)성에서도 지난해 583명의 당원이 티베트 문제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짱자치구 기율위는 "지난해 민간으로부터 1천494건의 제보를 접수해 총 329건을 정식 안건으로 수사했으며 공직 윤리규정인 '8항 규정(八項規定)'을 위반한 240명을 처벌했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미국에서 비구니 스님의 삶이란

툽텐 쵸드론, 미국식 여성불교 조명

미국 사회에서 비구니 스님으로서의 삶과 역할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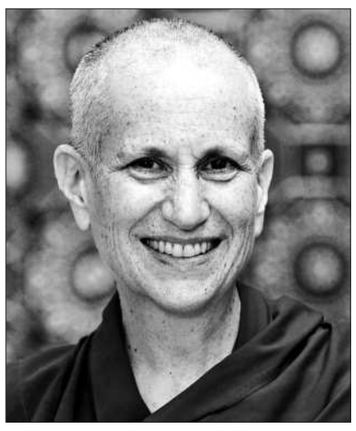
시애틀 스라바스티(Sravasti) 사원의 원장 툽텐 쵸드론(Thubten Chodron) 스님의 삶을 조명한 〈Religion News Servics, 이하 RNS〉 지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돕는 삶"이라고 정의했다.

툽텐 쵸드론 스님은 미국불교계 비구니 교단을 일구는 데 결정인 역할을 담당했던 스님이다. 〈RNS〉 지에 따르면, 쵸드론 스님이 미국불교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는 2002년이다.

당시 열린 '서구불교지도자회의'에서 빈곤한 사원 생활에 지친 여성불교지도자들의 불평에 맞서 "우리의 길은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길이자 스스로를 돕는 길"이라며 당시 불평하던 여성불교지도자들에게 일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쵸드론 스님은 시애틀에 미국불교계 최초로 여성불자 사원, 스라바스티 사원을 개원했다.

"불교가 서구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원을 우선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쵸드론 스님은 "이는 시애틀에 스라바스티 사원을 개원하게 된 동기"라며 "우리는 우리 뒤에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며, 수백 년 후 미국에서 불국토를 이룰 희망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불교계 비구니교단을 일구는 데 결정적 역할을 맡아왔던 툽텐 쵸드론 스님.

이에 대해 〈RNS〉 지는 제프 윌슨(Jeff Wison, Renison University) 교수의 말을 인용, "미국의 여성불교지도자 대부분 티베트불교를 가슴에 품고 있지만, 티베트 불교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쵸드론 스님은 티베트불교 전통을 따르는 한편 미국적인 '여성불교'의 힘을 키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즉, 툽텐 스님은 '티베트불교의 미국화'의 여정에서 선두에 서 있다는 것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깊은 선정에 든 미이라 발굴
선정에 든 채로 입적한 몽골 스님의 미이라 유물이 발견됐다. 〈International Business Times〉지는 28일 "몽골 울란바토르 성긴헤르헝(Songinokhairkhan) 지역에서 깊은 선정에 든 모습의 미이라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미이라 유물을 분석하고 있는 울란바토르 국립법의학센터는 "이번에 발견된 미이라는 족히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미이라의 주인공은 도르죠 이티기로프(Dorzho Itigilov) 스님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종욱 편집위원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미지의 영역이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는 영(靈)의 세계

그 영(靈)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성봉사 현오스님



현오스님

1977년 통도사 거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8년 부산 성봉사 주지 역임
2011년 서울 송림사 주지 역임
2014년 대한불교 약사불종 창종
현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장
현 성봉사 주지

보통 신병, 귀신병, 영가장애 등으로 일컬어지는 증상(빙의현상)들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본인은 물론 주위 가족들을 큰 고통에 시달리게 한다. 이러한 빙의 현상이 속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편으로 치료책을 찾고 있으며 그 중 맑은 기운으로 소문난 경남 양산의 성봉사(회주 현오)는 마음의 병 뿐 만아니라 도시의 일상에 지친 이들이 마음의 치유를 위해 찾아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성봉사 현오스님을 통해 마음의 병과 함께 심신을 다스리기 위한 방편을 알아보고자 한다.

빙의현상 이란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대어 의지하고 붙어있는 현사, 또는 제3의 영혼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빙의라 한다. 미국의 정신의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빙의 현상을 POSSESSION이라 명명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에서도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빙의 현상이 연구되어 왔다.

우리말로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빙의로 해석되는데 영혼이나 강력한 힘, 혹은 절대적인 신의 영향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인격이 나타나 평소의 그 사람의 행동과는 판이하게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는 질병을 일컫는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정신질환 등에 영적치료라는 단어를 삽입했을 만큼 빙의는 현재 전 세계적인 질환이 됐다.

이는 환자들의 몸속에 들어간 혼백, 즉 영가를 다스리는데 현대 의학이 한계를 느낀다는 점을 인정한 대목이기도 하다.

"보통 빙의 환자들은 오랜 기간 몸이 많이 쇠약하여 음양오행의 천기기운을 보강하여 먼저 환자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환자의 몸속에 접신된 탁한 음기의 기운인 영가를 만나기 위해서죠. 접신된 조상의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영혼을 달래 천도회향을 합니다. 접신된 영가가 빠져나오지 않을 때는 강압적인 기운을 넣어 영가의 기운을 소멸하기도 하지만 또 접신된 영가를 모두 귀신이라고 해서 물리치려 해서는 안됩니다. 그 영가의 한을 달래서 천도해야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치유 이후 반드시 지켜야할 것으로 21일간 반드시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내야만 한번 빠져나간 영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니 마지막 이 과정이 어쩌면 환자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보통 빙의나 퇴마를 과학적이지 못해 믿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의사란 몸에 대한 치유를 하지만 명의란 아픈 몸 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깨끗이 치유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지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해서 과학적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과학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또 해명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타 종교 뿐 만아니라 최면의 경우 실제로도 경찰수사, 심리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직접 오셔서 경험하신다면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혜안이 뜨여질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해서 과학적이지 못한 것은 아니다

빙의치료는 직장인, 수험생에게도 더욱 효과

이러한 치료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직장인에게도 효과가 있겠지만 수험생에게는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수험생에게는 단시간에 집중이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환경이라 함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고액과외 등도 해당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수험생 본인의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기둥이 튼튼하면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최면을 통한 집중력상승, 동기부여와 자연치유를 통해 몸과 마음을 잡아준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면을 위한 과정이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위주의 교육을 통해 가르침으로 일반인들과 스님을 비롯해 목사님 신부님, 무속인까지도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현오스님은 사악한 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두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사악한 영가의 침입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또는 사회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말이죠. 그 염원이 결국 자신의 업을 소멸하는 빠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타인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봉사활동, 기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두가 따뜻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실천하여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업을 소멸해서 사악한 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한 기운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불자님들에게 우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세상의 이치는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닌 남, 사회를 위한 지극한 기도가 힘들고 고달플 때에는 그 이유가 분명 있으니 나를 낮추고, 부처님을 비롯한 조상님에게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조상님을 위한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하라고 합니다. 미혼자는 친가와 외가의 조상님들을 기혼자는 친가와 처가의 조상님들을 깨달음을 얻어 성불받고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화와 과학은 더욱 발전하게 되고 주위의 물, 공기를 비롯한 환경은 더욱 안 좋아질 것이며 사람들의 정신세계도 혼란이 거듭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정신세계가 조금이라도 맑고 밝아질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결식아동을 비롯한 어려운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또한 지금껏 퇴마사로 활동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수익금의 커다란 부분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회향하면서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은 등불이 되어 조금이나마 따뜻한 빛이 되어주고 있다. 앞으로 성봉사의 불사가 완성되면 불우청소년을 위한 보금자리를 법인화해서 돕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마무리 했다.







현오스님의 빙의 퇴마에 대한 이해

빙의환자 증상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기 스스로 환자라는 인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퇴마사는 눈동자, 피부색, 냄새 등 많은 부분을 통해서 환자를 구분합니다. 빙의된 환자는 일상생활중에 웃으며 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이상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갑자기 화를 내거나, 폭력을 가한다던지, 욕을 하는등의 이상행동을 말입니다. 빙의 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주위 분이 상담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때 빙의 환자들은 절의 입구에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던가, 아예 집에서부터 가기 싫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영가가 미리 예지하고 거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빙의환자 유형, 치료방법

대다수의 퇴마사는 가지고 있는 힘 또는 원력으로 환자에 빙의된 영가를 쫓아내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영가가 나가게 되어 좋아보일지는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영가의 장애를 받게 됩니다. 마치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사람을 때려서 쫓아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가는 거짓말도 하며 장난도 치고 공부도 하며 희노애락도 느낄 줄 아는 것이 흡사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으로서 다스리면 힘으로 다시금 받을 것이고 깨우침으로 다스리면 깨우침으로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알아듣게끔 타이르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법문하는 것이 영가와 그로인해 고통 받는 환자가 깨달음 얻고 고통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치유상담 및 친견절차

상담 및 친견을 위해서 부산 구포의 상담센터나 양산에 위치한 성봉사로 오시면 됩니다.

다만 예약을 통해 스님의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화를 통해 상담을 하는 것도 좋지만 따뜻한 차 한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욱 좋겠지요. 나무 약사여래불

성봉사 빙의퇴마 전수교육 현황과 교육방식

배우게 된다면 바로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간략한 교제와 실전교육으로 1:1 특별전수를 하면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최면과 기공의 교육시간은 30시간이며 퇴마는 50시간 정도면 습득하게 됩니다.

현오스님 빙의, 퇴마 치료사례 (수 많은 사례 중)

1) 경남 김해에 사는 40대 남자가 허리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알고보니 영가장애에 의한 것으로 퇴마.치유 과정 이후 수술없이 현재 건설회사에 기능공으로 정상생활 영위 중.

위는 MBN에 실제 출연 방송되었던 실제 사례임.

2) 경북 모사찰의 큰스님인 비구스님은 7세에 동진출가하여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사고와 고통이 계속되던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3번이나 대수술을 하여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스님인데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닿아 최면을 사사받던중 어릴 때부터 몸안의 영가장애로 고통 받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행을 하던 스님이었지만 오랜 시간 영가로 인한 고통을 받았기에 4번의 퇴마의식과 4번의 천도재 의식을 통해 현재는 건강한 모습으로 부처님의 법을 대중들에게 설법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음달길 19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성봉사
부산 구포역 상담센터
전화 1899-8108. 010-5656-3915



※ 본 지면의 내용은 현대불교신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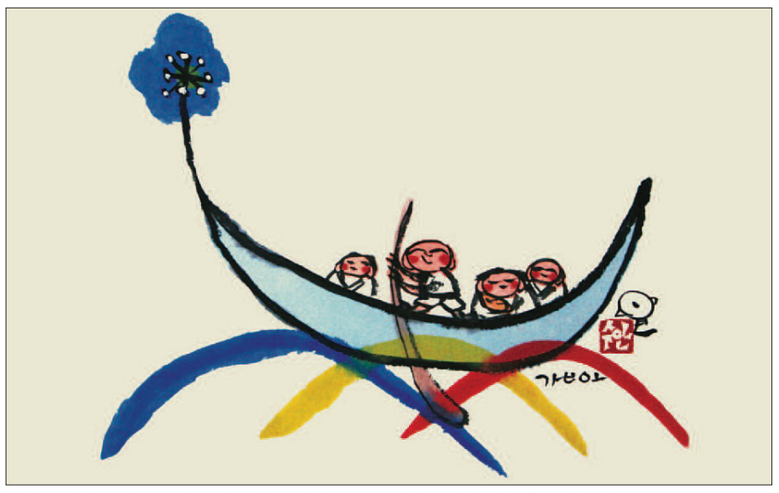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 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화엄의 꽃 동자승 미소로 피어나다

수안 스님, 2월 4일~14일 호주 시드니서 전시


수안 스님은 문수 · 보현 보살 등을 동자승으로 표현해 동심의 세계를 그려냈다.

문수보살 등 동자승으로 표현
노인복지원 건립기금 마련 목적
3월 부산 · 서울에서도 전시 가져

"사물을 관찰하면서 나를 돌아봐요. 마음 깨침을 통해 오직 여래의 길을 오고갈 뿐이죠. 이렇게 사물을 통한 깨달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의 정신을 그림으로 알려가고 있는 수안 스님이 호주 시드니에서 전시를 연다. 통도사 해외포교당 호주 시드니 정법사 노인복지원 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이번 전시는 2월 4일~14일 호주 시드니 체우스 콘코스 미술전시관에서 열린다. '세계적인 선화가, 수안 스님 작품 초대전' 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전시에서 스님은 불교의 보살을 동자승으로 표현한 작품 60여 점을 선보인다.

스님은 〈화엄경〉을 바탕으로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을 동자승으로 표현했다. "동자승이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은 꽃이 그대로 미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겨울에는 모든 것이 얼어 있는데 모든 생명체들이 싹을 내니 꽃의 향기로 깨침의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등을 동자승으로 표현해 대중들이 편하게 보살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스님은 소나무를 통해 가정마다 화목함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마음도 담았다. "산 위에 있는 소나무는 예로부터 하늘의 기운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가정의 안녕과 평안,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의미의 소나무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전시가 의미 있는 이유는 통도사 해외포교당인 호주 시드니 정법사의 노인복지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린다는 점이다. 스님은 "호주 시드니 정법사 뒤에 주택을 구입해 노인복지원을 건립한다는 얘기를 듣고 현지 전시를 통해 수익금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서울과 부산에서도 노인복지원 건립을 위한 전시회를 연달아 열 예정인데 수익금 전액은 노인복지원 건립에 쓰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진리의 뜻이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다는 의미를 담은 '염화미소'

정법사 주지 기후 스님은 "그동안 정법사가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교민 1세대들의 노고와 여러 스님들의 원력이 큰 힘이 되었다. 신도분들이 노후를 수행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노인복지원을 건립하게 되었다. 불사를 위해 기꺼이 전시를 열어주신 수안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수안 스님의 전시는 한국에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3월 9일~15일 부산 소민아트센터, 3월 21일~29일 서울 나무갤러리에서 각각 열린다.

한편, 수안 스님은 경남 통영 출생으로 1957년 출가 1964년 수계 이후 통도사, 송광사, 백련사, 묘관음사 등에서 참선 정진했다. 한 · 중 · 일 고승 선묵전, 프랑스 한국문화원 초대전 등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국내외에서 수많은 전시를 가져왔다. 현재 사단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이사로 영축산 문수원에 주석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마음 풍경 화폭에 담으니 詩 되었네

김양수 화백 개인전 2월 4일~3월 13일


김양수 화백의 '염화미소' . 달빛을 따라가면 극락세계를 만날 수 있는지 묻지만 달빛은 미소만 보낼 뿐이다.

〈무진법문〉〈염화미소〉 등 20점
수묵화로 내면의 깨달음 그려내
올 가을 시화집 출간도 예정

이른 새벽/ 거친 바람이 창문 앞에 서성인다/ 세상을 열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는 이 시간/ 마음 자리를 정돈하며 향하나 사른다./ 여백, 사유, 성찰 그리고 치유/ 내가 붓을 드는 즐거움이며 지향하는 목적점이다/ 바람 소리에 귀를 세운다.

김양수 화백의 글 중에서

김양수 화백의 그림 속에서는 한 편의 시가 읽힌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고요히 명상에 젖어든다. 적염산방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을 닦아 붓으로 펼치면 한 편의 화폭 위에 또다른 세계를 펼쳐낸다. 폭포의 법문 소리를 듣기도 하고 달빛의 염화미소를 보기도 하고, 봄의 시작 그 찰나의 순간을 담아내며, 부모님을 향한 진한 '그리움' 을 그려내기도 한다.

김양수 작가가 2월 4일~3월 13일 강남구 논현동 오차드 갤러리에서 '마음 길 끝에서 풍경을 보다' 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폭포의 무진법문' '염화미소' '순결한 땅' 등 20여 점의 수묵화를 선보인다.

'폭포의 무진법문' 은 미움도 근심도 번뇌도 욕망도 비우기 위해서는 폭포수처럼 내다버려야 비로소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버리는 것이 세상만물의 이치인데 오직 인간만이 채우려고 합니다. 나무도 봄에 꽃 피고 여름과 가을에 열매 맺으면 겨울에는 모든 것을 내줍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내가 누군인지도 모르고 욕망에 눈이 멀어 허덕이죠. 폭포는 버리는 지혜의 이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연은 결국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염화미소' 에는 작가가 달빛과 대화를 나누는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달빛이 내준 길 따라 저 언덕 넘으면 사시사철 꽃이 피고 새소리가 곁에 있는 아침에 이슬을 먹고 저녁에는 달빛을 먹는 그런 세상이 있을까?' 작가가 달빛에 물으니 달은 그냥 웃고만 있다.

"나에게 질문을 던지면 자연에서 답이 와요. 달은 이심전심으로 미소만 주었을 뿐이지만 저는 달을 통해 또한 깨달음을 얻죠."

작가 내면의 기억들을 현재화시킨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기존의 그림들은 선적인 간결한 느낌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내 내면의 풍경들을 밖으로 끄집어냈다고 할 수 있어요. 유년시절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느꼈던 정서들, 농사 지으며 자식 뒷바라지한 부모님, 함께했던 친구들 등 내면의 정서들을 그림에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길 끝에서 만난 작가의 내면 풍경들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분명 지난 시간의 기억을 두레박처럼 건져 올렸지만 그 과거는 고스란히 작가의 현재가 되어 화폭에 담겼다.

먹물로만 작업한 작품들은 배제된 욕망을 표현한다. 김 화백과 오랜 우정을 지켜오고 있는 소설가 정찬주 작가는 그의 먹 작업에 대해 '여백의 깨달음이 있는 그림' 이라고 평한다. "색이 없는데도 색이 느껴지는 것이다. 먹물의 농담만 있을 뿐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연의 색들이 홀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김 화백 식의 진공묘유(眞空妙有)로 말하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다. 색을 버리고 대상을 비우면서 여백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김 화백의 화의(畵意)는 한 마디로 이것이 아닐까 싶다.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는 치열한 구도의 몸부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김화백은 그림의 여백 속에서도 비움의 미학을 담아내고 있다. 그는 올 가을 이 비움의 미학이 담긴 시화집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김양수 화백은 전남 진도 출생으로 현재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일본 독일 등 국내외에서 23회의 개인전과 초대전을 가진 바 있으며 경기도 안성 적염산방에서 명상하며 그림 작업에 임하고 있다. (02)540-8901 **정혜숙 기자**

〈직지〉 간행처 흥덕사 역사를 돌아본다

국립청주박물관 테마전, 2월 22일까지 금고 · 향로 등 전시


흥덕사라는 글씨가 새겨진 '청동 금고' 가 발견되면서 흥덕사의 실체가 밝혀졌다.

국립청주박물관(관장 윤성용)은 '흥덕사, 금속활자를 만들어 책을 찍다' 테마전을 2월 22일까지 국립청주박물관 청명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청주 흥덕사 발굴 30주년 기념한 이번 전시는 흥덕사 터에서 출토된 유물을 테마별로 보여줄 예정이다.

청주 흥덕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直指)〉를 인쇄한 곳이지만, 이름만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1985년 10월 8일 '흥덕사(興德寺)' 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동 금고가 발견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공개됐다. 여기서 '금고' 는 사찰에서 사용하는 금속으로 만든 타악기를 일컫는다.

이후 흥덕사는 우리나라 인쇄문화를 대표하는 장소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출토된 유물과 역사적 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거나 연구하지 못해 사찰의 성격과 그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흥덕사의 실체를 확인시켜준 '흥덕사' 가 새겨진 금고와 발우뿐만 아니라 새롭게 과학적 보존처리 과정을 거친 대형 금고와 향로, 향완, 광명대, 종, 금강저 등을 모두 공개한다. 이들 불교의 식구는 발굴 전 공사 중에 파손되어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지만 당시 사찰의 규모와 사세, 성격 등을 짐작하게 해 준다.

특히, 처음 소개되는 현향로(懸香爐) 3점은 인근 지역에서 출토된 청주 사뇌사의 현향로와 비교할 수 있는 중요 연구자료다. 더구나 현향로 3점을 불교법회에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 원주 법천사 터 출토 현향로의 명문 내용과 일치해 주목된다.

또한 보존처리 과정에서 새롭게 명문을 찾아낸 '용두사(龍頭寺)' 가 새겨진 청동발은 고려시대 청주의 대표 사찰인 용두사와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이는 지역 사찰간의 상관성과 더불어 지역불교문화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자료다.

신명희 학예연구사는 "흥덕사는 다양한 유물과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지역 사찰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였으며, 금속활자를 만들어 책을 인쇄하고 다양한 불교의식구를 제작할 만한 세력이 있는 청주지역의 중심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주 흥덕사의 성격과 〈직지〉 간행처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한번 찾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람을 기대해 본다"며 전시의 취지를 전했다. (043)229-6300

정혜숙 기자





부산·경남 전파 포교에 '견인차'



개국 20주년을 맞은 불교부산방송은 불자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제작, 지역불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사진은 특집공개방송의 일환으로 진행된 안국선원의 '일문일답' 진행 장면. 수불 스님(사진 오른쪽)은 지난 2월 1일 불교부산방송 사장으로 취임했다. 사진 왼쪽은 아나운서를 겸하고 있는 지은아 편성제작 부장.

불교부산방송 2월 1일 개국 20주년 맞아

불교부산방송이 2월 1일로 개국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95년 개국, 200만 불자를 자랑하는 부산의 지역 방송으로 지난 20년 동안 포교 시사 교양 등 지역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 지역 불자들에게 법음을 전하고 있다.

개국 당시부터 불교부산방송에서 근무해온 지은아 편성제작부장은 "부산의 불자들은 오래전부터 불교방송 설립을 꿈꾸어 오다, 마침내 스님과 뜻있는 불자들이 모여 1989년 12월 26일 코모도호텔에서 부산불교방송 설립추진위원회 발기인회를 개최했다. 당시 추진위원장에 범어사 주지 흥교 스님, 집행위원장에 부산불교신도회 회장 이윤근 씨, 추진본부장에 박순곤 씨를 선출해 설립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1995년 개국과 함께 부산불교방송은 부산, 김해 등 5개 시와 양산군 등 8개 군을 가청권으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주파수 FM 89.9㎒, 3㎾의 출력으로 '반야의 샘' '열린 아침, 열린 정보' '부산 경남 뉴스' 등 10%의 로컬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규방송을 송출해 불교방송을 기다리던 부산 · 경남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개국과 함께 탄생한 '반야의 샘'은 지방 최초의 본격 종합 포교그램으로 부산 · 경남 지역의 불교계 동향과 불교문화계 소식, 그리고 신행담 등을 소개해 왔다. 이후 2001년 가을 개편 때 'FM 89.9 좋은 인연입니다'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2007년 봄부터는 '무명을 밝히고'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무명을 밝히고'는 지역 불교계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애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밖에도 '부산경남 라디오830' '행복한 오후' '유쾌한 저녁길 2부' 등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 지역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법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불자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특집공개방송'은 각 사찰을 찾아다니며 '일문일답' '우리 절, 우리 스님' 등의 제목으로 진행됐다. 지난 6년 동안 부산 경남 일대의 사찰 30여 개를 직접 찾아다니며 소개해 지역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13년부터는 'BBS마인드힐링콘서트'를 부산시민회관에서 진행해 불자는 물론 지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1회는 박상민 비뮤티 야운 소찬휘 등이 출연했고 2회에는 김혜연 설운도 추가열 등이 출연했다.

특히, 1회 방송 때는 성금을 모아 지역의 미소원 허허원 등 불교 봉사단체에 기부하기도 해 훈훈함을 더했다.

부산불교방송은 불교방송 최초의 지방사로 향후 개국할 타 지방사의 모델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지은아 부장은 "불교세가 강한 부산, 경남 지역의 청취자들이 지역 불교계 동정과 올바른 불교교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 불교계 동정을 빠르게 알려주고 스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울러 불교계를 지키는 첨병으로서 보도 기능도 활용하고자 하였고, 불교방송에 주파수를 맞춘 청취자들을 위해 불교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교양, 오락 프로그램 개발에에 박차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불교 부산방송은 진주중계소 개소 준비와 사옥 이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지 부장은 "지난해 7월 진주중계소 주파수(FM 88.1㎒) 개소 허락을 취득하고 11월 진주 중계소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부산 경남 400만 불자들에게 법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불교부산방송은 현재 동구 범일로에 위치한 사옥을 북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2월 1일 신임사장으로 취임한 수불 스님을 중심으로 신사옥 이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부산경남 가청권으로 1995년 개국
'반야의 샘' 최초 자체 포교 방송
'특집 공개방송' 지역민 찾아가
진주중계소 개소 · 사옥 이전 계획



1995년 개국 당시 부산불교방송 사옥 모습



부산불교 방송 제작 현장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찰나'의 거장… '결정적 순간' 앵글 속에

앙리카르티에-브레송 사진전

앙리카르티에-브레송 사진에 대해 '내면의 침묵-영혼의 시선 영원한 풍경'이라고 표현해 놓은 글귀를 읽게 되었다. 얼핏 듣기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말이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영원한 것이 없다는데 그의 사진은 영원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도대체 그 영원한 풍경이란 무엇일까'라는 화두를 들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디자인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10주기 회고전,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전 영원한 풍경' 전시장에 들어섰다.

'20세기 현대 포토저널리즘의 아버지' '세기의 눈' '사진의 톨스토이' '사진미학의 교과서'. 프랑스 출신의 작가 앙리카르티에(1908~2004)를 수식하는 단어는 화려하다. 그래서 그는 살아 있을 때는 신화였고 죽어서는 사진역사의 전설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앙리카르티에 풍경 사진들은 다분히 명상적이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한 시대의 문제를 대변하기도 한다.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 중 하나인 '브리, 프랑스'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정적인 풍경이지만 역설적으로 결정적 찰나가 가장 잘 나타나는 작품이다. 앙리카르티에는 1968년 5월 프랑스가 사회변혁 운동으로 급진적인 변혁을 겪는 동안 사건의 현장을 찍는 대신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프랑스의 풍경을 휴머니즘적 시각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끝없이 흐르는 길과 울창한 나무들은 터널을 형성하고 있다. 길은 선택의 여지없이 하나뿐인데 끝도 없이 구부러지며 이어지고 길 위의 흔적만이 사람의 자취를 느끼게 할뿐이다. 이 사진은 심리 테스트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의 심리상태에 따라 '하트', '카오스' 등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니 신기하지 않을 수 없다.

카르티에 브레송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난 평생 결정적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하길 바랐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어떻게 앙리카르띠에는 어떻게 인생의 모든 순간을 결정적 순간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는 오랜 관찰 끝에 순간을 포착, 완벽한 구도를 만들어 내었다고 한다. 인위적인 것을 배제했으며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완벽한 구도를 만들어냈다고 하니 그의 순간 포착 능력은 가히 천재적이라 할 수 있다.



명상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브리, 프랑스'. 앙리카르티에는 1968년 5월 프랑스가 사회변혁 운동으로 급진적인 변혁을 겪는 동안 사건의 현장을 찍는 대신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프랑스의 풍경을 촬영했다.

"모든 인생사가 바로 결정적 순간"
원근속 풍경, 명상적 분위기 전달
나무 터널 사진… 심리테스트 사용

금강경 제 18분 일체동관분[一體同觀分]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얽힌 중국 당나라 덕산 스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스님은 주금강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금강경에 통달했는데 남방에서 참선 공부하는 선지식들이 문자를 세우지 않고[不立文字]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直指人心] 자성을 보아 부처[見性成佛]가 되게 하므로 사람들이 구름 떼 같이 모여든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스님은 이런 마구니들을 쳐부수어 불법을 바로 잡겠다고 자기가 손수 지은 〈금강경 소초〉를 짊어지고 남방을 향해 길을 떠났다. 길을 가던 중 출출하던 차에 떡을 파는 노파를 만나게 된다. 점심 삼아 먹으려고 떡을 팔라하자 노파는 대뜸 스님 등짐에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스님은 금강경을 해석한 〈금강경소초〉가 들어 있다고 답하니 노파는 이렇게 말한다.

"금강경에 있는 구절을 묻고자 하니 대답하면 떡을 드리고 그렇지 못하면 떡을 줄 수 없습니다."

"다 물어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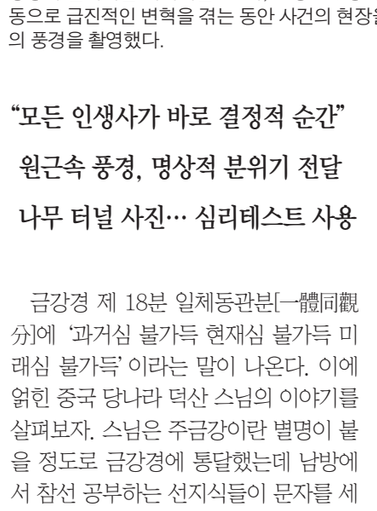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는데 스님께서는 어디에다 점심을 두시겠습니까?"

노파의 한 마디 선구에 스님은 탁 막혀 버렸다고 한다.

과거라는 시간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얻을 수 없고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현재의 마음도 찰나에 사라지므로 잡을 수 없다. 현재의 마음도 순간순간 흐르고 있으며 시시각각 흘러가 버리니 잡을 수 없다.

2004년 8월 3일, 수많은 '결정적 순간'을 목격했던 앙리카르티에 브레송은 그의 나이 96세에 평온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묘비에는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서, 오직 우리의 죽음만이 붙잡을 수 있을 따름이다. 사진은 영원을 밝혀준 바로 그 순간을 영원히 포획하는 단두대이다."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사진을 통해 영원의 순간을 잡을 수 있지만 그 순간마저 사라진다는 진리를 사진의 거장은 알았던 것일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던가. 그의 사진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관람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니 순간을 포착한 예술의 영원성은 믿고 싶어진다. 정혜숙 기자



생자르 역, 유럽 광장, 파리, 프랑스. 어떤 것도 연출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진은 완벽한 구도를 만들어낸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 ~ 1/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여기깨어있기	법륜	정토
2	인생수업	법륜	휴
3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	불광출판사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8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만다라	Carlton Books	담앤북스
6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경	마음의숲
7	몰입이 시작이다	스티븐 스나이더	불광출판사
8	춘성	김광식	중도
9	행복 119 (개정판)	성담	셀프컬쳐리서치
10	무불취	견불수행 도우회	정우서적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남 배려하고 양보하면 내가 오히려 편해져"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올해 범국민적으로 캠페인화되어 사람들의 온몸과 마음에 습관화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제 2의 세월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갑질 현상, 땅콩회항 사건, 성추행 사건 등 모두 나만 생각하고 타인의 아픔, 슬픔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충남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이 책을 쓴 이유다. 늘 힘들고 어렵고 바빠서 나만 먼저 달려가야만 하는 이 세상에 마음을 내는 방법을 주경 스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동안 내 자신의 마음에 관한 성찰을 주로 주경 스님이 이번에 '당신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책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 스님은 "상대방을 먼저 챙기면 내가 떳떳하고 편안해지기 때문"이라고 책에서 밝힌다.

이 책은 스님의 네 번째 수필집이다. 스님은 이 책에서 갈수록 개인주의로 치닫는 이 세상에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씀을 수행하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을 쌓고 돈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고 제아무리 높은 권력의 권좌에 앉아 있더라도 타인, 특히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이 사회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그래서 주경 스님은 이제 지식인도, 정치인, 경제인 모두 내가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남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었거나, 들리더라도 듣고 넘기는 마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마음, 남이 아니라 내 아이, 내 자식, 내 부모라는 가족공동체의 마음이 개인이기주의를 극복한다고 말한다. 주경 스님은 먼저 '소처럼 느리게 걸어보자' 라고 제안한다.

"마음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의 걸음은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수행자의 걸음이 느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머리와 가슴을 가득 채우고 한없이 마음이 바쁜 사람은 걸음이 절로 빨라지는 법입니다. 자신보다는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하고, 우호와 협력보다는 경쟁과 승리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일상은 그래서 슬픈 것이지요."라고.

주경 스님은 또 책에서 '욱하고 확하는 것' 까지는 괜찮지만 '팍' 하지는 말라는 당부도 했다.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욱' 이라면 욱하는 것을 넘어 화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것은 '확' 이다. '팍' 은 결국 외부로 이런 확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화가 났을 때 속에서 확 솟아올라 화의 대상을 때려보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욕하는 식으로 확하는 마음을 표출하지 말라는 것이 스님의 말이다.



"양보와 배려 마음 별도 과목으로 만들어야 느리게 걷자…걸음 빠르면 마음도 바빠져 화나면 '욱' 하는 것 까진 좋지만 '팍' 말자 가정 위기 겪는 50대 남성, 밥부터 해보자"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경 지음
마음의 숲 펴냄 | 1만 3천원

책속의 밑줄 긋기

나는 온 힘을 다해 천천히 걷겠다. 소처럼 뚜벅뚜벅느린 걸음으로 당신에게 가겠다. 그러니 좀 더디더라도 기다려주시라. 만리밖 그곳에서 말이다.

어떤 상황에 휩쓸려 분노와 탐욕이 일어나면 그 순간 눈과 귀가 멀어버려서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 버린다. 그럴 때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라. 답이 온다.

좋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마디 한 마디가 따뜻한 말, 건강한 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닌 너를 위하는 말이어야 한다.

원망을 원망으로 해결하려 하지말자. 용서하고 잊어줌으로써 지워지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것으로 소멸된다.

"살다가 '욱'하는 마음이 슬며시 고개를 들거든 '확'하는 신호를 보냅시다. 절대 '팍'하는 상황까지는 몰고 가지는 말고, 내 곁의 누군가가 '확'하는 신호를 보내거든 슬며시 받아줍시다. 너무 다그치지 말고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 서로에게 손을 내밉시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은 훨씬 더 살 만해질 것입니다."

서산 부석사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주경 스님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한다. 핵가족화 속에서 대부분 혼자 자란 아이들이 많은 요즈음 극도의 개인주의로 치닫는 청소년,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이 폭력을 낳고 청소년 문제를 만든다고 한다. 그것은 자연을 통해 배우는 일이며, 자연은 절대로 앞서가거나 거스르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 자연의 순리와 청정함을 배우려면 휴일에 한 번씩이라도 산사를 찾기를 권한다. 그것도 마음을 쓰고 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인, 기업인, 많이 갖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난 '나보다 먼저 당신' 이라는 덕목은 나이가 들었어도 별도 과목으로 배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0대에 접어들어 '가정의 위기' 를 겪는 남성 불자들에게 스님은 "밥을 지어보라"고 이색적인 제안을 한다. "남자들이 퇴직하면 밥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분란이 생겨요. 해결책으로 50대 남자 신자들에게 무조건 요리를 배우라고 권합니다. 밥을 해 먹이면 상대방이 편안해지고 자기도 자유로워져요. 또 그것이 공덕이 돼 내게도 돌아옵니다."

스님은 또 모두가 네 탓이라 말하는 세상에서는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남의 탓만 하는 어른은 진정한 어른이 아니며, 답답한 마음에 남의 탓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를 둘러싼 세상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이럴때 스님은 세상 모두를 바꾸는 것 보다는 나 하나가 바뀌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고 조언한다. 효과도 크다는 것이다. 타인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바뀌어야 한다. 몸으로 행동으로 그리 해야 한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바뀐다. 자식이 책을 읽기를 바라거든 부모가 먼저 책을 읽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남의 탓 할 것 없다고 스님은 당부한다. 〈법구경〉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이다.

善觀人瑕障 使己不露外 (선관인하장 사기불로외)
如彼飛輕塵 若己稱無瑕 (여피비경진 약기칭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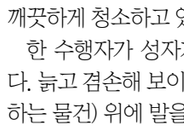
남의 허물은 잘 찾아내지만, 자기의 허물은 드러내지 않는다.

남의 잘못은 가벼운 먼지처럼 날리나, 자기의 잘못은 없는 듯이 말한다.

"면도날이 가죽띠에 연마하면 예리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지속된 훈련에 의해 진보시킬 수 있다"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마나 마하르시 지음 | 박지명 옮김
물병자리 펴냄 | 1만 1800원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성자 라마나 마하르시가 쓴 마음 평화를 찾아주고 몸의 긴장까지 풀어주는 이야기와 우화가 담긴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출간됐다. 마하르시는 바라보는 것만으로 상대방 내면을 변화시켜는 침묵의 힘을 가진 현자로 유명하다. 그는 '나는 누구인가?', 즉 참나(Self)에 대한 응시로 깨달음을 얻는 수행자이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수천 마리 코끼리를 죽이는 능력이 아닌 발정난 코끼리 같은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하고 한탄하는 이들에게

마하르시가 들려주는 이 책의 이야기들은 짧고 구성 역시 단순하다. 그러나 읽으면서 터져 나오는 짧은 감탄과 읽은 후에는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이 했던 말들과 상대방에게 취했던 행동들을 돌아보게 한다.

두 수행자가 기근이 심한 마을에 머물게 됐는데, 굶주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원서 매일 신에게 기도했다. 그들의 헌신에 기뻐한 신은 금화를 내려주었다. 그들은 그 금화로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주었다. 그런데 한 수행자의 금화는 순도가 약한 것을 알게 되어 신에게 물었다. 그러자 신은 '자네는 마음과 언어만으로 경배하지만 다른 한 수행자는 마음과 언어와 행동으로 경배한다' 고 말해주었다. 그 다른 한 수행자는 매일 사원 주변을 쓸고 닦으며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수행자가 성자가 있는 오래된 사원을 찾아왔다. 늙고 겸손해 보이는 성자가 링감(시바 신을 상징하는 물건) 위에 발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무례하다 생각되어 내려달라고 했다. 노인은 그럼 자기 발을 좀 치워달라고 했다. 그의 발을 다른 곳에 놓으니 놓는 곳마다 모두 링감으로 변했다. 할 수 없이 수행자가 자신의 무릎에 올렸더니 그 역시 링감으로 변했다. 그제야 그는 진신을 깨달았다.

어느 날 여왕은 성자가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을 요청했다. 그런데 겨우 열 살 남짓한 어린 아이였다. 여왕은 그가 왕의 측근에 있는 쟁쟁한 지도자들과 견줄 수 있을까 염려되었다. 왕에게 내놓는다는 것이 왕을 창피하게 하는 일 같아 걱정 되었다. 그것을 알아차린 어린 성자는 다음의 몇 마디 노래를 불렀고, 왕비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신은 내 안에 있나니, 내 마음에 있나니, 어떤 날도 어떤 별자리도 나의 운을 빼앗지 못할지니 나에게는 언제나 길일이로다." 왕이 행렬을 하고 있는데 벌거벗은 자가 땅 위에 누워 있었다. 그가 기쁨에 찬 표정을 짓고 있어 왕이 물었다. "당신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는군요. 그토록 행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저에게는 24명의 스승이 있습니다. 이 몸, 이 땅, 새, 도구들, 많은 사람들…그 모든 것이 저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명상으로 이끄는 아포리즘 같은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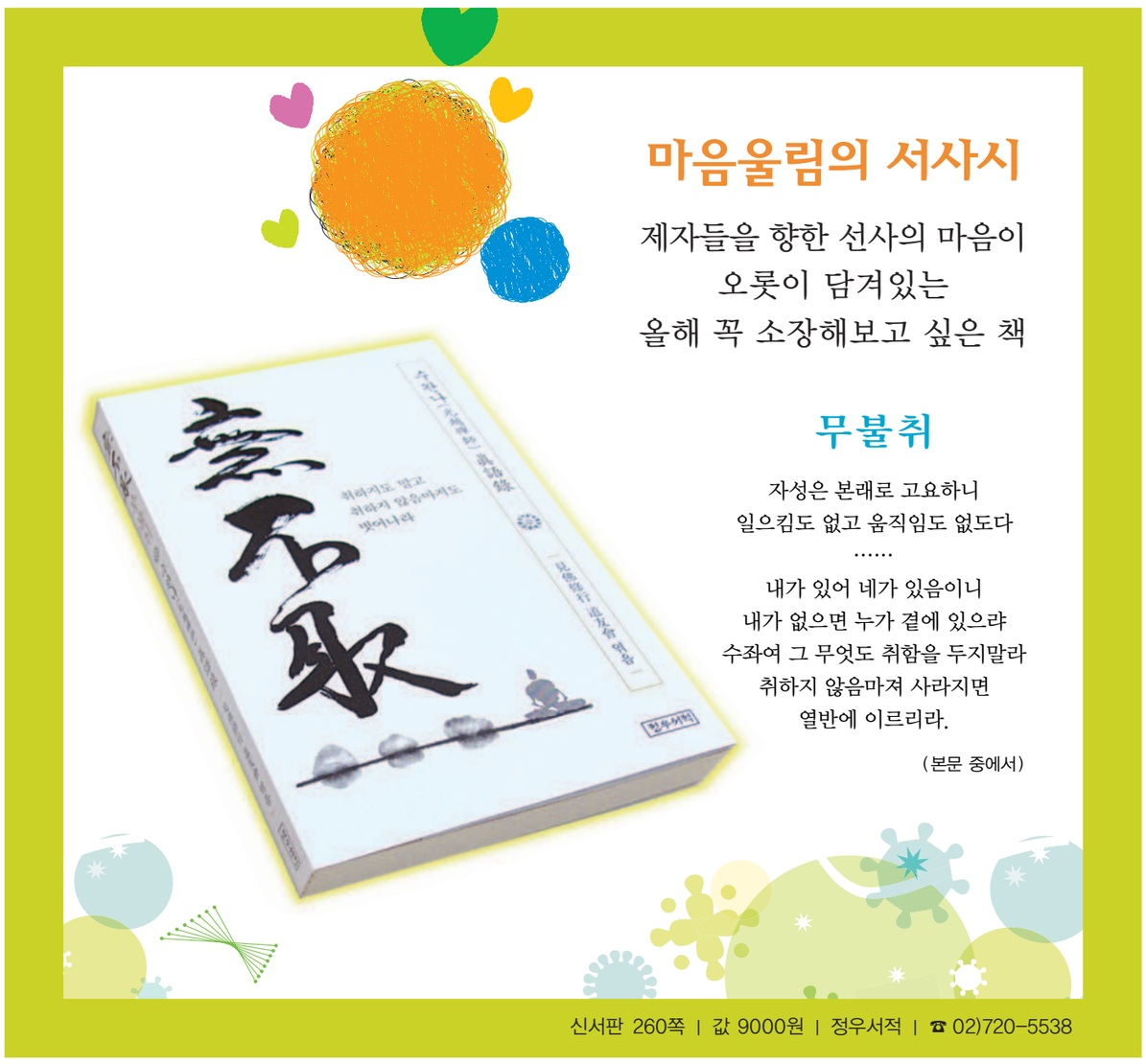
역자는 마하르시가 수행했던 아루나찰라 산과 사원은 아직까지도 영적인 향기로 가득하다고 말한다. "나는 몇 번이고 그 장소를 가보고 생존해 있는 마하르시의 직계 제자들도 만나보았으며, 마하르시의 아슈람에서 나오는 그에 관한 자료들과 인도인이나 외국인들이 쓴 그에 관한 책들을 보았다. 그의 깊은 삼매의 응집력과 고요함, 헌신적인 몰입이 마하르시의 모든 삶과 장소와 책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높은 깨달음을 이루었으면서도 전통적인 수행 체계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가 가진 더욱 큰 매력이었다."

마하르시 생전에 그의 주변에는 늘 헌신자들이 따랐으며, 사람들은 그와의 만남 자체로 에고가 저절로 사라지고 참나의 세계를 체험했다고 한다. 그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바라보는 것만으로써 상대방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침묵의 힘을 가졌었다. 사람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방황하던 마음은 고요해졌고, 오랫동안 갈구해왔던 영적체험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는 침묵을 통해서 그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해서 가르침을 주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능력은 평화 가져오는 힘

면도날을 가죽띠에 연마하면 예리하게 되는 것처럼 마음은 훈련에 의해 진보시킬 수 있다고 마하르시는 말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마음은 한층 더 내면과 외면의 문제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누구나 마음이 불안에 병들어 있다. 명상을 할 때 수없이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한 생각의 보따리가 마음이다. 그 수많은 생각의 둑에 억눌려 있는 것이 참나이며, 마음은 참나 안에 머물려는 시도를 방해한다. 참나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로 현명한 것이다.

이 책은 네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에서는 마하르시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소개하며, 제2부에서는 인도의 세 신인 창조의 신 브라마, 유지의 신 비슈누, 소멸의 신 시바에 대해 말한다. 제3부에서는 남인도의 시바파 성자 63인의 이야기, 제4부에서는 위대한 고대 성인인 바시스타와 라마의 진리에 대한 경전 이야기가 실려 있다. 김주일 기자





역사 뒤안길 물러난 신미 대사 재조명

훈민정음의 길

박해진 지음 | 나녹 펴냄 | 3만 6천원



훈민정음 즉 한글은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과 창제했다는게 그동안 알려진 정설이다. 하지만 집현전 학사들의 도움에 의문점이 제기되며 한글창제와 관련한 학설이 하나 더 추가 됐다. 한글은 조선 초 최고의 학승인 신미대사(信眉大師 · 1403~1480)가 핵심적으로 관여했다는 이야기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며, 지난해에는 정찬주 작가가 충북 속리산에 똬리를 튼 고찰 복천암(福泉庵)에 전해오는 '신미 대사 한글 창제설' 을 소설적 허구를 곁들여 재구성해 펴내기도 했다.

이 신미대사의 업적을 우연히 속리산 법주사에서 접하고 12년 동안 그의 궤적을 따라 쫓아간 결실을 하나의 평전으로 묶어낸 이가 또 있다. 박해진 고건축 작가〈사진〉다. 박 작가는 2002년 법주사 대웅보전 해체보수 공사의 인연으로 복천암과 신미대사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신미대사' 를 화두로 그의 흔적이 있는 곳이면 천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가평 현등사, 양주 회암사, 오대산 상원사, 승주 송광사, 해남 도갑사 등 일일이 손을 꼽기가 어려울 정도다. 별로 전해 내려오는 기록이 없었던 탓에 신미 대사 행장을 알고자 스님의 속가 집안인 영동 김씨 족보도 뒤졌고, 고문헌과 관련된 논문은 모조리 섭렵했다.

박 작가는 "이번 책에는 내가 상상해서 쓴 것은 전혀 없다. 모두 자료와 확인된 근거를 기반으로 서술했다"며 "책에는 새로운 주장이나 가설 등은 없을 수 있겠지만, 신미 대사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작가는 "나옹-무학-함허 스님으로 이어지는 신미 대사의 법맥을 밝히는 데만 4년이 걸렸다"며 "세종대왕이 신미대사에게 내린 '우국이세(祐國利世) 원융무애(圓融無) 혜각존자(慧覺尊者)' 의 법호에 훈민정음 창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작가는 "세조도 과실이 있는 임금이지만, 신미 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간경도감을 설치해 불전언해 사업에 공력을 집중한 업적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작가는 "신미대사의 동생 김수온도 왕실 주관의 모든 불사를 기문으로 남겨 조선초기 불교사의 지평을 넓혔다"며 "신미대사의 입적 이후 사실상 불전



신미대사 발자취 12년 취재한 결실
대사 법맥 밝히는 데만 4년 소요
법호에 훈민정음 창제의미 담겨져
1374개 주는 실증적 자료 확인물

언해의 맥은 끊겨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작가는 "한글이라는 말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제는 '훈민정음' 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전 세계 문자의 우뚝한 봉우리인 소리문자 훈민정음(한글) 창제의 비밀과 교육, 확산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했다. 집현전 학자 중심의 훈민정음 창제사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삭제된 훈민정음 창제의 핵심 인물인 혜각존자 신미스님의 흔적을 남김없이 찾아내 균형을 잡았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역사서, 15세기에 간행된 학자의 개인 문집, 훈민정음 연구서와 논문,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하고 검증해 낸 자료를 작은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맞게 생생하게 풀어냈다. 1,374개의 주(註)는 실증적 자료 조사의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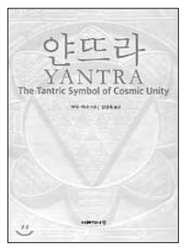
책에는 세종이 총괄 기획한 훈민정음 창제 과정의 비밀, 창제 이후 최만리 등과의 갈등, 보완과 연구.교육, 문종과 신료와의 갈등, 수양대군과 조정의 충돌(계유정난. 사육신의 난), 세조의 불교와 유학을 아우른 보급과 확산, 예종과 성종대의 내리막길 등 훈민정음의 길을 일관성 있게 종합 정리돼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박해진**은?
강원도 태백 출생으로 1984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부문에 당선됐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종근당 홍보실과 동방기획 PR부장을 거쳤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고건축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숭례문, 창덕궁 인정전, 경복궁 근정전, 덕수궁 중화전, 수원 화성 팔달문, 여수 진남관 등 국보 · 보물의 해체 보수, 조사의 기록을 전담했다. 저서로는 단청 명장으로 활동한 한석성을 인터뷰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단청〉(한석성 · 신영훈 · 김대벽 · 박해진 공저, 현암사, 2004), 바둑평론가로도 활동하며 동아일보 주최의 국수전 50년 역사를 정리한 〈국수산맥〉도 있다. 이외에도 사진집으로 〈선암사의 건축〉 〈오래된 궁궐, 새로운 궁실〉 등이 있다.

전통 사원 건축과 조각에 활용되는 '얀뜨라'

얀뜨라

마두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지혜의 나무 펴냄 | 1만 9800원



얀뜨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170장 이상의 흑백과 컬러 얀뜨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영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으로 얀뜨라의 역동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얀뜨라는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만뜨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흑주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얀뜨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얀뜨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마두카나는 동서양 철학에 많은 지식을 갖춘 학자이며, 아지트 무케르지와 Tantric Way를 같이 집필하였다.

얀뜨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꾼달리니 요가에 따르면, 미묘한 몸의 정신적 중심과 상응하는 기하학적 구조와 형이상학을 포함하는 서킷이다. 그러므로 몸은 기능적인 얀뜨라 중의 하나이다. 얀뜨라는 본질적으로 기하학적 구성이다.

그러나, 기하학적 상징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얀뜨라의 역동성을 파악해야만 한다.

얀뜨라는 도형의 정밀성과 추상성에 대한 조화 안에서 증가된 힘을 특정한 배치로 표현한다. 얀뜨라는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다양하다. 힌두의 하나하나의 모든 신들은 그들 자신의 만뜨라 또는 소리-음절(sound-syllables)을 고유하게 동반하는 얀뜨라를 가지고 있다.

꿀라르나바(Kularnava)딴뜨라에서는 '얀뜨라는 만뜨라에 의해 혼이 불어넣어진다' 고 말한다. 수행자가 영적 과정의 높은 단계에 이를 때 그는 특정한 얀뜨라를 이용한다.

적절한 만뜨라를 수반한 얀뜨라의 선택은 고도의 복잡한 과정이고 구루만이 구도자의 내면에 잠재된 상징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내면의 힘을 일깨워 극대화하고 신성을 향해 헌신하는 것은 신성을 일깨우는 과정과 함께 하나가 된다.

얀뜨라, 명상과 의례의 도구 상징
복잡한 형이상학적 구조 특징
170컷 이미지 제공은 이해 도와

그러한 행위는 신비를 이해하기 위한 신체적, 심리적, 영적 개화로서 보여 질 수 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한 힌두 얀뜨라 또는 힘-다이어그램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각각의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가 원래 형과 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변형을 통한 일련의 연속적인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입체적 형상을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변형은 빈두 또는 점,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원 등 순환하는 특정한 선형적 특성을 가리킨다.

얀뜨라에서 이러한 특성들은 구도자가 일정한 힘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된 사고-형태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얀뜨라와 같은 형상에 전적으로 동일시되는 것은 각 형태가 나타내는 본질적인 힘을 깨닫거나 해방시키는 것과 같다. 얀뜨라의 활용에 대한 배경 원리는 딴뜨라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각 얀뜨라는 만뜨라 음절을 들을 수 있는 힘의 시각적 패턴을 만든다. 그리고 각 얀뜨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힘-패턴을 포함한다.

얀뜨라와 만뜨라는 함께 구성하여 성단에 배치하는 행위에 의해서 창조되는 형태(build form),각 요소의 배열 자체로 보존되는 형태(conserve form),마지막으로 구도자로서 그것을 넘어 비상하며 내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해체되는 형태(dissolve form)가 있다.

김주일 기자

"원효 · 의상대사의 불교사상 … 동아시아에 큰 영향 미쳐"

화엄연기연구

김임중 지음 | 보고사 펴냄 | 2만원



원효 대사와 의상 대사는 한국불교사에 너무나 유명한 선지식이다. 이른바 신라불교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일본에서 대학원 유학시절 원효와 의상 대사의 전기와 설화를 소재로 한 〈화엄연기〉를 처음 접했다. 그 때 저자는 "온 몸에 흥분과 전율을 느꼈으며, 왜 이 두 선지식이 화엄종의 조사로서 에마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연구의 첫 출발을 토로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원효와 의상 대사의 불교 사상은 우리나라를 넘어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효 대사의 많은 저서는 일본 나라시대부터 전래돼 일본 불교 확립에 크게 공헌했으며, 이를 섭렵하고 참고해 큰 영향을 받은 학승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 두 선지식을 항상 추앙한 나머지 〈화엄연기〉라는 에마키까지 제작한 가마쿠라 시대 뛰어난 화엄승 묘에도 그 중에 한사람 이라는 것이다. 묘에는 화엄종 부흥에 진력한 인물이다. 이 책에서는 〈화엄연기〉에 묘사된 의상과 원효 대사의 전기와 설화를 〈삼국유사〉 〈송고승전〉 등과 비교 검토해 일본에 있어서 불교 설화의 수용과 전파, 상위점을 고찰했다. 또한 저자는 묘에에 있어서 이 두 선지식의 사상적 영향관계를 한국자료와 비교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서로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

이 책은 총 3부로 나눠져 있다.

제 1부에서는 〈화엄연기〉의 성립과 조사전에 관해, 제 2부는 '모에가 추앙한 원효대사' 란 주제로, 제 3부에서는 의상대사에 관련된 설화 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 책이 원효와 의상 대사라는 당대 최고의 선지식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초기 선종사, 경허당 연구 매진한 민영규 교수 탄생 1백주년 추모집

서여 사랑방 작은 인문학

민영규 지음 | 조흥윤 엮음 | 민족사 펴냄
1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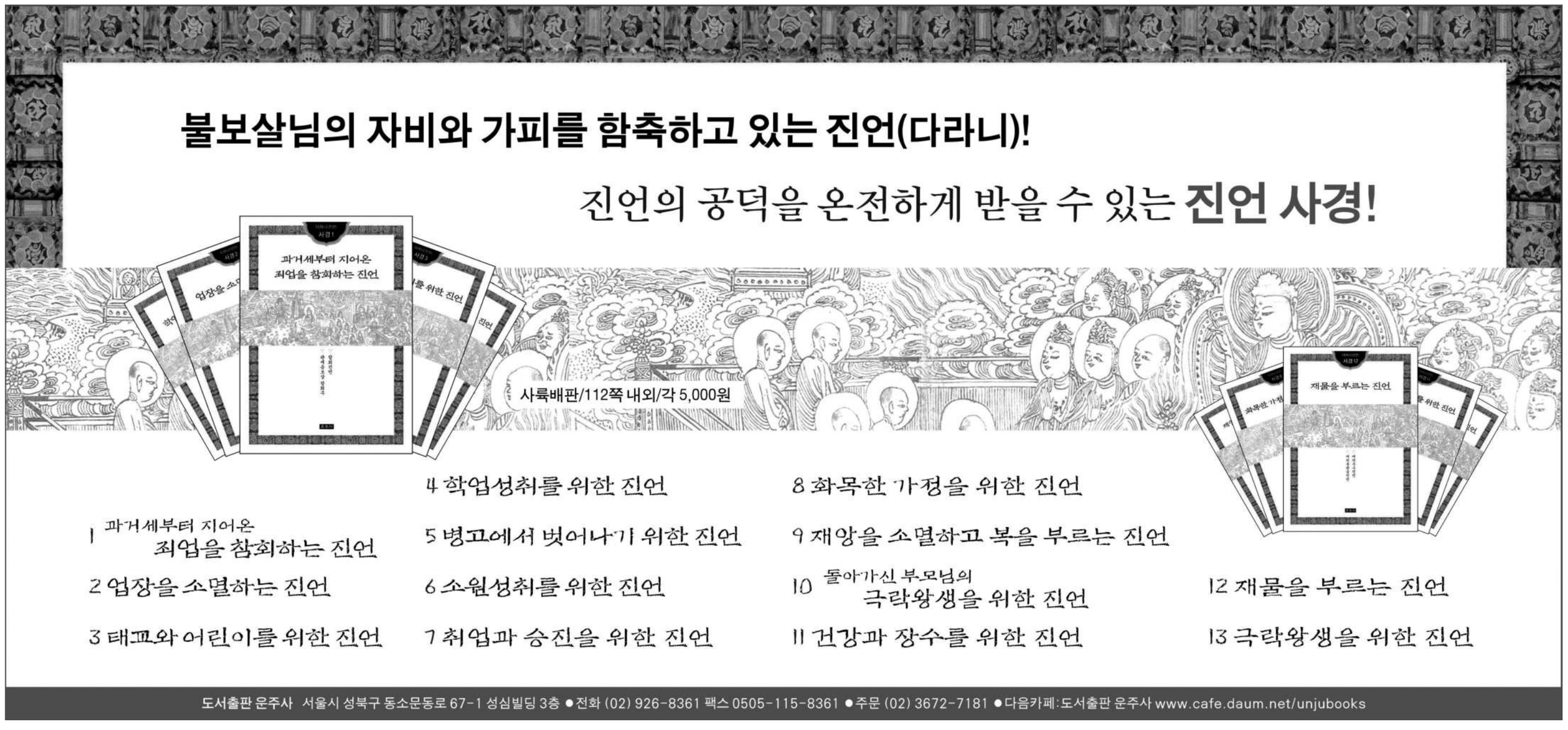


서여(西餘) 민영규(閔泳珪) 선생은 연세대 사학과서 정년을 맞고, 이후 명예교수로서 연구와 탐사에 정진하다가 10년 전 돌아가신 동양사학자 · 한국학자 · 불교학자 · 서지학자 · 강화학자 · 민족학자이다. 일찍이 연희대학서 위당 정인보 선생의 제자로서 조선조 우리 학문의 정신인 강화학(江華學)을 만나고 그 성격과 틀을 바로 세웠다. 그의 학문의 정신과 방법은 방대하고 정밀하거니와, 그의 주옥같은 논저는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년 후, 선생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모임인 사랑방이 형성되었다. 1990년부터 6년에 걸쳐 선생은 초기 선종사의 바른 법맥과 신라 · 고려 불교의 성격 규명을 위해 중국 학술 탐사에 나서고, 이어 그 정신을 계승한 근대 한국 불교의 경허당 연구에 매진하였다. 서여사랑방에서는 선생의 연구 주제를 자연스럽게 토론하였고, 선생은 그와 관련하여 세 차례의 강연을 가졌다. 이 책은 그런 것을 제자 조흥윤(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이 정리한 것이다.

선생이 구도자의 자세로 탐구한 것은 우리 선(禪)불교와 강화학에서 추구하던 인간의 발견 내지 인간 존엄의 회복을 위해서다. 중국 · 일본의 것과는 다른 우리 선불교의 바른 정신과 그 법맥, 의상-균여-일연-매월당-경허로 계승 · 전개된 인간에 대한 가없는 연민과 봉사의 정신, 이류중행(異類中行)의 길이 그의 주된 학문 주제였다. 그것은 강화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선생은 강화학 250년의 내력을 "모진 핍박과 극심한 곤궁 속에서 성취한 인간의 존엄과 그 발견의 역사"로 정리한 바 있다.

이 책의 글은 선생의 담론과 강연을 필요에 의해 정리한 것인데, 선생의 그런 학문 정신과 자세를 인연 있는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선생의 심혈인 글을 찾아보면 되겠거니와, 이 책에서는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리고 2015년 올해는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선생을 사모하고 그리는 이들이 기념하기 위해 펴낸 추모집이다. **김주일 기자**



과학과 불교

현대과학과 불교사상

자연과학, '연기와 空' 불교세계관에 접근

부처님 가르침으로 과학을 들여다보고 우주 만물의 성주괴공을 풀어 나간다면 현대과학 발전에 불교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천체 물리학을 비롯하여 현대과학의 첨단이론과 불교사상의 접점을 불교 과학자들의 시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문명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찾기'에 나서본다. 〈편집자 주〉



모든 생명현상, 성주괴공 원리
무상은 찰나에도 변화하는 의미
연기 성품은 '空', 色性空 성립



양형진
고려대 교수

오늘날의 우리는 뉴턴과 엥겔스 시대에 가능하였던 미숙한 자연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현대의 성숙한 자연과학이라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세계관을 마땅히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아주 다르다. 오늘의 우리는 우리 문명이 지니는 모순에 대해 그 반성적 기초를 지니고 있지도 못하고,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 속에서 서구 문명과 여러 면에서 그 맥락을 달리하는 동양적 세계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의 세계관은 여타의 다른 종교와 달리 자연과학의 성과와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합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물론 전 우주적 진리가 하나의 통일적 전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여러 표현은 물론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연과학의 세계상과 종교적 세계관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던 것이 또한 사실이다.

불교와 과학은 아주 이질적인 것처럼 보인다. 불교의 궁극적 관심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안고 있는 존재론적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혹은 그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자연과학의 관심은 자연세계를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잘 응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주제도 무척 달라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세기 이후에 자연과학의 세계 이해의 성과가 불교의 세계관에 접근하여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일체의 사물이 서로의 연관성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현대 과학의 성과 위에서 가능해진다. 이는 곧 불교에서의 연기론(緣起論)에 기초한 세계관을 자연과학이 예증해 주고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한 사람이 현대과학이 제시하는 세계상을 보거나 현대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불교의 세계관을 볼 때, 이 두 세계 사이에 놀라운 연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마치 큰 산을 오르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때, 그 각각의 길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길이 하나의 같은 산 안에 품어지는 것과 같다. 두 길을 따로 오르는 사람들은 정상에 다다르기까지 그들이 같은 산을 오른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지만, 정상에 이르고 나면 같은 산을 올랐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불교와 과학은 산에 오르는 방법 자체를 아예 달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치 헬기를 타고 산 정상으로 가는 방법과 밑에서부터 한 걸음씩 걸어서 정상에 이르는 방법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찰나멸론, 현대물리학서도 성립

불교 전체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무상과 무아, 연기와 공이 될 것이다. 무상에서 시작해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상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제행무상', 일체의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다 변한다고 하셨다. 왜 그런지를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부터 살펴보자.

우리나라에는 석회암 동굴이나 광산이 많은데. 이는 먼 옛날에는 그 지역이 바다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석회암은 산호나 조개껍질 등이 침전되어 고정되면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므로, 그 형성 시기에는 이들 지역이 조개와 같은 해양생물이 살 수 있는 얕고 따듯한 바다였다는 것이다. 히말라야나 알프스와 같은 고산 지역도 바다였다고 한다. 아프리카 대륙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밀어올린 게 알프스 산맥이고 인도-호주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면서 밀어 올린 게 히말라야 산맥이다. 이런 충돌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들 산맥은 지금도 조금씩 높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는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 같은 생명체의 흔적이 퇴적암 층에 새겨져 있다. 이들 지형은 수십 억 년 동안 진행된 지구 생명의 역사와 지각 변동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생명체가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 공룡 같은 것만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생명종의 수는 역사상 지구상에 언젠가 존재했었던 생명종의 천분의 일도 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지금 보는 생명종의 천 배가 넘는 종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생로병사하는 개개의 생명체뿐 아니라 생명종도 진화하면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적도에 있던 땅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면서 지구의 모습도 변해간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구의 자전이 멈출 수도 있고 태양의 빛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가 모두 성주괴공하는 무상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짧은 시간 동안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긴 시간 동안에도 변화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긴 시간이란 짧은 시간, 즉 순간의 모임 혹은 순간의 지속이므로 순간적인 변화가 없다면 긴 시간에 걸친 변화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뿐 아니라 찰라에 생멸하면서 변화한다는 의미도 또한 지녀야 한다.

인도의 논리학이 만들어 낸 이 찰라멸론은 현대물리학에서도 성립한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뤄져 있고 원자핵은 다시 무수한 소립자로 이뤄져 있는데, 그 소립자의 수명은 100만분의 1초가 안 된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성되고 순간적으로 소멸하는 소립자들로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 원자에 의해 우리의 세계가 이뤄지니,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전의 모습과 같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찰라에 멸하고 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순간순간 변하는 우주, 찰라에 생멸하는 우주에 우리는 살고 있다.

매순간 이뤄지는 소멸과 생성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개개의 사건이 아니라, 미립자 전체의 긴밀한 상호연관과 상호의존의 맥락 위에서 일어나는 무한한 과정의 한 단편이고 한 입자의 소멸이 다른 입자의 생성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과정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한 입자가 그대로 다른 입자로 변하면서 무언가가 그대로 지속되는 소박한 윤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건 무아를 부정하는 일이다. 여기서의 윤회는 한 입자의 소멸이 다른 입자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분리될 수 없는 전체의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멸과 생성은 지속되는 하나의 사건도 아니고 단절된 두 개의 독립된 사건도 아니다. 소멸하는 입자와 생성되는 입자는 같은 입자가 아니면서도 이어지는 입자, 불일불이의 입자다. 그래서 윤회하는 무아, 무아의 윤회가 성립한다.

생과 멸이 이렇게 무한한 과정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체의 모든 것이 무아이면서 서로 의존하고 서로 연관되는 세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소립자에서부터 원자, 분자, 세포를 거쳐 생명의 세계와 천체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상호의존과 연관의 구조를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계 전체는 무아의 존재자들이 모인 무상의 세계다. 이 무아와 무상의 존재자들이 서로 연관하여 의존함으로써, 즉 연기함으로써 세상이 이뤄진다. 이 연기의 세계를 살펴보자.

연기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개개의 존재자에 없던 속성이 상호 의존과 연관의 맥락 위에서 새롭게 발현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소와 산소 원자로 물 분자가 이뤄지지만 각각의 원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물 분자의 속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물 분자의 속성은 수소나 산소 원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수소와 산소 원자가 서로 의존하고 연관되는 관계의 맥락에서 창발되기 때문이다. 이 창발의 과정 때문에, 원자를 이해했다고 분자를 이해할 수 없고 분자를 이해했다고 생명물질을 이해할 수 없으며 생명물질을 이해했다고 세포를 이해할 수 없고 세포를 이해했다고 생명체를 이해할 수 없다. 역으로 보면, 사회나 역사나 문화는 개개인의 행위로 환원되지 않고 생명은 세포로 환원되지 않으며 세포는 물질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런 상호 의존과 연관의 연기를 경에서는 갈대의 묶음, 바퀴 등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수레, 목재와 풀과 볏짚과 공간으로 이뤄지는 가옥 등으로 비유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퀴 등의 부분이 모여서 수레라는 전체를 이루지만, 수레라는 전체가 없다면 바퀴는 바퀴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더 이상 바퀴라고 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퀴 등의 부분으로 수레라는 전체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각각의 부분은 수레라는 전체에 의해서만 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각각의 부분은 전체를 이루는 다른 부분에 의지해 있을 뿐 아니라, 전체는 부분에 의지해 있고 부분은 또한 전체에 의지하는 구조를 지닌다. 그게 연기의 구조다.

이 모두는 각각의 요소가 모두 무아무실체이기 때문에 벌어진다. 92종의 원자가 모두 변치 않는 그 스스로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면, 세상은 92가지의 다양성 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92종의 원자가 모두 무아무실체적이어서, 수소 원자가 산소 원자를 만나면 물이 되고 탄소 원자를 만나면 메탄가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의 다양성이 가능해진다.

원자에서 분자, 생명물질, 세포, 생명체, 생태계를 거치면서 그 각각의 단계의 존재자들이 모두 무아이기 때문에 무한한 상호의존과 연관의 가능성, 무한한 연기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모든 존재자가 무아무실체적이고 무자성하기 때문에, 그 모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모두 연기의 구조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연기하는 존재자의 성품은 그 자체가 공한 것이다. 이렇게 색의 성품 자체가 공하기 때문에, 색성공(色性空)이 성립한다. 따라서 공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뭔가 있어도 언젠가는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것도 아니며, 뭔가 존재하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현실의 세계가 색이고 이상의 세계가 공이라는 것도 아니다.

공이란 존재자의 성품이 그 자체로 공하다는 것이어서 언제나 색과 함께 하는 공, 곧 중도의 공이다. 우리가 숨 쉬는 이 세계는 무아와 무상의 존재자들로 이루어진 연기와 공의 중도의 세계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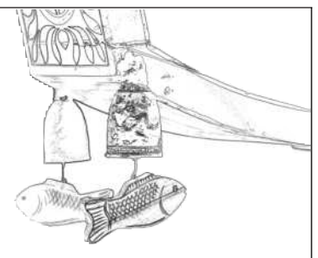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만난다.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만난다. 내게도 업보가 오지 않으리라'라고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 음 범 패 대 학
대한전통불교범음범패대학
작법,천수바라,법고
(송주북,정근북,태징)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번지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010-8741-8200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정확한 방편술 책자를
4주년 기념하여
25만원을 80% 할인하여 5만원에
선착순 100분께 드립니다
010-4735-3232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침구술 배우실 분
명 리 배우실 분
개인지도
(활인사 주지 직강)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2번출구
02)3487-2311

청 소
- 이사,입주,상가,
공장,사찰 청소
- 제초,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코끼리청소 1566- 8986

극락행 회원 모집
* 깨달음을 얻고 사후에 부처님 광명의 빛을 따라 극락세계를 염원하는 수행자 불자
- 극락으로 가는 우주행표나 싸인받고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혜안을 열고 깨달음을 원하십니까?
- 조상천도나 업장소멸이 잘 안됩니까?
- 빙의,신병,정신분열,치매,암등 확실한 치유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태양계 일광 부처님으로 부터 사바세계 최초 대우주 신통력을 받은 비구승입니다. 지금의 기도와 수행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업장소멸이 되지 않으며 사후 극락왕생 할 수가 없다. 부처님의 우주광명 신통력으로 업장소멸과 가장빠른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불교와 신통력을 공부하고 연구하실 분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불교문화강좌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육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부전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2517-5623

부전스님,
공양주 모십니다
(밀양 삼랑진 삼봉사)
010-4484-5758

신심있는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875-6317

공양주 보살
님 모십니다
(경북 안동,
부부도 가능)
010-8576-4450

불심이 돈독한
비구니 기도스님
과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10-3579-6444

무보수로 산사에서
가족처럼 초연한
삶을 살아가실
공양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남 창녕)
010-3753-7844

정월 한달만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김해 장유 신도시지역)
* 일웅스님을 찾습니다
010-3499-3721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031-842-1070
010-9944-1075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공양주 구합니다
(65세이상)
진주에 있는 조용한 절 입니다
가족처럼 계실분 연락주십시요
010-4450-2500

인과의 업장소멸 해법
만사 만생의 고를 풀어가는 글문 비방
- 불치병(병명無)
- 빙의(신병)
- 사업,소원,가정사상담
- 알수 없는 풍수탈
- 인생의 고는 인생방정식의 해법으로 답을 찾자
- 번뇌 해탈은 불정사에서
불정사 도정 치우 합장
051-558-5585. 010-4593-2918

선묵화 및 한문
3월3일 개강
-혈맥론강의(한문이해)선묵화
-화,목 오후3시 강,선묵 합2시간
-수강료10만원. 주2회강의 (6개월수료)
-강의장소 : 경남 합천 (불참시 전화,메일 개별교습)
보림사 금강학림
010-3749-4553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값 3만원 / 농협 박근창 032-02-024451
스님과 불자님들이 읽어야 함.
홍증법사 100일 법문
능엄경 중심으로, 영가천도, 조상숭배 실천
무엇이든 물어보셔요
꿈바위교육원 010-6789-5008

암 병고액난 상담치유
- 암, 간질(천병),정신병(미친병),귀신병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분 치유상담
- 풍파가 많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분 치유상담
불광사 해산스님 010-7321-0404. 010-4034-5829

실전 방편술
명리와 귀장술 - 1개월 완성
기초를 알면 - 1주일 완성
사찰운영 하시는 스님, 보살님 무속인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 성불을 받는가? 정확하게 답해 줍니다.
호산 합장 010-4540-0061

염불해
드립니다
(무유스님, 비구)
010-8396-4338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퇴마(빙의) 최면, 심리치유 (개인지도 및 상담)
상처받고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를 풀어드립니다.
퇴마, 빙의, 우울증, 불안, 분노, 공포증, 자신감 향상 등 감정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풀지 못하는 현상들 치유가능.
* 퇴마 배우실 분은 (스님 및 무속인에 한함)
(佛)대한불교조계종 약천사 /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산 87
전화 055)584-3326 팩스 055)584-3327
손전화 010-3156-6414

불 교 의 식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점안식,
각종행사를 봉행합니다
범음범패, 바라춤, 작법무, 살풀이, 극락무, 회심곡
다보사 주지 성원 합장
010-4802-3290

영가 찾는 법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 성대시장)

멸빈 제적 및
사찰등록 취소 공고
• 속 명 : 김상용 • 법명 : 진광
• 승려번호 : 1060-083
• 사 찰 명 : 진수사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로 67(십정동)
위 상기자 및 사찰은 본 종단 종헌종법 제72조 (2)항 및 사찰등록법 서약서 ⑦항에 의거 종단이 추구하는 사상과 이념에 반하거나 또는 기본궤도를 이탈하여 종단발전의 저해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승적멸빈제적 및 사찰등록을 취소하며 승가에 피해를 줄 위험이 사료됨으로 참고바랍니다.
2559년(서기2015) 1월 27일
대한불교약사조계종 총무원장

2015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7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6기까지 전국에서 8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2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 보살이나 신도회장 보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 개강일자 : 2015년 3월 3일(화요일) 오후 1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불교사업에
투자 하실분
1.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상대로 현재 진행중 소자본 1억에서 3억으로.
• 고소득 보장 월 소득 투자금 1억에 1천만원 가능.
• 매일 매일 소득보장. 투자금에 대한 담보 가능 돈을 벌고 싶으신분.
• 직접 방문 요함.
2. • 납골 봉안당 투자 하실분.
• 경기 남부 지역.
•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오천구 허가필.
• 자세한 내용은 전화 바람.
■ 문의전화 : 안성 백련사 031)673-7227
Business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어른을 존경하고 어진 이를 받들며 가르침을 받으면
오래 살고 아름다워지며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진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 시내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바다 전망
- 총부지 : 5,000여평
- 주거지역 800여평
- 자연녹지 4200여평
- 좋은 조망권 드넓은 사찰부지
- 가액 : 15억원(은행 3억원 포함)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및 요사채 87평
- 세계불교박람회(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멋진 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만원 인수 (은행 5억 별도)

부동산 등기 관련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무료상담
※전국사찰 30년 역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부동산 등기 관련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무료상담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 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좋은 조건 급사찰 양도
- 시유지포함 1.000㎡, 주차가능
- 양도금액 : 5억2천만원 이나 적은금액으로 인수가능함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4억 3천(절충가능)

010-3186-0361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 3층건물중 1층 45평
- 삼존불, 소불 140불정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9988-724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서울
◎ 부지:700평 ◎ 대지:60평
◎ 법당:40평 ◎ 법당:30평
◎ 요사:30평 ◎ 요사:40평
◎ 양도:9억5천 ◎ 매가:8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대구 운영 잘되는 선원(급) 임매
* 법당, 요사채 있음. 단층건물
* 아파트 상가지역,포교에 좋은 사찰
* 보증금 : 6천5백, 월180만원 / 시설 5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강남 중심지 법당, 포교당임대

- 위치 : 논현역, 신논현역중심가.더블 역세권 지역
- 지하철 9호선 신논현-종합운동장구간 3월개통
- 교통편 좋고 유동 인구 많음
- 단독주택, 쇼핑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마당, 아담한 토굴법당
- 주택내부 올수리(수리비내역서있슴)
- 지상 1층,반지하1층(내부계단있어 편리)
- 법당2/스님방1/거실2/주방2/상담실/산신각/다용도창고/화장실2
- 스님들 행사문제없음. 포교원으로 시작하기 좋은자리
- 가액: 6,500만원, 월세 180만원(주변시세보다 저렴)

010-5913-7239
010-3145-8626(종무소)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
- 대지 740평, 건물 150평
- 가액 : 양도는 8억
- 세는 1억에 100만원 전세도 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031)358-6701

포교원 선원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2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약 50평, 큰 선방1, 방3개, 거실 및 주방
- 정남향, 조용함, 명상센터로 최적지, 주차장 있음
- 깔끔, 최신인테리어, 냉방, 바닥 필름 난방
- 가액 : 전세 1,500만, 월 6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9317-919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월드컵대로변
- 평수 : 50평, 5층 건물중 2층
- 보유내용 : 삼존불, 신중,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 시설비(답사후결정)
- 바로입주 가능

010-2485-87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춘천 및 경북 영주
- 춘천 3,600평 3억 6천 주변시세 반값
- 요양원 사찰건축 가능
- 경북 영주 2,500평 18억 복지원 요양원
- 현재 사찰운영중
- 모든 조건 완비(대출가능)
- 추모관, 납골당 설치시 40억정도 수입창출 효과

010-4880-7890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남구 용현 2동 시장 앞
- 평수 48평, 3층 중 3층
- 법당 20평, 삼존불, 요사채 1, 화장실
- 버스정류 노선이 많아 교통 편리
- 가액 : 3억(절충가능)

010-7240-9200
011-795-9300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 평수 230평, 대웅전 15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 밀양IC 근교(비구니 스님 환영)
- 가액 : 2억 3천(가격절충)

010-3801-532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 3층 60평, 삼존불, 삼성각, 용왕전
- 방3칸, 공양간, 상담실
- 시설완벽
- 가액: 보증금 2천만 월70만
- 시설비 2천만원

010-6795-156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미조면
- 평수 : 대지 251평
- 법당 1, 요사채 1, 창고 및 넓은 텃밭도 있음
- 특징 : 탁트인 넓은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곳으로
- 다섯봉우리가 싸고 있어 수행하고 공부하기 좋은 곳
- 주차공간 있음
- 가액: 3억 4천(절충)

010-2401-7754

부산 포교당 최요지

- 위치: 연산동 연수대로변
- 8층 건물 중 1층 주차장, 4층 법당, 건물평수 40평, 엘리베이터 사용
- 수미단, 삼존불, 후불탱2점, 영단, 인등 방을, 도시가스 난로 3개, 온수기 2대
- 북박이3, 필름난방, 싱크대, 조리대 새것
- 칸막이 작은 창고 몽땅 5백만원
- 재료값만 천만원 넘게 소요됐음
- 종잘이 나와서 급히 갑니다 (현재 비어 있음)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 60만원 관리비 13만원

010-4466-3575

선원(암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명동
- 조건: 대로변 단독 단층
- 법당1, 방3, 주방1, 실내화장실2 욕실 유
- 울창한 정원 10평 끼고, 마당화단 유
- 도심속 산중같은 암자(약55평)
- 시설비:법당 집기일체, 에어컨3대, 세탁기 김치냉장고, 목각 8층탑 등 (답사후 조건 합 당시 결정)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20만원

011-505-9509

기도 도량 최고 청정도량

- 투자하실분
- 매입하실분
- 자세한내용은 전화하세요

010-3938-6595
010-5099-1398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마산시내 중심 포교원

- 위치 : 마산
- 별도의 수리없이 바로 법회 가능
- 법당 50평, 삼존불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9325-7286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평수 : 임야 4,500평(금강송 소나무)
- 특징 : 노적봉이 있는 좌천룡 우백호 앞은 저수지요 좌우는 큰 계곡물이 흐르는 백두대간 혈자리가 맺힌 기도처
- 교통 : 동해바다와 고속도로 IC 5분거리 경관이 수려함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평당 3만원)

010-3531-5562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오류 1동 오류역에서 15분거리
- 전체건물 70평인 다세대주택 4층 건물(반지하1층) 301호 법당 사용중 201호, 302호는 요사채 사용
- 법당평수 25평, 오존불
- 가액: 전체건물 8억 (2억 7천 전세놓은 것 있음)

010-7240-9200

사찰(터) 안내

- 안대(지리산이 환히 보임)가 좋은 양지 바른 땅 1605평(답) 급 양도
-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621. 622. 623번
- 지적도상 맹지, 2차선 도로와 약 50m 떨어짐
- 독립된 공간, 근경에 저수지, 폭포 쏟아진 바위
- 50년 넘은 소나무로 둘러 쌓여 있음 가격은 상담 후 절충

010-3519-59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파도소리가 들리는 천하절경 세 놓습니다

- 위치 :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길 82-5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010-7475-0474
010-8643-52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시내
- 평수 : 약 270평
- 법당(대) 30평, 법당(소) 15평
- 요사채(스님거주), 공양간 15평
- 산신각 2평
- 가액 : 4억 2천만원
- 꼭하실분 (업자 사절)

010-9800-7575
010-2372-768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구포시장(농협:구포지점↔신협)
- 역세권: 공항, 열차, 지하철, 버스 5-10분거리
- 50평 2층건물(법당 올수리)(옥상단독사용)
- 시설: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칠성, 산신, 용왕
- 소불 200불, 좌대법고 中1, 大1, 경명탑다라니 액자 大1
- 친견실1, 객실2 공양간식당1, 남 여 해우소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난로, 온수기, 난방시설 30평 유료주차장 요금전액 입차인 관리(월주차, 일주차)
- 지장도량, 즉시법회, 집기일체, 몸만오세요! 민원없음!!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600만원

010-5348-256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2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약 50평, 큰 선방1, 방3개, 거실 및 주방
- 정남향, 조용함, 명상센터로 최적지, 주차장 있음
- 깔끔, 최신인테리어, 냉방, 바닥 필름 난방
- 가액 : 전세 1,500만, 월 6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9317-91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춘천 및 경북 영주
- 춘천 3,600평 3억 6천 주변시세 반값
- 요양원 사찰건축 가능
- 경북 영주 2,500평 18억 복지원 요양원
- 현재 사찰운영중
- 모든 조건 완비(대출가능)
- 추모관, 납골당 설치시 40억정도 수입창출 효과

010-4880-789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건물 : 4층 건물중 3층 약 50평 마루바닥
- 구조 : 법당, 삼존불, 지장불, 관음지장소불(약 200불)
- 방3칸, 공양간, 샤워실 및 화장실 남,녀
- 가액: 일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물 2,5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

010-5364-0038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포교원 안내

- 위치: 대전시 동구 용전동
- 구경하시고 결정하세요
- 68평, 마당에 '관세음보살' 있음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45만원 (보시하는 마음)

010-5213-9749

포교원 안내

- 위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바닷가 어시장 부근
- 2층 40평, 칠보, 삼존불
- 가액 : 전세 500만원 달세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8507-9892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내 역세권
- 대지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 도심속 조용한사찰
- 가액 :15억
- 대구시내 근교 1억5천에서 40억까지 다양한, 사찰
- 포교당 상담가능함 (중계보조원)

010-5534-723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안동
- 부지: 종교 996㎡. 전체 4872㎡
- 건물 2동 철골주 콘크리트 양옥 (1) 단층 건물- 117.13㎡ (2) 2층 건물- 1층 100.82㎡ / 2층 66.03㎡
- 특징 : 정남향 일조건 최상, 우측 실개천 사철 졸졸
- 작은연못 백련 유실수 다량
- 식수: 지하수, 난방 : 기름 화목 겸용 보일러
- 포장 도로, 보안등 설치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탱화
- 사찰별장, 요양시설, 전원주택 최고 조건

연락처 : 010-3131-2185

토굴(암자)급 안내

해외 이주 관계로!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산사 조용한곳
- 대지 약300평 법당.주차장넓음
- 요사채.방 4개 거실. 화장실
- 법패 제 할 수 있는곳.
- 관세음보살(칠보) 석가모니불. 지장보살.특수후불.칠성. 감로탱화.시설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시설비-1,300만원

010-9945-2030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176-7번지 동부시장내 상가 2층 전체
- 특징: 춘천 동부 중심지에 위치하여 생활권 및 교통버스 중심권
- 대법당, 산신각, 공양간, 상담실, 요사채
- 각실마다 냉난방 완비 살림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물포함가 3,0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010-9235-7513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약사여래 기도 도량
- 주차편리한 대로변
- 포교에 최적지이고 완벽한 시설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8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010-6303-234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수영구 광남로 최고요지 큰 도로변
- 포교원 3층 건물 2층, 넓은 50평
- 화장실 2, 방2, 주방(최고시설)
- 보증금 1,000만원 7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1-9279-3628
051-755-277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시내
- 평수 : 60평
- 법당, 친견실, 공양간 등 예쁘게 꾸며져 있슴
-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법회즉시 가능
- 초대형 극장식 간판, 미니 실내정원
-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전세로 조절 가능) 시설비 1,700만원

010-8616-57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대출 3억 안고 양도 4억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반송2동 22-37번지 사거리 입구
- 평수 23평, 집기시설 일체, 몸만 오시면 됨
- 스님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 20만원 집기일체, 시설비 1,000만원

010-4680-932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뒷 갓바위
- 평수 : 약 70평 2층
- 관세음, 지장, 산신, 후불, 칠성, 신중, 산신, 반야 용선 탱화 기타 집기 일부
- 좋은 장소 입니다
- 가액 : 보증금 35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4766-3200

트라우마 사용설명서

마크 엡스타인(정신과 전문의)

〈6〉 기쁨의 발견

‘자기 발견의 기쁨’ … 붓다는 순간을 포용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다

붓다의 고행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견해는 붓다가 고행을 매우 격렬하게 했다는 점이다.

고타마는 자기 욕망을 굴복시키고, 모든 유혹에서 자신을 격리하고, 의도적으로 자기 몸을 학대해서, 본능적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고 신의 경지로 도약하기를 원했다. 고타마는 자신을 완전히 쥐어짜는 경지에 거의 다다랐다. 함께 수행한 다섯 동료들의 반응은 대단했지만, 다른 한편 황홀한 지복을 이끌어내는 그의 고유한 능력은 거의 고갈될 지경이었다.

붓다의 이야기의 이 지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초자연적인 현상은 아니고 단지 순간적인 생각이 붓다를 스친다. 위니컷은 말년에 치료사로서 자기 역할을 얼마나 원숙하게 잘 수행했는지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환자는 창조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즐겁게 이해에 도달한다.” 이와 비슷한 일이 붓다에게도 일어났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저절로 고타마 마음의 표면으로 부상했다. 난데없이 어디에서인지도 모르게, 잃어버린 기억이 떠올랐다. 고타마는 소변을 보기 위해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자신의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갔다. ‘자기 고문’으로 수년을 보내 두 발로 서지도 못할 지경에서 붓다는 소년 시절을 회상했다. 햇살이 눈부시고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느 날 어린 고타마는 잠부나무 아래에 행복하게 앉아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농부가 일을 하고 있었고 고타마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쟁기질로 곤충, 알, 벌레 들이 찍혀 나가던 모습도 기억났다. “마치 자기 친지들이 죽는 것처럼 이상한 슬픔”에 사로잡힌 어린 고타마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불행한 생물에 대한 연민이 솟구쳐 올랐다. 어린 고타마는 곧 자비로운 마음을 가득 품고서 그 아름다운 하루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순수한 즐거움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이런 기분이 온몸으로 번진 채 잠부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니, 자기가 수액으로 가득 찬 나무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자기 고행’의 최고 지점에서 갑자기 이런 기억에 사로잡히는 것도 특이하지만, 더욱 기이한 사실은 이것이 붓다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불안은 무엇에 대한 불안일까?’ 붓다는 의문에 사로잡혔다. 이 의문은 붓다의 호기심에 불을 댕겼다. ‘내가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호기심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붓다 수행의 특징이 되었다.

그 이후의 자기 분석에서, 붓다는 잠부나무 아래에서 맛보던 기쁨은 자신이 추구하던 깨달음의 핵심적인 그 무엇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런 기쁜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기 전까지 붓다는 계속해서 모든 감정을 정화해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와 연결되기 위해 인간의 신체를 떠나서 자신을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때까지 해리의 방어기제가 무의식적으로 붓다의 수행 방법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다. 내 분석으론, 출생의 지복을 견뎌내지 못한 어머니의 무능력을 내면화한 붓다는 어머니와 같은(육체를 버리고 천상을 택하려는) 욕망에 휘둘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부채질하면서 자기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했다. 포기하려 했던 지복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한 기억을 잘 살펴본 다음에 붓다는 마음을 바꾸었다.

“왜 내가 그런 쾌락을 두려워하는가? 그 쾌락은 사실 감각적 욕망이나 유해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은가. 그러고서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런 쾌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각적 욕망이나 유해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붓다의 비판적 통찰이자 영적 여행의 핵심 포인트다. 그때에 비로소 붓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성스럽다고 여겨지던 겉모습에 유혹되지 않았다. 붓다 자신의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면 스스로 ‘자신의 등불’이 되었다. 붓다의 기억은 중도(中道)의 기반이 되었다.

붓다의 중도는, 감각적 집착과 자기혐오라는 양극단의 사이에서 발견한 길이다. 중도는 새로운 발견이다. 이때 비로소 붓다는 당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새로운 ‘자기 탐구법’을 개발해 자기만의 성스러운 길을 가기 시작했다. 이때에 이르러 붓다에게서 해리 방어가 해체되고, 위니컷의 표현대로 붓다가 자신의 “창조적이고 광대한 즐거움과 함께하는” 깨달음에 도달한다.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들

붓다의 발견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의미를 지닌다. 현대사회에도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증오’ 또는 ‘자기 부정’을 거듭 시도하면서 스스로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거식증 환자는 붓다가 음식을 거부한 만큼의 강도로 먹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마저도 거부하는데, 자신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강박적인 조절 욕구로 대체한다. 다소 뚜렷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최근의 내 환자가 그렇다. 이 환자는 40대 후반의 남자다. 연설원고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남몰래 오랫동안 동양의 영성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는 불교를 배우고 싶다며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무언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의식이 들 때 그것이 무엇이든 편안하게 대하라고 했다. 그는 대단히 놀라워하며, “저는 그런 의식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기 전의 붓다처럼 그 남자도 자기한테서 도망치기를 원했고, 명상이 주는 이완을 좋은 휴식과 비슷한 것이라고 상상했다. 내가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렷한 의식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자, 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했다. 하지만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숲 속을 걸으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있는지를 느끼고서는 감동을 받았다. 그가 추구하던 휴식은 인식을 최고조로 올렸을 때 오는 것이지 인식을 줄여서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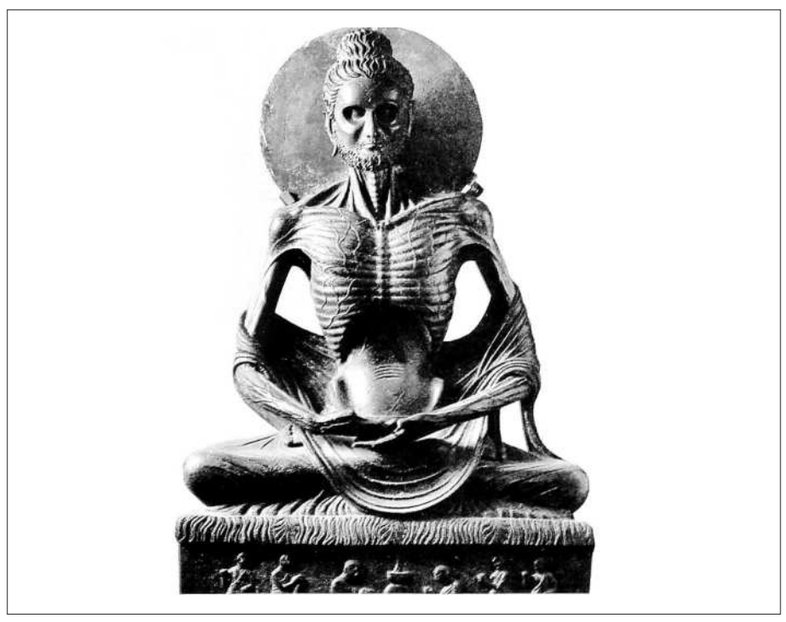
극단을 거부하는 붓다의 이런 모습은 우리 문화의 또 다른 경향에 대해 말해준다. 우리는 일상에 내재한 근본적인 트라우마에서 도망치려는 경향 때문에, 중도를 지키고자 하는 붓다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 내가 안거 기간에 토스트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감각적 쾌락을 쌓는 데로 눈을 돌린다. 우리는 이제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소비할 수 있고, 실제로 필요한 것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가락 하나로 살 수 있는 시대에서는 거대해진 욕망이 마음을 지배한다. 우리는 자신의 소유물과 열망에 들러붙어 있다. 이는 ‘정상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의 또 다른 표현 양상인데, 붓다는 그런 태도를 조심하라 일렀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이 되고자 한다. 우리는 ‘편치 않음’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보다 미묘한 기쁨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워 한다. MIT의 셰리 터클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바와 같이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강박적으로 타인과 접촉하려 애쓰지만, 타인과의 더욱 깊은 ‘대화는 피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

감각적 집착 · 자기혐오의 양극단서
붓다는 중도 발견하고 깨달음 얻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편안히 대하는 것이 중도의 첫 걸음

깨달음 혹은 감정의 귀환

붓다는 아마도 셰리 터클의 말에 동의할 것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던 바로 그 순간, 붓다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 위를 쳐다보고, 강박적 ‘자기 몰두’에서 스스로 벗어났다. 그 역시 평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자기가 상상하는 최고의 성인이 되려 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붓다는 깜짝 놀라는 체험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 종종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호기심이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었다. 붓다는 자기의 두려움을 직시했고, 그 두려움이 별것 아님을 알았다. 붓다는 수주 동안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는 깨우침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붓다는 초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사와 그 대화를 수년 동안 계속했다.

붓다는 ‘자기 탐닉’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측면에서 오류를 범했지만, 붓다 깨달음의 핵심은 양쪽과 모두 연관이 있다. 어릴 적 기억이 올라올 때까지 붓다는 해방의 씨앗이 이미 자기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떠오른 기억 덕분에 붓다는 마음을 재조정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여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했다. 잠부나무 아래에서 기억한 기쁨이 쾌락을 맹목적으로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면, 또 그 기쁨이 감각적 쾌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기쁨은 붓다 자신의 본성에 내재한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수액이 모조리 말라버린 나뭇조각이나 돌이 될 필요도 없고, 육체와 정신의 기반을 해칠 필요도 없었다. 이런 기쁨이 깨달음의 열쇠가 되는 것이라면, 깨달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변해야 했다. 그렇다면 붓다는 이런 기쁨의 기억을 해방의 길로 나아가는 안내자로 어떻게 활용했는가? 붓다는 그 기쁨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쁨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탐색했다. 그는 그 기쁨을 내적 대화의 대상으로 끌어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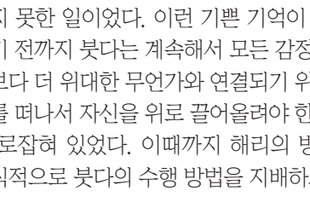


붓다가 결정한 제일 첫 번째 일은, 자신의 기쁨을 지속하길 원한다면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라빠진 몸으로는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약간의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면?” 경전을 보면, 이때 수자타라는 젊은 여성이 붓다에게 쿰마사라는 죽을 약간 가져왔다. 음식을 먹고 나서, 붓다는 이전의 화려한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문제를 해결했다. 붓다는 중도를 택하기로 결심했다. 붓다는 자기감정, 육체, 생각에 휘둘리지 않았을뿐더러 그것을 제거하지도 않았다. 이해가 깊어졌고 애매한 것을 폭넓게 관용했다. 명상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방식도 극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마음으로 마음을 부수는 것을 추구하는 대신, 어린 시절의 기쁨과 그 기쁨이 촉발한 호기심이 자신의 명상 기법에 스며들어 영향을 주게 했다. 붓다는 이미 시작된 ‘자기 질문’을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엄격한 태도를 완화했다. 조심스럽게 잘 관찰하기만 하면, 쾌락으로 추동된 사고와 감정도 자기를 충동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것들은 흐르는 물의 거품처럼 마음의 표면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붓다는 쾌락으로 추동된 사고와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 내용에 사로 잡히지 않으면서 더 깊은 기쁨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 기쁨은 잠부나무 아래에서 어린 시절 자신이 우연히 발견했다가 잊어버린 기쁨과 정말 유사했다. 또 자신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에게 생겨난 황홀한 지복으로 가는 기쁨이었다. 깨달음 이후 시간이 흐른 뒤, 붓다는 이 새로운 방법을 ‘마음챙김’이라고 불렀다.

붓다의 발견은 그에게 권능을 주었다. 얼마 뒤 붓다는 현재의 부다가야로 가서 네란자라 강가의 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 붓다는 밀려오는 진리들로 충만해졌다. 그중 제일은 스스로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이었다. 붓다의 전기 작가 중 한 사람인 카렌 암스트롱이 언급한 바와 같이, 더는 자신의 실패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반성해 인식했다. “마음의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함이었다. 해리의 날들은 지나갔다. 대신 그 자리에 새롭게 형성된 능력이 들어섰다. 그것은 위니컷이 환자에게 자신의 지적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부수고 환자가 ‘자기 발견’의 기쁨을 누리도록 기다려주는 것을 배우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현명해졌다고 느끼는 기쁨보다 환자가 스스로 발견하는 이 기쁨을 더 즐긴다.”고 위니컷은 썼다. 붓다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견했다. 기쁨을 즐기면서 마음이 펼쳐지도록 했다. 이제 더는 어쩔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이 본래 악하다는 믿음에 고문을 받지 않고, ‘장래의 붓다’는 어머니를 불안하게 만든 황홀한 지복의 순간을 포용한다. 이 기쁨으로 스스로를 지지하고 인간성을 회복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여행은 더욱더 탄력을 받는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트라우마 사용설명서〉(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어린이 마음거울

긍정적이고 싶다면 발걸음부터 바꿔요

윤지원 엮음(조계종 포교원장)



나는 새로운 일도 두렵지 않아요

I am not afraid of trying new th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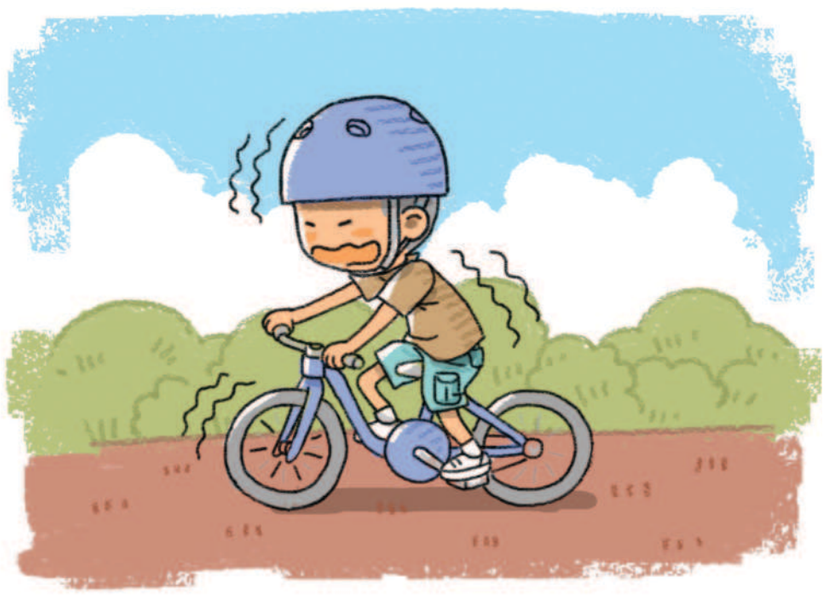
두 발 자전거를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은 없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든 능숙하게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중심 잡는 법을 익히면 됩니다. 그보다 먼저 익혀야 할 것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무릎이나 팔이나 얼굴에도 상처를 내야 합니다. 아파서 큰 소리로 울어봐야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새롭게 만나는 일은 어쩌면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겁이 나서 도전하지 않거나 실패했다고 쉽게 포기한다면 아무 것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 '이건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와 같은 말은 자기를 믿고 존중하는 어린이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울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에 성공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새로운 일을 할 때 망설인 적이 있나요? 무엇 때문에 그랬나요?



어떤 일을 하든 '나는 잘할 수 있어' 하며 나를 응원하겠어요

I will always remember that 'I can do it.'

에밀 쿠에(Emile Coue, 1857~1926년)는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치료사였습니다. 어느 날 쿠에가 잘 아는 사람이 약국에 와서 통증을 호소하며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쿠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파서 견딜 수 없다며 애원했습니다. 쿠에는 통증과는 아무 상관없는 비타민을 주며 '오늘은 일단 이걸 먹고 내일은 꼭 병원에 가라' 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길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쿠에는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쿠에가 준 약을 먹고 통증이 아픈 듯이 나아서 병원에 갈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면 좋아질 것이라고 철석 같이 믿었기 때문에 아픈 게 나았던 것입니다. 쿠에는 이 효과를 정신에 적용시킨 '자기암시 법칙' 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아지고 있다' 는 말을 자꾸 되뇌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인디언의 속담에도 생각한 말을 만 번 이상 되풀이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실제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우선 겉모습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 큰 사람은 겉모습부터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발걸음은 활기차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넘치고 눈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겉모습이 갖춰지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공하지 못할까 봐 겁을 먹은 적이 있나요?
* 긍정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해 보아요.



착하고 지혜로운 나의 참모습을 지켜 나가겠어요

I will always encourage the wisdom and kindness that's within me.

중국의 현인인 맹자(기원전 371년경~기원전 289년경)는 '사람은 원래 착하다' 는 '성선설' 을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 가지 훌륭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측은지심),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수오지심),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사양지심),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시비지심)입니다. 맹자는 마음 착한 사람들이 악하게 변하는 이유는 돈이나 물건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한 루소(Jean-Jacque Rousseau, 1712~1778년)도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영향을 받아 악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법화경에서도 '어떤 사람이든 부처의 마음을 갖고 있다' 고 했습니다. 많은 성인이 말했듯 우리의 참모습은 선하고 지혜롭습니다. 아름다운 참모습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 나가야겠습니다.

* 여러분은 어떨 때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 사람들은 왜 착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 원래의 착한 마음을 잘 지켜 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칠성상회 02-879-2007 무료배송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엑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듯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대행 스님

일체를 내 모습과 둘 아니게 등글려서 주인공 하나로 보라!

(지난 호에 이어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 앞에 봉투를 갖다 놓고 "스님!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하고 말씀할 적마다 아이, 참내! 앞에 봉투를 안 갖다 놔도 될 수 있는데 봉투를 갖다 놓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여건이 있죠. 하나는 보시금이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쓰는 거 아끼지 않고 다만 얼마라도 갖다 놓는 거, 자기는 정성의 마음으로 갖다놓는 거. 그건 하늘이 다 아는 얘기니깐 내가 주제넘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갖다 놓고 안 갖다 놓는 걸. 거기 갖다 놨을 때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는 나를 갖다 준 것도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은 나를 가져다 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를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부처에 갖다 놓은 겁니다. 모습이 둘이 아니요, 와서 나를 만날 때는 자기 모습과 내 모습이, 자기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불이 켜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이 아닌 한마음에 갖다 놓은 거지, 부처님한테 갖다 놓은 거지, 우리 모습 육신 잘 살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부처님 스승에 의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잘 구석구석에 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 주니까, 써 주니까 그 돈을, 갖다놓은 사람들은 그 인연으로 인해서, 그 정성으로 인해서, 그 실천으로 인해서 모두 부모의 조상도 갇혀 있던 게 풀려나게 됩니다. 천차만별의 갈래갈래 모습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그 자체가 그냥 업이죠. 그 속에 들어서 헤어나질 못하고 가지가지 모습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만 극진히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다 은근히 풀려 나간다고 그랬는데 집안에 어떠한 큰일이 있으면, 유전성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건 대대로 내려오면서 유전이거든요.

그렇다면, 무거우면 두 손으로 다 들듯이, 한식구가 다 이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관하고 이럭한다면 한울이, 제불(諸佛)이 껄껄 웃으면서 더불어 같이 한자리 할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자식들도 돈으로만 해결해서 먹이기 잘하고 입히기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거 관하는 것만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뭐든지 거기에서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깐요. 그러니 보배를 찾아 줌과 같죠.

돈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한 번만 잘못되면 그냥 왕창 다 없어져 거지가 돼 버리고 마는 것이 돈이거든요. 그러나 이 보배라는 것은 울궈먹어도 울궈먹어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고 넣어도 넣어도 불어나지 않고 그냥 영원하게 세세생생에 쭉 그 종자가 내려가는 데도 손색이 없다 이런 말이죠.

어휴, 하여튼 보살이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먹는 사람은 먹고 싶은 거를 다 집어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걱정을 안 해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걱정도 아니지만 마음을 좀 툭툭 벗어나 봐라. 좀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어디 좀 그런 그림이라도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산책이라도 좀 해 봐라. 허허. 또 산책을 해 보다 보면 좀 볼거리도 있을 거다. 또 어느 물에도 좀…, 그 괜히 뛰어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기걸랑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술잔을 하나 만들었더래요. 그런데 술잔 안에다 자기 영혼을 집어넣었거든요. 허허허.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말이에요, 술을 먹을 만치만 부어서 먹어야지 더 먹는다 하면 술이 부으면 없어져요. 허허. 그러한 잔도 있었더랍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인 영원한 그 마음 자체를, 줄지도 않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마음대로 늘여서 쓰려면 늘여서 쓰고 줄여서 쓰려면 줄여서 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펼쳐서 쓰려면 펼쳐서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허공에 그 생명들의 마음도 포함이 돼 주기 때문에 에너지가 저절로 항구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마음 쓰기에 따라 쓰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즉 말하자면 그걸 끌어 쓰려고 애써서 하나만 끌어서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우리는 만년묵이거든. 난리가 나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여기에 만년묵이로 돼 있거든.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 들어 있고 그걸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세생생을 써도 줄지 않는 그런 무기가 돼 있거든.

이렇게 조금조금 말 못하는 일들을 그저 대수롭지 않은 데서 힌트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난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급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 그냥 살 양으로 뛰어나가려고 애쓰죠? 그와 같이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인공도 그렇게 부릴 수 있다. 허허, '급하면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급하면 마음으로 늘여서 쓰든 줄여서 쓰든 그냥 점프를 해서 쓰든 그냥 쓸 거다. 허허허, 이해가 갑니까?

질문자2(남) 제가 처음에 나올 때는 스님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이미 스님께서 그 답을 다 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뜻은 같지만 제가 생각하는 색채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쪽에 떡을 들고 있는 제 모습, 더불어 많은 분들의 모습을 제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서 마음 다스리는 공부 하기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내가 진정으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신데 옆 사람이나 자비의 생각이 절대 안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는 그렇게 들겠죠. 그러나 저희가 마음이 닦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마음공부 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역경, 어려운 경계, 어려운 생활고 그 속에서 자기 마음을 밝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스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공부하는 태도가 말입니다. 아까도 저 부처님을 따로 보되 자기로 다 돌렸지마는 사람 사는 게 그 모두 천차만별로 가지가지 헤아릴 수 없는 생활인데 귀찮게 어떻게 그렇게 갈가리 찢어서 살 수가 있겠소? 그러니깐 공부하는 것도 저 부처님을 보되, 나의 모습을 보되 모든 거를 자기 모습과 둘 아니게 그냥 둥글려서 주인공 하나로 보란 얘기죠. 그렇게 하면 편리할 거를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해서, 예전에 고사를 지내도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이렇게들 모두 공평치 못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어려운 경계가 없으면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도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왜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이거야. 어렵지 않은 처지에서는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지. 그건 왜냐하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게 아니거든.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하거든. 자기 분수에 맞게 말이야. 인간이 살아나가는 경계에서 분수에 맞게, 우리 한국 나라라는 것도 잊지 말고, 내 가정의 부모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지내온 것도 알아서 내가 분수에 맞게. 그리고 있는 자는 더 검소해야 된다, 익은 자는 더 고개를 수그려야 된다, 허리를 굽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재산이 있다 그래서 마구 사는 사람은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없으나, 있는 사람이 사는 거나 없는 사람이 사는 거나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하고 그 반면에, 나는 내가 안 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어려운 집이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절 짓는 데 보태는 것만 불사가 아니거든. 굶어서 애쓰고 자식들이 아파서 애쓰고 부모가 아파서 자식들이 애쓰고 소년소녀 가장들, 또 자식이 없는 부모들, 노인네들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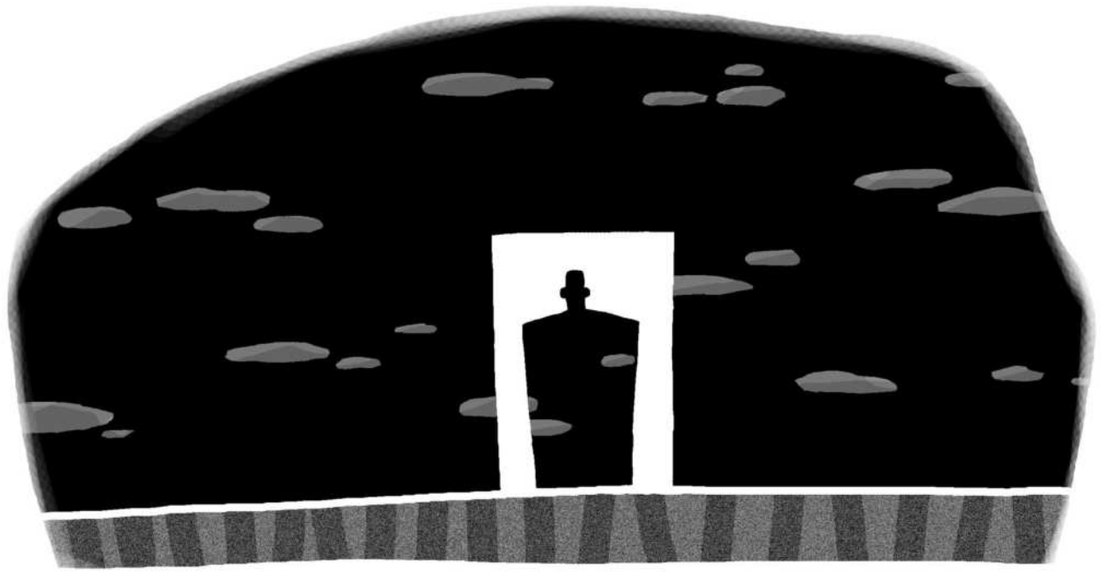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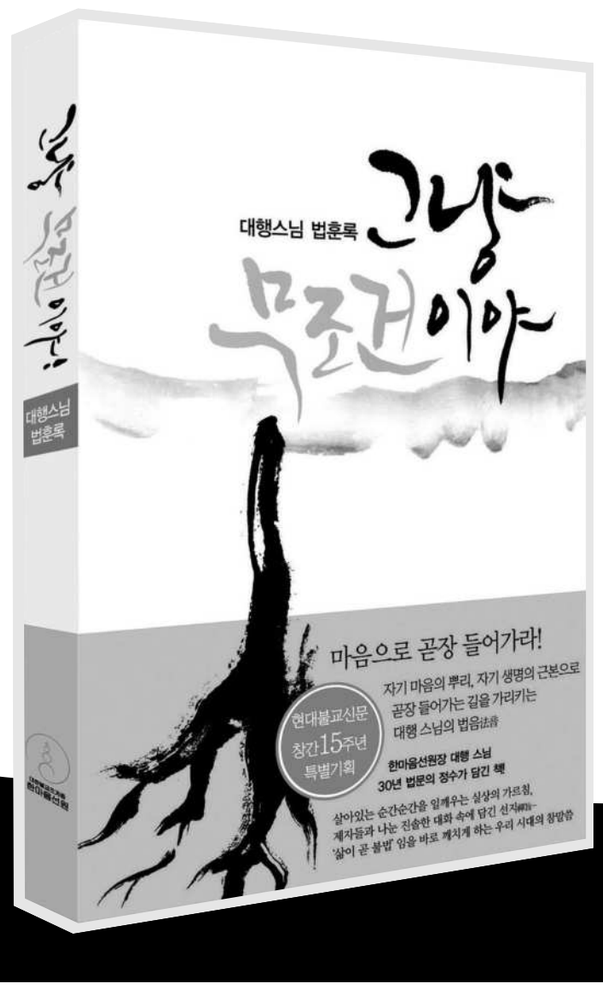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뿌리와 싹이 같이 붙어 있는데 찾고 안 찾고가 어디 있어요

☞ 29면에서 계속

을 볼 때에 지금 남들이 다 해 줘요. 해 주는데 해서 받는 사람은 텔레비전에 이름난 사람들이나 받지, 창피하고 양심이 있고 어렵고 가장들이 애쓰고 힘들고 노인네가 숨겨져 가지고 그냥 고생하는 사람이 허다히 많거든. 그런 부분을 좀 봐서 함이 없이 도와줘라, 있으면. 없으면 모르겠지만, 없으면 또 마음으로 도와줘라.

넣어도 넣어도 줄지 않는 마음, 그 뭣다 뭘 하느냐 이거야. 응? 마음 한 접시씩 담아서 그냥 벌려라 이거야. 벌려도 벌려도 줄지 않는다 이거야. 그 마음 아꼈다가 뭐 하느냐 이거야. 마음을 아끼느라고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을 가려 가지고 이쁜 사람만 주고 미운 사람을 안 준단 얘기야? 마음을 아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통달을 못해. 또 있소?

질문자2(남) 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손해를 끼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하고 용서할 수 있으나, 용서라는 것은 마음에서겠죠. 그런데 대의를 위해서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가차 없이 직선적으로 칠 때, 그럴 때 저희가 상대한테 "아, 내가 조금 전에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제가 바꿔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 보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아! 이건 아니었구나.' 그래 가지고 원래 처음부터 제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것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나마 마음이 툭 튀어나간 것은 마음에서 나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다 '진정으로 네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생각이 옳다 하나, 상대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스님 생각이 왜 그렇게 길어요? 사람이 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길게 생각을 하면 귀찮아져요. 그러니깐 그런 걸 다 묵살하고, 그냥 그 시원치 않고 뭐 이쁘고 밉고 간에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인데 뭐, 그렇게 돼야 하겠느냐. 좋게 해결이 나야지.' 이렇게 한 생각만 하면 될 거를 뭐 거기 이유가 붙어요? 이유가 붙으면 안 돼요.

질문자3(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해온 과정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앉으나 서나 길을 가거나 일을 하거나 껌을 하나 씹더라도,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항상 관하고 관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오래 전부터 항상 스스로 제 마음자리를 계속 지켜보면서 가는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의식적일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항상 스스로 지켜보고 가거든요. 가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평온한데 또 제가 일을 할 때나 길을 걷거나 집에 앉아 있거나 항상 이것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큰스님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 도반들 생각을 한다든지 지원의 스님들 생각을 한다든지, 하여간 마음공부에 관해서만은 자동으로 항상 연결돼 돌아가는데 그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할 때는 일에 전념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안되고 그냥 한다는 의식 없이 자동으로 그냥 연결되어 돌아가거든요.

큰스님 24시간을 일을 하는데요, 주인공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24시간이 지나서 주인공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게 24시간을 공간을 두고서 띄어졌나요? 그냥 무시(無時)거든, 무시. 무시라고, 무심(無心). 그러니까 24시간 뒤에 생각난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24시간이 있지, 24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초월해서 그냥 그 시간에 생각났으면 그 시간에 난 거지 24시간이 왜 거기 붙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24시간이 붙기 이전에 또 관하는 게 생각이 났든 안 났든 그대로 뿌리와 싹이 같이 붙어 있는데 무슨 찾고 안 찾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냥 그대로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있는 거다. 그러니 그대로 무조건 믿어라. 자기 이외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종자이며 뿌리다, 불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대로 내가 생각이 났든 안 났든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있으니까 믿는 거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뿌리로 인해서 싹이 산다. '가지와 잎새가 푸르르게 되는 것도 바로 내 뿌리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감사하구나. 봄이 오면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고 하니 참 감사하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갈 거고, 과거에도 그렇게 이끌어 왔을 테고 참 고맙구나.' 이게 그냥 자연적이지 없는 거를 끌어다가 찾으려고 하고 없는 거를 끌어다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하는 데 그 일에 몰두를 하는 것도 바로 주인공을 믿고 찾는 거예요, 그게.

일에 몰두를 했다 해서 주인공을 생각지 않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그렇게 몰두하게 만들었으니까 주인공이 한 거지, 주인공의 시자일 뿐이지, 움죽거리게 했을 뿐이지 뭐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이 다 하고 움죽거리는 것도 거기서 움죽거리게 하니까 움죽거리는 거지, 만약에 그 영원한 자기의 근본이 빠진다면은 자기는 송장이 되는데 뭐 움죽거릴 게 있어요, 네? 안 그래요? 자기가 지금 눈 뜨고 이렇게 고갯짓 하는 것도 자기 영원한 근본이 살아있으니깐 그게 있는 거지, 그게 빠지면 송장이 돼서 그냥 눈 감고 있을 걸요, 아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눈 하나 뜨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물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바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모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이 몸을 이렇게 내놓기 위해서, 형성시키기 위해서 지수화풍으로 된 정자 난자를 빌려서, 또 지수화풍에서 낳게 하고 지수화풍을 또 형성케 해서 이렇게 삶의 보람을 가지려고 자기를 형성시켰는데,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생산을 했는데 주인이라는 자체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주인이 하고자 하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 껍데기가 자기라고 외치면서 그냥 돌아치니깐 이 속의 주인공, 참자기는 어이가 없을 겁니다, 아마. 어이가 없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번 움죽거리고 살아 볼 양으로 형성시켰는데 핀트가 다르게 자꾸 가니까 어이가 없을 거예요.

질문자3(남) 큰스님,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알게 된 부분인데 나를 본다는 게, 견성을 한다는 게 혹시 이런 건 아닌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경의 일부분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해는 해마다 좋은 해요, 달은 달마다 좋은 달이요, 날은 날마다 좋은 날이니,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법 또한 그러하리다.' 이 나의 실상이라는 게 오직 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아니 그렇든 저렇든, 그런 좋은 소리를 하든 안 하든, 집에 가서 배고프다고 "얘! 밥 가져오너라." 이런 소리를 하든 어떻게 됐든 거기서 나오는 소리거든, 그게. 그러니깐 자기를, 한번 가서 색경을 보고 말을 해 보라고요, 누가 하나. 그 모습은 누구며 그 모습 속에 말하는 자는 누군가? 그냥 모르든 알든 그냥 무조건 믿어 버리라니깐, 자기를!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걸 믿어버리라니깐.

질문자4(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스님, 이렇게 앉게 해 주신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큰스님 편하게 앉으세요, 그 앞으로.

질문자4(남) 부처님 법이 어디서 오는 건지 가는 건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꿈을 꾸는데 소를 봤습니다. 소를 보는데 초가집 밑에서 큰 황소가 기지개를 딱 펴더니 그 소가 그것도 고삐가 뚝뚝 끊어지면서 그냥 달아나가는데 트랙터가 그 소를 막으려고 했더니, 소가 뿔을 들이대면서 그 트랙터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몸을 홀랑 벗으면서 그냥 달아나가는 걸 갖다가 '이거는 내가 잡아야 된다.' 하고 쫓아가면서 양 고삐를 잡았는데 잡는 동시에 한참 끌려가다가, 산으로 끌려가다가 그 소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면서 등을 떡 대고 엎드려서 거길 타라 그러기에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독경하면서 그 산등을 올라갔더니 허허벌판이, 그냥 벌판이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스님 용하십니다. 거기까지 길 없는 길을 걸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또 여여하게 있는 줄 아셔야 할 테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에서 없으면서도 이렇게 여여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는 것을 함이 없이 우리가 초월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자취를 앞으로는 떼어 놓지 않았으니깐 없고 또 자꾸 떼어 놓으면 발자국이 없어지니깐 없고, 그 발자국 떼어 놓는 것도 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게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 마음을 던져 봐라. 마음을 즉, 탁 틔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옹졸해서 그 육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육이라는 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니까 꿈이 생시고 생시가 꿈이니 생시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그 소가 댁이에요, 댁. 소로 화해서 보이는 거죠. 자기 소가 벗어나는 걸 자기가 봤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벗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고삐를 탁 치고 이제는 매여 있던 이 육신, 통 안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음이 벗어나서 자유롭게 뛰다가 그것도 또 다시 잡아야 하니까 화했습니다. 사람이 돼서 노인네로 익었습니다. 노인네로 보이는 건 익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익어 가니까 지금 익어 가는 도중에 또 여여하게 잡아서 타고, 그 사람이 타는 거는 '너의 몸과 내 이 늙은 아비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을 역대로 오면서 형성시켰으니까 당신의 조상이죠, 얼른 쉽게 말해서. 당신의 조상인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쫓아가서 그 소고삐를 쥐려고 했는데 탁 끊어진 것은 댁이 태어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를 탄 거는 둘이 아니라는 뜻이요, 그 소가 화해서 변한 거는 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요. 그래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이제 여여한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더 하십시오. 하여튼 장하십니다. 착해서…. 다 되셨습니까?

대중 예.

큰스님 그러니깐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할 것은 내가 추워서 걱정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말고 허허, 법당이 있든 없든 마당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생각하시고 그저 '내 마음은 자유다. 내 마음은 모두….' 마음이 자유죠? 그냥 벼락이 쳐 온대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점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뛸 줄 알아야 이것이 요량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실천을 해 보면 요량이 생기고, 뜻도 아주 막연한 뜻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광대한 뜻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공부하시려고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에 저기 지금 나간 분도 비록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려우나, 마음이 곱고 착하고 할 양으로 애쓰니까 그렇게 벗어나는 것을 말입니다.

※위 법문은 97년 1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돈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한 번만 잘못되면
> 그냥 왕창 다 없어져 거지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 돈이거든요.
> 그러나 이 보배라는 것은 울궈먹어도 울궈먹어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고 넣어도 넣어도 불어나지 않고
> 그냥 영원하게 세세생생에 쭉 그 종자가 내려가는 데도 손색이 없다, 이런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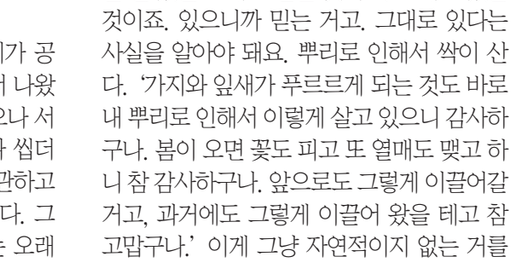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 60㎝ × D 40㎝ × H 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태고종 사태, 대승적 해결을 촉구한다



성 태 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태고종은 어디 있는가? 해방 직후라면 한국 최고의 불교 종단이었고, 그 뒤 조계종의 성립 이후엔 조계종과 대립각을 세울 유일한 불교 종단으로 여겨졌던 태고종은 지금 어디 있는가? 태고종 종도들이 들으면 분노할 말이지만, 지금의 태고종 사태에 대하여 우선 드는 생각은 바로 이 생각이다.

태고종은 어디 있는가? 이 생각, 이 말이 태고종은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우선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어찌 되었던 한국의 불교를 대표하며, 또 조계종에 속할 수 없었거나 뜻이 다른 수많은 대덕들이 몸을 담았던 태고종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런 뜨거운 말을 토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만큼 태고종의 현재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외형적 지표만 보더라고 천태종이나 진각종보다 훨씬 뒤지는 것이 태고종의 현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태고종은 완전히 군소 종단 가운데 하나로 전락할 것이며,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 태고종이 지금 관심을 끄는 사태를 빚고 있다. 그런데 그 관심이 긍정적인 관심이 아니라 정말 부정적이고, 태고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관심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관심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또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번 태고종 문제의 실상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문제가 불거진 배경을 보자. 태고종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집행부에서 좀 과격한 칼을 휘두른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그 부채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그런 부채 문제를 야기하고도 구태의연하게 있었던 기성의 세력 구조 속에서는 태고종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내외의 시각이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지혜롭지 못하였다는 사실, 또 그러한 극단적인 처방을 받쳐줄 만한 현실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시행되어 폭력을 수반한 분규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방편이 빚은 폭력적인 사태까지.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문제는 문제대로 남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만을 더하게 된다면? 태고종의 문제를 지켜보는 눈빛에 근심이 어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번 사태가 태고종이 관심을 끌 수 있는 마지막 사태가 아닐까하는 우려가 과연 기우일 따름일까?

거기에 이 문제를 두고 양 진영이 전혀 반성과 양보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법적인 심판에 그 해결을 맡기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큰 문제이다. 세속을 이끌어야 할 종교가 세속적 법의 심판에 그 운명을 맡긴다 함은 그 종교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좋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속적 법의 심판에 의해 운명이 좌우된 종교가 과연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가? 무슨 자격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아픈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이유는, 태고종의 지도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하는 노파심 때문이다. 정말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자기 세력을 위한 싸움에 연연하다가는 자기들이 누리고 지켜야 할 태고종 자체가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한국 불교의 큰 손실이요, 불교 역사에 하나의 수치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태고종 살리기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소리 높여 충고하고 싶기 때문이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큰 사태로 불거진 것은, 그 바탕에 근원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 근원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양 진영이 모든 사심을 버리고 함께하지 않으면 더 이상 태고종의 미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자기 편이 이기겠다는 싸움을 계속해서는 비참한 패배자들만이 남을 뿐이다. 진정 태고종을 살리려는 대승적 자세로 태고종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100인 대중공사 성공하기 위해선

계획 발표 당시부터 종단 안팎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던 조계종의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1월 28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문을 열었다. 이날 이날 대중공사에는 100인 위원으로 초청된 각계 사부대중 1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실 이 같이 사부대중이 대규모로 모여 종단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토론 방식은 색다른 토론 방식도 눈길을 끌었다. 참가 대중은 이미지 연상하기와 '감사 · 창의 · 용기 · 책임 · 탁월 · 헌신 · 배려 · 열정 · 화합 · 진실' 등 제시 단어를 보고 스스로 키워드를 정했다. 10개로 나눠진 분임 토의에서는 키워드를 통해 우선되는 종단 현안 의제 5개를 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생각하는 종단 현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열의 있게 토론하고 제기하는 참가 위원들이 많아졌다.

100인 대중공사는 분임 토의를 통해 각 모둠마다 5가지 의제를 쏟아냈고, 총 14가지 의제를 투표에 부쳤다. 투표를 진행한 뒤에는 실제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8대 의제가 정해졌다.

하지만 100인 대중공사가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치적 이벤트'라는 지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실한 논의와 도출된 방안을 현실에 적용해 실제적 성과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합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입견이나 편견, 이해관계 득실을 배제하고 우선 실천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각급 종무기관에 적극 반영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승 스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100인 위원들의 원할한 참여와 반대 진영 측 인사를 공의의 장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실제 중앙종회의원 당연직 참가자로 이름을 올린 종책 모임 삼화도량 소속 의원들은 대중공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100인 대중공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통'이 관건이다. 반대 목소리를 끌어안아 녹여낼 수 있는 포용력과 정치 지형을 넘어선 정책 반영이 있어야 한다. 100인 대중공사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성년 맞은 불교복지, 새로운 시작 기대

설립 20주년을 맞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불교복지의 산실이다. 현재 복지는 사회의 트렌드로 고착화 됐다. 우리 불교계도 발빠르게 20년 전 재단을 만들어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다.

사각지대인 노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의 문호를 넓혔고, 권역별 복지 네트워크 및 수탁 기관 확충 등 불교복지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다. 다문화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사회는 불교계에 보다 많은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뤄지는 복지에 있어 불교가르침에 따라 어려운 이를 보듬는 인재불사는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일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근본 원인은 일선 인력들의 인성과 교육 등에서 미비점이 발견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방지를 위해서는 시설종사자 윤리교육 강화가 꼽히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회복지재단이 불교복지 인재양성을 위해 복지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 연구개발인력 등을 확충한다니 환영할 일이다.

또 재단 사무국 직원들과 산하 복지시설과의 순환근무 체계를 확립해 복지현장 체험을 통해 현장성 있는 정책을 펴내는 것도 기대해볼 만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며 여기에는 불자들의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성년을 맞은 불교복지.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 했다. 양적인 성장과 함께 인재불사를 통해 속까지 꽉찬 진정한 성인으로의 모습을 기대한다.

발언대

7일만이라도 잡념없이 정진해보자

부처님 되신 날을 기리며



무상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헛되이 치달려왔다.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 집 짓는 자여, 그대는 보였다.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집의 서까래는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은 업 형성을 멈추었고 갈애는 모두 부서졌다."

〈법구경(法句經)〉에 나오는 경구로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하여 6년 10개월여의 정진 끝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면서 읊은 게송이라 한다. 중생들이 나라고 잘못 알고 집착하는 까닭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짓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비바람 피하기에 평안한 것이라 착각하지만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처님은 3명(明) 6통(通)을 하심으로써 다시는 집을 짓지 않은 것이다. 신족, 타심, 천이 ,숙명, 천안, 누진(漏盡)으로 나누어 설명하지만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면 번뇌의 다른 이름인 샘(漏)이 아예 없어 걸릴 것이 없으므로 모든 것은 아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것을 아시기에 더 이상 새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은 시간으로 나누면 과거와 미래 그것을 아우르는 현재입니다. 늘 현재이지요. 공간으로는 모든 곳이니 바로 이곳, 여기다.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 사람이 살만한 곳을 찾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아메리카원주민을 인디언이라 잘못하지 말고 머무르라(stay)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 비로소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는 행복, 요즘 말로 하면 지속가능한 행복인 열반을 얻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 "마치 큰 나무들이 빽빽한 숲 속을 헤매다가 고대인들이 다녔던 길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살았던 거대한 도시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도시를 복구하여 다시 발전시키는 것과 같다. 나도 그와 같이 옛 길을 발견 한 것이다. 내가 발견한 옛 길이란 옛날에 올바른 깨달음이 얻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라고 하셨다.

바른 삶(보고,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며, 생활하고, 노력하며, 집중하고, 안정함)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이며 이미 다른 분(과거 부처님들)이 걸어갔던 길이다. 바른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울까? 상근기의 남자 출가자만 가능할까? 부처님께서는 어느 풀이나 나무를 꺾어서 불을 피워도 다 같이 탄다고 하였다.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겁, 여러 해, 여러 달이면 더욱 잘 되겠지만 단 이레만이라도 다른 생각 없이 정진하면 가능하다고 하셨다.

근대의 해안(海眼)선사도 깨닫기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고 이레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어렵다 지레짐작하여 해보지도 않는 것은 부처의 후예라고 할 수 없다. 밤을 새는 것이 목적인양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열심히 하느라 밤을 새는 것이지 밤 새느라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해인사처럼, 중국의 여산 동림사나 대만의 사찰에서도 '이레정진(禪七,佛七)'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인도 부처님 정각 성지인 보드가야의 대탑.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JTBC 부모찾기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피워풀한 강의!!
지금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2015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

방수전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m / 6cm연등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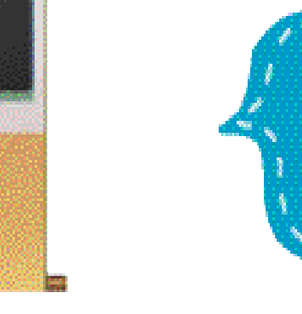
방수전선-50cm
할인가 75,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방수전선-2m
할인가 80,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바림등(8cm)

비닐만월등 ▶
판매가 150,000원
• 1BOX : 100개
• 등지름 : 30㎝
할인가 3,200원 (30개이상)
정 가 3,800원
• 1BOX : 30개 • 등지름 : 24㎝
• 빨강,보라,주황,분홍,진분홍,흰색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전구(10W)
@ 250원
1BOX: 100개
제조원: 베트남

PVC영가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 기 : 8.5㎝×21㎝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8.5㎝×21㎝ • 진분홍, 연분홍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4,000원
판매가 10.5cm 4,500원
판매가 12cm(한지)10,000원
※1묶음당 10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완성품

플라스틱 등표연결집게
판매가 15,000원(100개)
• 연두색 / 흰색 中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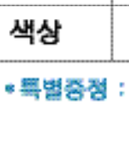

PVC등표 전용펜
판매가 2,000원
• 제 조 사 : 사쿠라 (일본)
• 가는 글씨와 굵은 글씨를 쓸수 있는 양면 펜.
(★검정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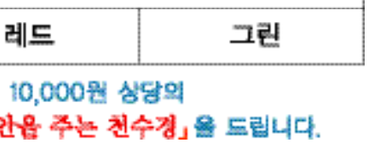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 등 할인가

• 바림등(6㎝) @2,700원 (60개이상)
• 바림등(8㎝) @3,200원 (3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16개이상)
• 바림등(13㎝) @13,000원 (6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2개이상)
• 바림등(30㎝) @80,000원 (1개이상)
• 공단등(6㎝) @3,000원 (60개이상)
• 공단등(8㎝) @3,600원 (30개이상)
• 공단등(10.5㎝) @7,000원 (16개이상)
• 공단등(13㎝) @15,000원 (6개이상)

• 비닐만월등 A형(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만월등(국산100개) 22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등철사(100개)
6㎝ 75,000원 / 8㎝ 80,000원
10.5㎝ 85,000원 / 12㎝ 100,000원


일반연잎(소/대) 6,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바림연잎/한지바림연잎
7,500원 / 8,5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천바림연잎 30,000원
진분홍/ 주황/ 빨강/ 연분홍 / 보라
수량 : 약 1,200장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